

신학적 강해의 대가 데이비스 박사의
전선지서 주해 시리즈 1



구약의 내러티브 어떻게 분석하고 강해할 것인가?



저자 데일 랄프 데이비스
역자 이창배

키 드 바 로 주 경 연구 소

THE WORD BECAME FRESH

HOW TO PREACH FROM OLD TESTAMENT NARRATIVE TEXTS

By

Dale Ralph Davis

Translated by

Chang Bae Lee

Copyright © Dale Ralph Davis

ISBN 1-84550-192-6

ISBN 978-1-84550-192-1

10 9 8 7 6 5 4 3 2 1

Published in 2006 by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Ltd.,

Geanies House, Fearn, Tain, Ross-shire, IV20 1TW, Scotland

www.christianfocus.com

All rights reserved.

Korean Edition

Copyright © Chang Bae Lee

저자 소개

데일 랄프 데이비스(Dale Ralph Davis)는 미시시피 해티스버그에 있는 우드랜드 장로교회의 목사이다. 그는 전에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을 가르쳤다. 그는 성경 핵심 주해(Focus on the Bible Commentary) 시리즈 가운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대한 주해도 썼다.

역자소개

이창배 목사는 국제대학교 영어영문과(B.A.),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M.E.), 총회신학연구원(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M.),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M.A., Ph.D.)를 졸업했다. 역자는 한국에서 총회신학연구원, 개혁신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등에서 구약학 교수를 역임했고 미국에서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Evangelia University 등에서 구약학 교수를 역임했다. 역자는 엘리스 알 브로츠만의 **구약 본문 비평의 이론과 실제**를 번역하였고, **룻기 원문주석**, **십계명 주해**, **이사야 53 장 주해**, **히브리어 문법**, **히브리어 교본**, **아람어 문법**을 썼다.

목차 (Contents)

저자 소개	iii
저자 서문.....	v
역자 서문.....	viii
1장 연구법 (Approach)	1
2장 특징들 (Quirks)	12
3장 신학: 의도된 메시지 (Theology: Intended Message)	33
4장 포장: 배치와 구성 (Packaging: Placement & Layout)	46
5장 난감한 것들 (Nasties)	62
6장 거시적 관점: 큰 그림 보기 (Macroscopic)	78
7장 적용 (Appropriation)	95
8장 핵심: 하나님 중심의 관점 (Center)	123
9장 종합: 관찰에서 강해로 (Synthesis: from Observations to Exposition)	141

저자 서문

이 책은 원래 나의 생각 가운데 없던 것이다. 나는 설교에 관하여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편이다. 나는 10 여 년 전에 강해 설교에 관한 한 강좌를 맡아서 가르쳐 본 적이 있다. 그 경험으로부터 나는 설교를 가르치는 일을 포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이 책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약의 내러티브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할 원리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 결과 이 책에는 강해 설교 자체를 다루는 마지막 한 단계가 빠져 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문제투성이”인 책인 것처럼 생각하는가? 이 문제가 나로 조금 애를 먹게 하지만 얼마든지 나는 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과 동일한 종류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상당수의 목사들과 교사들이 구약 성경을 강해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었는가? 이 문제는 정답이 분명해서 나로 그렇게 애를 먹게 하지 않는다. 거의 200 여년 동안 회의적인 구약 비평이 대학들과 신학교들을 휩쓸었다. 고등 비평 혹은 역사 비평이라고도 하는 이 비평은 구약을 “비신화화”한다고 하면서 구약 문서들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다고 암시함으로써 구약 연구를 대부분 지루하고 맥빠지고 단조로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구약 비평의 대사장적 기술에 매료되는 학생들이 더러 있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구약을 그저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정말 구약 성경이 복잡하다면, 목사들과 교사들에게 구약 성경은 너무 당혹스럽고 난해하여 장례식을 위해 잠깐 시편을 띄엄띄엄 읊는 것 이외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책이 되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구약을 죽이는 연구법의 예들은 주석들을 통해 액면 그대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마틴 노트의 출애굽기 주석에서 19:21-25 을¹ 다룬 부분을 찾아보라. 그는 이 구절에 8 줄을 할애하고, 그것을 “이차적인” 것이라고 하고, 두어 개의 사실적 관찰을 하고, 반 절에 대해 어려운 문제를 주해하고, 마지막 절을 “단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구절을 얼핏 조금만 주의 깊게

¹ [출 19:21-25]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2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23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24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25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살펴본 독자라면 누구나 여호와의 엄위 안에 있는 자비라는 놀라운 신학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트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단편들과 추가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 너무 골몰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구약 연구의 “악한들”을 박멸하는 십자군 전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악한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최근의 구약 연구에 훨씬 더 희망적인 징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오랫동안 유행했던 구약의 고등 비평, 곧 역사 비평이 교회에서 구약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믿는다. 이 작은 책 하나로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구약을 기쁘고 즐겁게 읽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많은 유익을 얻는 길을 제시하는 하나의 훈련이 되길 바란다. 나의 장모님이 말하곤 했듯이 “어쨌든 구약은 다르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이 책에서 내가 다루는 대부분의 것들은 구약 내러티브의 예들을 논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나는 가능한 한 폭넓게 예들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전에 전선지서(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대한 주해를 썼었다. 이것들은 이 책의 출판사인 크리스찬 포커스(Christian Focus)사를 통해 이미 6 권으로 출판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주해들로부터 반복하는 것을 피하려고) 이 책의 대부분의 예들을 그 주해들이 다룬 책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약 책들로부터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서 열왕기하까지의 본문이 매우 방대한 분량의 내러티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적절한 예들을 위해 가끔 불가피하게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참고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독자들이 베뢰아 사람들처럼 이 책에서 다루는 것들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늘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펴서 읽고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다.

사람은 누구나 항상 과제를 준 분들에게 빚지고 있다. 근래에 받았던 친절한 초빙들로 인해 나는 구약 내러티브에 관해 공부할 기회를 갖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은 나의 초빙자들과 청중들이 있다. 정말로 나는 런던에 있는 프로클러메이션 트러스트사(Proclamation Trust), 오하이오주 샤그린 폴즈에 있는 파크사이드 교회(Parkside Church), 글래스고우에 있는 스코틀랜드 목회 모임(Scottish Ministry Assembly), 에딘버러에 있는 페이스 미션 바이블 칼리지(Faith Mission Bible College), 남아프리카의 설교와 설교자(*Preaching and Preachers*), 남 웨일즈에 있는 목회자 우애 모임들, 그리고 내가 고용되어 구약 내러티브에 관한 강좌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리폼드 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나는 정확한 연구(rigorous study)와 경건한 열정(devotional warmth)이 우호적인 동반자라는 것을 항상 보여주시는 알렉 모티어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책을 바친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2006 년 부활절에

역자 서문

구약에는 현대의 역사책이나 과학책, 혹은 신학논문이나 신앙고백이나 조직신학 같은 아주 전문적인 내용의 글이 없다. 구약은 그 내용을 대부분 이야기와 시를 통하여 묘사하고 있으므로 보다 더 폭넓은 대상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어린 아이나 교육받지 못한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롯, 에스더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고난 중에 여호와께 호소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시를 감상할 수 있다. 이야기와 시는 지적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논문이나 조직신학 책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감정을 자극하고 의지에 호소하고 상상력을 고양시킨다. 각 문화마다 이야기를 쓰는 방식이 있고 시를 쓰는 방식이 있다. 우리의 문화적 배경은 성경의 문화적 배경과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저자들이 글을 쓴 방식에 대하여 배울 필요가 있다. 구약의 이야기를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학자들은 “이야기”라는 일상 용어 대신 “내러티브”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이야기라는 용어가 허구적인 것을 의미하며 단일 플롯과 단일 인물 묘사를 가진 단일 이야기라고 이해하기 쉬우므로, 전적으로 참되고 정말 중요하고 자주 복합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의 경우에 보다 더 객관적이며 보다 더 편견이 적은 내러티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² 내러티브는 하나님이 과거에 그 백성에게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는 이야기이다. 구약의 창세기, 여호수아, 사사기, 룯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요나, 학개 등이 대부분 혹은 전부가 내러티브로 되어 있고, 출애굽기, 민수기,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욥 등의 책에 상당한 내러티브 부분이 들어 있는 것을 계산하면 구약의 40%가 내러티브이다.³ 따라서 내러티브는 구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장르이다.

데이비스 박사의 이 책(*THE WORD BECAME FRESH*)은 성경 저자들이 내러티브를 쓴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며 내러티브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원리들과 다양한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내러티브 본문을 설교하려는 목회자, 가르치려는 교사, 더 잘 이해하려는 모든 신자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데이비스 박사는 익숙한 것을 아주 신선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아주 쉽고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능력을 가진 뛰어난 학자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데이비스 박사의 책들에 매료되어 같은 길을

² Gordon D. Fee and Douglas K.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4th ed.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03), 93.

³ Fee and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79.

걸어가는 구약학도로서 역자는 먼저 구약 내러티브의 분석의 원리들을 다루는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다.

데이비스 박사가 이 책에 설명한 원리들을 따라 실제로 내러티브들을 분석하여 신학적으로 강해진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의 전선지서 전권(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대한 주해들도 번역할 것이다. 전선지서란 용어가 낯선 사람을 위해 유대인의 정경 분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눅 24:44 이 알려주듯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경(기독교인의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토라(Torah, 모세의 율법, 5 권)와 느비임(Nevi'im, 선지자들 = 선지서, 8 권)과 크투빔(Ketuvim, 성문서, 11 권)이라고 했다. 따라서 히브리어 성경은 세 부분의 첫 글자에 모음 a를 붙여 TaNaK 라고 부른다.⁴ 유대인들은 두 번째 부분인 선지서를 전선지서와 후선지서로 구분했다. 전선지서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⁴ 구약 정경에 대한 기독교 전통의 4 분법과 유대교 전통의 3 분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독교 전통의 4 분법 (총 39 권)
 - 1) 율법서(모세오경): 창, 출, 레, 민, 신 [5 권]
 - 2) 역사서: 수, 삿, 룖, 삼상, 삼하, 왕상, 왕하, 대상, 대하, 스, 느, 에 [12 권]
 - 3) 시가서: 욱, 시, 잠, 전, 아 [5 권]
 - 4) 선지서:
 - ① (대전지서) 사, 렘, 애, 겔, 단
 - ② (소선지서) 호, 율, 암, 욱, 욜, 미, 나, 합, 습, 학, 스, 말 [17 권]
2. 유대교 전통의 3 분법 (총 24 권)
 - 1) 토라(תּוֹרָה 율법서): 5 권
브레시트(=창), 시모트(=출), 바이크라(=레), 브미드바르(=민), 드바림(=신)
 - 2) 느비임(נְבִיאִים 선지서): 8 권
전선지서(נְבִיאִים רִאשונים 느비임 리쇼님)
여호수아(=수), 쇼프팀(=삿), 시무엘(=삼), 므라힘(=왕),
후선지서(נְבִיאִים אַחֲרונים 느비임 아하로님)
여사야후(=사), 이르므야후(=렘), 여헤즈켈(=겔), 트레-아싸르(=12 소선지서)
 - 3) 크투빔(כְּתוּבִים 성문서): 11 권
시가서(שִׁפְטֵי סֵפֶר 세페르 에메트)
트힐림(=시), 이요브(=욱), 미실레(=잠)
두루마리서(מְגִלּוֹת 므길로트)
루트(=룻), 시르 하시림(=아), 코헬레트(=전), 에하(=애), 에스테르(=에)
역사서
다니엘(=단), 에즈라-느헬야(=스-느), 디브레 하야밈(=대)

열왕기이고, 후선지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트레-아싸르(12 = 12 소선지서)이다. 기독교 전통의 구약 성경 39 권과 유대교 전통의 히브리 정경 24 권은 책의 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유대교 전통에서 한 권으로 간주된 것들이 기독교 전통에서 상하(사무엘서 → 삼상, 삼하; 열왕기 → 왕상, 왕하; 역대기 → 대상, 대하) 혹은 각 책으로 구분된 것만 다르다(스-느 → 스, 느; 12[트레-아싸르] → 호, 율, 암, 읊, 욥, 미, 나, 합, 습, 학, 속, 말).

데이비스가 박사가 저술한 전선지서(수, 샏, 삼상, 삼하, 왕상, 왕하)를 전집 형식으로 번역할 수 있도록 판권을 얻는 데 도움을 주신 모퉁이돌선교회 국제 총무 이 반석 박사님과 마종철 장로님, 그리고 물심 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신 김 경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시리즈의 편집에 수고하신 동영애(Joyce Dong) 권사님과 교정에 수고하신 홍하금, 서기정, 장태환 전도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을 통해 내러티브의 해석 원리를 배운 설교자들이 내러티브를 깊게 강해하는 것을 듣고 “우리 목사님, 내러티브 강해가 신선해졌어요!”라고 하는 청중들의 탄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책을 통해 내러티브의 해석 원리를 배운 교사들이 내러티브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 “우리 선생님, 내러티브 설명이 아주 깊어졌어요!”라고 하는 학생들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읽고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데이비스 박사님, 내러티브를 보는 눈이 이제 환히 떠졌어요! 말씀의 기이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다. 이 책의 번역을 계기로 그러한 말들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울려 퍼진다면 역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구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러티브를 바르게 분석하여 의도된 메시지를 바로 파악하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모든 분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2015 년 1 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 장 연구법 (approach)

I.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출발점 (Begging—the place to start)

1. 나는 리차드 프렛의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들을 주셨다**(*He Gave Us Stories*)라는 좋은 책을¹ 읽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하며 얼마나 성령님의 사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었다. 물론 몇몇 논문과 짧은 글에서 논의되기는 하지만, 프렛 박사는 자신이 아는 한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최근의 진지한 연구는 300 여 년 전에 존 오웬이 쓴 것이라고 말했다.² 나는 그 책을 알아보려고 말주를 찾아보았다. 거기서 프렛은 오웬의 말을 인용한다. 그 존 오웬의 말은 나의 눈을 번쩍 뜨게 하였다.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기 위해 엄숙하게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고 성경의 어느 부분을 해석하는 작업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행위이다. 나는 자신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작품에 교만하게 달려드는 사람으로부터 진리의 발견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³

2.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은 단지 무시해 버리는 경솔의 죄가 아니라 오만의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러한 오만함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은 명목상 관행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연구할 때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해 주시길” 비는 경박한 기도를 드릴 때이다. 우리가 얼마나 경솔한지 생각하면 사람들은 몸서리친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명백하게 구하는 일을 얼마나 더 많이 소홀히 하는가! 우리는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다. 선택된 단락은 설교나 강의를 위해 연구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석의 노트를 꺼낸다. 우리는 책장에서 비교적 좋은 주석들을 여러 개 고집어 낸다. 우리는 가장 좋은 성경 사전 한 권은 반드시 가까이에 둔다. 깊은 연구를 위해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이 성경을 영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거나 의지할 생각조차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른다. 하나님은 우리가

¹ Pratt, Richard L. Jr. *He Gave Us Storie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1990. = 프렛, 리차드 L. **구약의 내러티브 해석**. 장동선, 김정호, 이승진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개혁주의신학사, 2010.]

² 프렛이 지적하고 있는 오웬의 책은 *Pneumatology: Or a Discourse Concerning the Holy Spirit* (Philadelphia: Tower and Hogan, 1827)이고 *Works of John Owen*, 4.121-234 에서도 볼 수 있다.

³ 이 말은 프렛의 책 *He Gave Us Stories* 의 404 쪽, 각주 15 에 인용되어 있고 오웬의 책 *Pneumatology* 의 204-205 쪽에 나온다.

사용하는 도구들을 통하여 그러한 이해를 주실 수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도구들을 사용할 때 그 도구들은 (일차적인 수단인 것처럼) 우상이 되어 버린다.

3. 우리가 성경을 매우 높이는 견해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여러 영역에서 성경의 권위가 무시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산란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성경 연구에 있어서는 쉽게 성경의 최고 해석자를 무시해 버린다. 경건함보다는 전문적 기술이 우리를 몰고간다. 우리가 거지와 같은 심정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로 인해 결실이 없고 빈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당연한 결과이므로 놀랄 필요가 없다.
4. 의회와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참석한 조지 길레스피(George Gillespie)에 대한 케케묵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에라스투스주의를⁴ 옹호하며 현학적인 긴 주장을 펼쳤다. 그의 동료들은 젊은 길레스피에게 답변을 하도록 재촉했다. 길레스피는 앞선 주장의 핵심을 반복하여 말하고 그것을 반박하였다. 그 당시 회의를 할 때 누군가가 말하는 동안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을 돕는 보조 수단으로 메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지 길레스피도 나중에 그가 반박했던 사람의 말을 들으며 메모를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이 길레스피의 공책을 슬쩍 들여다보았을 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주님, 빛을 보내 주소서.” “주님, 도움을 주소서.” “주님, 당신님 자신의 대의명분을 변호주소서.” 등과 같은 낙서뿐이었다.⁵ 이것이 바로 성경 해석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시작해야 하고(cf. 갈 3:3), 성령님으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거듭거듭 성령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계속해야만 한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II. 연기 자욱한 방에서 던질 질문 (The Smoke-filled Room and Asking Questions)

1. 가끔 나는 우리가 성경 해석이란 궁전의 어딘가에 연기 자욱한 방이 숨겨져 있고 그 방에서 소수의 해석학적 대사제들이 성경, 특히 구약을 정말로 잘 이해하기 위한 비법들을 나누어 줄 것만 같은 인상을 갖거나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 물론 이것은 단지 상상해 본 것에 불과하지만 때때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알렉 모티어의 고백을 읽고 많이 고무되었다.

⁴ [역자 주] 에라스투스주의란 교회는 국가 권력에 종속해야 한다는 국가 권력 지상주의로 국가가 교회 문제에 간섭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말한다.

⁵ James Reid, *Memoirs of the Westminster Divines* (1811; reprint ed.,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2), 2:281-82.

주님께서 설교자들을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인도하셨을 때 그들에게 전수되어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설교의 비법이나 연구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구약으로부터 전하는 설교로 나아가게 하는 특별한 대로도 없고, 내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전문적 묘수도 없다.⁶

2. 나 역시도 묘수는 없다. 나에게는 따르기만 하면 구약 내러티브의 보고를 캐낼 어떤 마법적인 절차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 나는 다만 설교와 교육을 위해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러티브 본문들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밝히려고 한다. 나는 내 자신이 연구한 것에서 뽑거나 다른 분들이 연구한 것으로부터 출처를 밝히고 감사드리며 인용하는 수많은 예들을 제시할 것이다. 나는 단지 설교자들과 교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본문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즐거운 책을 주셨구나 하고 중얼거리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성경적 영향력을 고양시키고 싶을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구약 내러티브의 양상들에 대한 학구적이고 난해한 논의를 찾고 있거나 내러티브 본문들을 해석하기 위한 세심하고 복잡한 기법을 찾고 있다면 이 책은 당신이 실수로 접하게 된 책이 될 것이다. 차라리 환불 정책을 알아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3. 내가 어떤 비전(秘傳)의 기법을 거부한다고 하여 그것이 성경 본문을 접근할 때 나에게 아무런 절차나 계획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성경을 대할 때 사람은 두 가지 실체, 즉 성령님과 본문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나의 연구를 위해 내가 갖게 된 전제들 중의 하나는 이렇다. **하나님은 문학의 형식으로 그의 말씀을 주셨고, 그 중 일부는 내러티브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러한 문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용가능한 모든 도구들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의 말씀의 형식에 적절한 연구법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최소한 나는 본문에 대하여 **질문들을** 던진다. 절차에 관한 한, 이것이 바로 나의 “절차”이다. 그것에 관해 지나치게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없다. 그것에는 어떤 규정된 순서대로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는 식의 통제가 없다. 그것은 정말 매우 기본적인 것이다.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단순하고 항상 나의 마음속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질문들에 대하여 간단히 논의하려고 한다.

⁶ Alec Motyer, “Preaching from the Old Testament,” in *Preaching the Living Word* (Ross-shire: Christian Focus, 1999), 99.

i. 왜? (의도) [Why? (Intention)]

4. 저자는 왜 이 본문을 포함시켰는가? 저자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가? 저자는 이 본문을 통해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일반적으로 저자의 목적은 **하나님 중심적**(theocentric)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자는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것, 즉 그분의 성품, 목적들, 요구들, 혹은 길들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1) 때때로 저자의 의도는 본문의 표면에 바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르호보암의 대실패를 이해하기 위해 열왕기상 12장 15절과 24절을 주목하라.⁷ 사사기 7장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에⁸ 주의를 기울이면 (어떤 강해자처럼) 기드온이 모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방식으로” 물을 마신 것을 비난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2) 때때로 저자의 의도는 반복되고 있는 것에서 드러나 있다. 창세기 39장, 출애굽기 1장, 그리고 열왕기하 1장을 보라.⁹

⁷ [왕상 12:15, 24] 15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 24 여호와와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⁸ [삿 7: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⁹ [역자 주] 창 39장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2, 3, 21, 23 절)과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2, 3, 23 절) 그리고 그로 인해 요셉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혜 받게 하신 것(4, 21 절) 등이 반복된다. 출애굽기 1장에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곧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 것을 반복하여 언급한다(7, 12, 20 절). 열왕기하 1장에는 바알세불을 찾은 아하시야의 죽음을 선언하는 엘리야의 말이 반복된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3-4, 6, 16 절)”

- 3) 때때로 저자의 의도는 단락의 문예적 구조를 통해 드러나 있다. 여호수아 2 장의 중앙에 나오는 라합의 신앙 고백(2:11)이나¹⁰ 사무엘상 11:1-11 의 중심에 나오는 [사울을 감동시키는] 성령님의 능력(11:6)을 보라.¹¹
- 4) 때때로 저자는 이야기의 특별한 분위기 속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그의 의도를 맛보게 한다. 사무엘하 13 장[암논의 다말 강간, 압살롬의 암논 살해, 다윗의 태도]을 보라.
- 5) 때때로 저자의 의도를 보게 해 주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이는 자료일 수 있다. 저자는 [최고의 내러티브로 찬사 받는] 롯기의 마지막을 왜 족보(4:18-22)로 장식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5. 물론 회의론자는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알아내거나 파악할 수 있다고 항상 확신할 수 있느냐고 정말 서슴없이 물어볼 것이다. 항상 확신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집요하게 의도를 묻는 질문들을 던졌을 때, 나는 보다 더 많은 본문이 내 앞에 활짝 열렸던 것을 경험했다.

¹⁰ [역자 주] Davis, *Joshua*, 25 = **여호수아 주해**, 12 에 나오는 여호수아 2 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여호수아가 파송한 두 정탐꾼, 수 2:1a

도착/관심사: 정탐꾼들의 보호, 수 2:2-7 [역자의 정정: 수 2:1b-7]

신앙의 고백, 수 2:8-14

도망/관심사: 라합과 일가친척의 보호, 수 2:15-21

여호수에게로 돌아온 두 정탐꾼, 수 2:22-24

[수 2: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¹¹ [역자 주] Davis, *1 Samuel*, 118. [= **사무엘상 주해**, 103 (10 장, II.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시는 변화)]에 나오는 삼상 11:1-13 에 나오는 구조는 다음과 같다.

압제하고 파괴하는 왕(사해 사본 4QSama 에 추가된 내용)

암몬의 위협, 삼상 11:1-2

야베스의 반응: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가리라," 삼상 11:3

전령들의 나쁜 소식, 삼상 11:4

사울의 질문과 그에 대한 반응, 삼상 11:5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다," 삼상 11:6

사울의 "전갈"과 그것에 대한 반응, 삼상 11:7-8

전령들의 좋은 소식, 삼상 11:9

야베스의 반응: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삼상 11:10

암몬의 도망, 삼상 11:11

구원하고 보존하는 왕, 삼상 11:12-13

여기서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느 누가 이 지점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그 자체로 좋은 훈련이고 자주 노다지를 안겨준다. 그래도 여전히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월터 카이저의 다음과 같은 조언은 “돌파구”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한 단락에서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지 찢찢매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곧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요구하심에 집중하면 결코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¹²

6. 오늘날에는 저자의 의도에 대한 이러한 모든 관심들이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나는 그것을 “공룡 해석학”이라고 부른다. 독자-반응 비평은 현재 크게 유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본문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만 답을 주려고 한다. 거기에는 명확하거나 정확한 의미는 전혀 없고 독자 안에서 일어나는 의미들만 있을 뿐이다.¹³ 나는 저자의 의도에 대한 나의 집착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정말 나는 그 사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한 본문을 통해 무언가를 의도했을 것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조만간 사람들은 다시 그것을 인식할 것이다.

ii. 어디서? (문맥) [Where? (Context)]

7. 나에게서는 우리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준 쪽지가 있다. 그 찢어진 종이 쪽지에는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나를 깨워 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당신은 우리가 매우 경건한 13살의 아들을 길렀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당신은 그 상황적 맥락을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 아들들은 “프로레슬링” 프로그램의 근육질 극작가들의 광적인 팬이자 모방자였다. 그들은 텔레비전에서 그것을 보고 나서 그들 자신의 극을 만들곤 했다. 그들이 이런 것을 보는 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금지하는 대신 레슬링 프로를 보려는 시간마다 한 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규칙을 정해 주었다. 여기서 내가 아버지로서 지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상황적 맥락을 알면 내 아들 셋(Seth)의 경건에 대한 당신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8. 그래서 우리는 내러티브를 포함한 모든 본문에 대하여 항상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가?”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첫째로,] 문맥적으로 이 본문은 어디에 나오는가? 무슨 이야기가 그 앞에

¹² Walter C. Kaiser, Jr., *Preaching and Teaching from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2003), 57.

¹³ 독자는 본문의 의미를 적용해야 하지만 그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Dan McCartney and Charles Clayton, *Let the Reader Understand* (Wheaton: Bridgepoint, 1994), 281. [=댄 맥카트니, 찰스 클레이튼. **성경해석학**. 김동수 역. 서울: IVP, 2000.]; Cf. Walter C. Kaiser, Jr., and Moisés Silva,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rmeneu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4), 240-45. [= 월터 C 카이저, 모이세스 실바. **성경해석학 개론**. 강창현 역. 서울: 은성, 1996.]

오는가? 무슨 이야기가 뒤에 오는가? 예를 들어, 창세기 27 장[이삭을 속여 복을 받은 야곱을
 에서가 죽이려는 상황]을 기억하는 것은 창세기 28:13-15을¹⁴ 듣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둘째로,] 역사적으로 이 본문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예레미야 애가는 내러티브 본문이 아니다.
 그렇지만 주전 587 년의 연기, 폐허, 그리고 실망과 연관 짓지 않고서 누가 애가 3 장의
 “당신님의 신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로,] 종교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이 본문은 어디에 나오는가? 예를 들어, 이교도의 관습을 잘 아는 것은
 열왕기상 18:27(과 시편 121:3-4)을¹⁵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iii. 어떻게? (구조) [How? (Structure)]

9. 나는 본문이 어떤 식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그것은 대칭적 전개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정해진 패턴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가? 그 구조는 의도된 강조를 드러내고 있는가(앞서
 논의한 “의도” 부분을 참고할 것)? 나는 문예적 기교들도 이 범주에 포함시킨다. 열왕기하 5:2-
 7 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소녀와 믿음 없는 이스라엘 왕 사이의 의도적인 대조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설교의 활력이 일어날 것이다.¹⁶

¹⁴ [창 28:13-15] 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¹⁵ [왕상 18:27]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시 121:3-4] 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¹⁶ [왕하 5:2-7] 2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4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5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6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7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나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줄 알라** 하니라

iv. 무엇을? (내용) [What? (Content)]

10. 강해의 힘든 작업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본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나는 특별히 나를 애먹이는 것에 집중하는데, 그것은 단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만 한다고 느껴지는 단어나 어구나 개념이다. 나는 본문의 이해를 가로막는 난제들을 따로 떼어 놓고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살필 때 내 시간의 대부분은 본문의 자세한 관찰에 할애된다. 그리고 문제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그저 관찰하고 생각하고 추론하면 된다. 요나서 1:1-2 을 생각해 보라.

여호와와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11. 이 본문에 대하여 그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적어도 두 가지 암시, 곧 여호와께서 가지시는 두 가지 전제를 파악할 수 있다. (1) 모든 나라는 여호와께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앗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들도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신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게토(거주 지역)의 마스코트에 불과한 신이 아니라 “세계적인” 신이다. (2) 모든 종은 여호와께 순종할 의무가 있다. 여호와께서는 특정한 인간 종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가정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 1:1-2 에서 세계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묘사된 여호와와 주권을 보게 된다. 여기 동일한 본문 안에 국제적인 주권과 개인적인 주권이 동시에 들어 있다. 하나님은 가장 거대한 전제들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 사실은 본문의 단순한 관찰에서 나온 것이다.

v. 그래서 그게 어땠다는 건가? (사용/적용): [So what? (Appropriation/Application)]

12. 미국의 야구 전설 가운데 루 노비코프(“미친 러시아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시카고 컵스의 외야수였다. 많은 야구선수들처럼 그는 미신적이었다. 그는 자기 아내 에스더가 관중석에서 자신을 조롱해 주어야 한다고 우겼다. 그는 자기 아내의 조롱이 그를 고무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모든 것은 노비코프가 태평양 연안 리그에서 뛰고 있을 때 시작되었다. 그가 타석에 들어섰다. 그 때 에스더는 본루 뒤에 있는 박스석에서 소리쳤다. “당신, 개 망나니! 당신은 안타를 칠 수 없을 거야!” 이에 루는 상대 투수의 초구를 쳐서 왼쪽 담장을 넘어가게 하는 홈런을 날렸다. 팬들은 에스더에게 왜 그렇게 남편을 구박했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남편이 화가 나면 안타를 치기 때문에” 남편을 화나게 하려고 그랬다고 찬찬히 설명했다. 노비코프는 좋은 한 해를 보낸 후 1941 년 시즌을 위해 시카고 컵스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는 가족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고 그해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1942 년 시즌 개막전에서

노비코프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한 여인의 목소리가 박스석으로부터 울려 퍼졌다. “저 망나니, 삼진 아웃시켜라! 그는 안타를 칠 수 없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에스더였다. 노비코프는 안타를 쳤다.¹⁷

13. 성경 해석도 이와 비슷하다. 우리도 우리 뒤에서 외치는 사랑에 찬 조롱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건가? 이 모든 공부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변화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왜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구박당하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해석자가 될 것이다.
14. 이 문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우리가 “적용”을 생략해 버리면, 다시 말해 우리가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전체 목적(딤후 3:16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교도들의 영혼의 숨구멍 안으로 나의 연구한 결과들을 스며들게 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수고를 계속해야 하는가? 내가 연구한 것이 설유(說諭)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연구한 방법 자체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5. 지금까지 살핀 대로 나는 본문에 대해 “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라는 질문들을 던진다. 연기 자욱한 방에서 그것들에 대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직격탄을 날리게 할 공식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다만 우리는 그것들이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도구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III. 예: 사사기 13 장과 질문들 (In the e. g. mode ...)

1. 우리는 이 질문들이 어떻게 우리로 본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본문 밖으로 나오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예로 사사기 13 장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사사기 13 장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다루지 않고, 실례를 위해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만 살펴볼 것이다.
2. 사사기 13 장 2-5 절에 주목하라.¹⁸ 여기서 우리는 무능, 무명, 약속을 보게 된다. 이것은 내용의 문제, 곧 “무엇?”과 관련된 것이다. 이 여인은 (창세기 11 장 30 절의 사라처럼 불임이어서)

¹⁷ Bruce Nash and Allan Zullo, *The Baseball Hall of Shame 4* (New York: Pocket Books, 1990), 180.

¹⁸ [삿 13:2-5] 2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3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자식도 없고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서 그녀는 단지 마노아의 아내일 뿐이고 이름이 없다. 사라의 상황을 (그리고 다른 불임 여성들의 상황) 기억하는 것은 여기서 도움이 된다. 이 모든 것은 전형적인 여호와와 모습의 아닌가? 여호와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서,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조차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무명의 사람들을 종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여호와답지 않으신가? 그분은 귀족 혈통에 대한 편견이 없으시다. 방금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로 넘어오지 않았는가?

3. 우리는 또한 “왜?”의 문제, 곧 저자의 의도에 대한 분명한 단서를 발견한다. 최소한 우리는 여호와께서 마노아의 부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삿 13:5).”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여호와와의 의도를 볼 수 있다. 언뜻 보기에 저자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기 시작할 이 구원자를 일으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데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에서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다른 구원자들도 만나게 되므로 앞으로 올 이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와 이전의 이야기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사기 13 장의 문학적 구조의 측면이 아니라 사사기 안에서 이 구원자 이야기와 모든 앞선 구원자 이야기들 사이의 문학적 대조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의 문제를 제기한다.
4. 이 삼손은 사사기의 다른 사사들과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에브라임 산지의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는, 이미 현장에 있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아니, 여기서 우리는 출생의 이야기를 갖는데, 이것은 사사기에서 유일한 경우이다. 이번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사실, 사사기 13 장 5 절에 의하면 삼손은 단지 “구원하기 시작할” 뿐이다. 구원은 비교적 긴 여정이 될 것이다. 여호와와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결코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으신다.
5. 이러한 관찰은 그것의 신학적인 내용과 함께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라는 적용의 범주로 넘어가게 하지 않는가?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려 깊으신 행보가 때때로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당신이 기한들을 정해 놓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시해 버리신다. 당신에게 필요한 구원이 있고 몹시 괴로운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은 서둘러서 모든 것을 바로잡지는 않으신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당신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가? 아니다.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지만 적어도 이 본문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전형적인 방식들의 하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6.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우리 교회의 회중 가운데서 나와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교회의 아침 예배에서 봉헌 순서를 맡은 적이 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이 일의 책임을 우리의 친구 데니스에게 맡겼다. 편견 없는 관찰자의 눈에 데니스가 그 직책의 “권위”를 의식하며 뽐내듯이 좀 거만하게 나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을 제외하면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 주일 아침 우리는 봉헌 드리기 바로 전에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내 친구 데이브와 나는 구석진 곳에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데이브는 갑자기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는 팔꿈치로 살짝 나를 찌르며 데니스와 봉헌 위원들이 순서 맡은 것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귀띔해 주었다. (그때 왜 내가 재치있게 데이브에게 데니스가 뽐내듯이 거만하게 나가 순서를 맡는지 기다려보자고 하지 않았을까? 나는 잘 모르겠다.) 찬송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나와야 할 어떤 봉헌 위원들도 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고 유능한 젊은 친구들이었으므로 데이브와 나는 다른 두 친구들과 함께 옆으로 걸어 나가서 경건하게 성찬상 앞에 자리를 잡고 봉헌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찬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고, 데니스와 그가 정한 봉헌 위원들이 예배당 뒤쪽에서 통로로 내려오기 시작할 때 순간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다행히도 우리 왼쪽에 교회 주차장으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옆문이 있었다. 그래서 봉헌 위원으로 봉사하려던 우리는 재빨리 자리를 비우고 그 옆문으로 쏜살같이 빠져나왔다. 그것은 수치스럽고 미련한 짓이었다. 그것은 기다려보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한 데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도 우리처럼 고혈압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문제가 생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상적인 방법들 안에 들어 있는 온전한 교훈이다. 그렇지 않은가?
7. 이것으로 우리가 사사기 13 장을 충분히 다 보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사사기 13 장은 하나님이 놀라게 하시는 분이고(1-5 절), 두려우신 분이고(8-23 절), 그리고 사려 깊으신 분이시다(5 절, 24-25 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신이 어떤 본문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때마다, 당신은 당신에게 아주 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2 장 특징들 (quirks)

1. 나에게서는 주요 교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빨간색의 작은 포드 픽업 트럭이 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특이한 점들을 갖고 있다. 클러치를 밟고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때가 더러 있었다. 그러나 내가 클러치에서 발을 떼었다가 다시 누르고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리곤 했다. 이런 일은 시동을 걸 때마다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종종 일어났을 뿐이다. 최근에는 한동안 그것이 “치유된” 것처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한번은 내가 버지니아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할 우리 회원들 중 한 사람을 태우고 공항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우연히 연료 계측기를 훑듯 보더니 연료가 다 떨어진 것을 알아보며 공항이 60 마일이나 떨어져 있으므로 휘발유를 넣는 것이 좋겠다고 재빨리 제안하였다. 나는 차분하게 연료 계측기가 고장나 있지만 주행거리계를 보고서 내가 가진 개략적인 연료의 양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연료 계측기를 고치려면 세 자리 수의 돈이 들어갈 것이지만, 나는 그보다 더 싸게 [연료의 양을 측정하는] 수학을 하며 나의 트럭을 타고 다닐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픽업 트럭에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고 또한 그것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특이한 점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해 준다.
2. 성경 내러티브도 이와 마찬가지로. 내러티브도 그 나름대로의 특징들을 갖고 있으므로 내러티브를 해석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주 기본적인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 중 대부분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문학적 특징의 범주에 속한다. 나는 그 중 몇 가지를 강조하며 문학적 특징에 주목하는 것이 때때로 어떻게 설교의 노다지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I. 과묵 (Reticence)

3. 내러티브를 읽을 때, 우리는 내레이터의 머리 속으로 들어가 그가 묘사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흔히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아보고 싶을 때가 있다. 때때로 저자는 놓쳐서는 안 될 그의 관점을 분명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사무엘하 11 장을 예로 들어 보자. 여기서 저자는 다윗의 밋세바와의 정사를 음욕에서 은폐에 이르기까지 줄곧 아무런 명시적인 평가 없이 묘사한다. 그는 “어휴, 숨 막혀!” 혹은 “아니, 이럴 수가!”와 같은 부수적인 설명을 삽입하지도 않는다. 그는 다윗의 실패를 거의 임상적인 방식으로,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그러다가 그는 그 장의 마지막 절의 마지막 부분(삼하 11:27b)에다 추호의 의심도 없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논평한다.

4. 문제는 저자들이 어떤 최종적인 결론을 보여주는 것을 항상 포함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카이저가 지적한 것처럼 “[내러티브] 본문의 저자가 이야기의 요점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것은 해석에 맡겨진다.”¹ 구약 내러티브들은 “관점(point of view)”에 이르면 자주 자주 침묵해 버린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도록” 되어 있다.

1) 다윗의 시글락 시절을 다루는 사무엘상 27 장을 보자.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나 암시가 전혀 없다. 여호와 혹은 저자는 다윗이 필사적으로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과 거기서 머무는 동안 행했던 그의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에 대한 명백한 신학적 단서들이 없다.

2) 아니면 창세기 37 장을 보자. 우리 대부분은 십중팔구 요셉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대할 것이다. 그리고 독자라면 누구든지 형들의 증오를 볼 수 있고, 그들의 부당한 돈벌이가 부당한 살인을 막았다는 사실을 놓칠 수 없다. 그렇지만 전체의 장이 온통 서술로만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은 언급되지 않는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 에피소드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¹ Walter C. Kaiser, Jr., “Narrative,” in *Cracking Old Testament Codes*, ed. D. Brent Sandy and Ronald L. Giese, Jr.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5), 70. 블락(Block)은 전체 딜레마를 잘 요약하며 그것을 해결할 뛰어난 프로그램도 함께 서술한다. “그러나 성경 내러티브들은 권위있는 의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도전을 준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교훈적 본문이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서정시적 본문에는 의도된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내러티브에서 항구적인 교훈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흔히 말해주는 이야기(telling)에 암시되어 있다. 룯기처럼 성격상 역사적 서술이면서 동시에 단편 이야기인 내러티브들에서 내레이터의 목적은 과거의 사건들을 재현하거나 재구성하는 데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속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가 본문의 요구를 다 충족시킨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 역사적 서술은 일차적으로 그 목적이 신학적이다. 저자의 권위있는 의미는 묘사된 사건에서 발견되지 않고, 저자의 사건에 대한 해석, 곧 사건의 원인, 성격, 결과에 대한 저자의 이해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그 해석은 말해주는 것(telling)에서 추론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본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올바른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1)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말해주는가? (2)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조건에 관하여 무엇을 말해 주는가? (3)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상에 관하여 무엇을 말해 주는가? (4)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곧 그들의 그분과의 관계에 관하여 무엇을 말해 주는가? (5)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개개 신자의 신앙 생활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들과 동원된 구문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주의 깊고 훈련된 행간 읽기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서술되지 않은 채 남겨진 것도 역시 신학적 관점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Daniel I. Block, *Judges, Ruth*,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9], 604-605.)”

전혀 듣지 못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요셉이 자기 꿈들에 관해 말한 것을 완벽하게 적절한 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요셉이 일부러 형들을 자극하기 위한 십대 특유의 우월주의적 행위(one-up-man-ship)로 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 저자는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5. 내러티브가 종종 말을 아끼는 것에 대하여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징들처럼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 저자들의 이러한 과묵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들에 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항상 손가락으로 떠먹여 주듯 일일이 우리에게 알려 주어야만 하겠는가?

II. 엿듣기 (Eavesdropping): 독자의 우위 (Reader's Edge)

6. 엔진 오일을 바꿀 때 첨가해서 넣는 STP Oil Treatment 에 대한 광고는 그 제품이 일반 운전자에게 자동차 경주 선수의 우세를 주었다고 선전하곤 했다. 성경의 내레이터들은 자주 우리에게 내가 “독자의 우위”라고 부르는 것을 알려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자주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이 알기 전에 독자인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준다. 독자로서 우리는 이야기 장면들의 배후에서 엿듣고 이야기의 이면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9 장에서 내레이터의 서술(3-5 절)을 통해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간파하기 전보다 훨씬 전에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를 알고 있다.
7. 우리는 성경 속 등장 인물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 사실은 때때로 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욥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욥기 1:6-12 과 욥기 2:1-7a 는 당신에게 “독자의 우위”를 제공한다. 당신은 천상 무대의 뒤에서 엿듣게 된다. 그러나 당신이 욥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접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사탄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욥 1:6-12; 2:1-7a)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8. **욥에게 있어서** 이야기는 자녀들을 위한 번제와 기도로 시작하여(욥 1:5) 스바 사람들이 그의 소들과 나귀들을 약탈하는 것으로 나아간다(욥 1:13-15). 그의 소유물이 약탈과 파괴로 다 없어지고, 그의 종들이 죽고, 그의 자녀들이 다 죽은 후에,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한다. 그 다음으로 욥은 그의 온 몸에 (곧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독한 종기가 생긴다(욥 2:7a). 욥은 1:6-12 과 2:1-7a 에서 문제가 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하여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 짐작하지도 못한다. 이 “무지”는 욥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9. 그러나 욥이 결코 갖지 못한 자료를 당신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에게는 기만적일 수 있고 욥에게는 불공평할 수 있다. 욥은 여호와와 사탄 사이의

대화를 담은 비디오나 테이프를 갖고 있지 않다. [독자로서 당신은 알고 있지만 등장 인물인 욥은 전혀 모르는 일이 천상에서 일어났었다.] 욥은 그의 온전함을 조롱하는 참소자에 대해 전혀 모르고 또 여호와께서 일관되게 그를 편들어 왔다는 사실도 전혀 모른 채 **오리무중 상태에서 그의 모든 싸움을 싸워 나갔다.** 이 간단한 관찰이 유익한 적용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² 자주 자주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바르게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해야 한다.

10. 1940 년 10 월에 어떤 사람이 전시 중 영국 보이스카웃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면서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왔다. 영국인들은 그가 베를린(독일)의 돈을 받고 일하는 첩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많은 보이스카웃들을 볼 수 있도록 배후에서 조종하며 전시들을 연출했다. 그들의 가장 명석한 책략은 그를 비행기로 스코틀랜드로 데려갈 때 일어났다. 그 당시 영국의 공군력은 소수의 허리케인 전투기와 더 적은 수의 스피트파이어 전투기뿐이었을 정도로 매우 약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로 가는 동안 내내 그들은 스피트파이어 전투기 비행 편대를 계속해서 만났다. 하늘은 그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물론 그 첩자는 그것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며 모든 각도와 모든 고도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동일한 스피트파이어 비행 편대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같은 일이 런던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일어났고 수백 대의 스피트파이어 전투기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영국은 잘 무장된 진영이라는 그 첩자의 보고서가 베를린으로 갔다.³ 그 첩자는 무대 뒤에서 (그를 위해) 무엇이 행해지고 있었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짐작도 하지 못했다.

11. 이것이 욥기 안에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을지 모른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시련 속에서 분노와 낙담을 누그러뜨리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에 도달하는 것은 단순히 문학적 관찰에서 시작된다.

² 이것은 또한 우리가 욥기 전반에 걸쳐 욥을 정확하게 그리고 동정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의 말들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는 “여기에 유린당해 심신이 황폐해졌을지라도, 독자로서 내가 그의 사건에 대해 아는 바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도 1:6-12 과 2:1-7a 에 대하여 모른다. 천상 장면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는 그들이 욥의 고난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지 주목하라.

³ 이 에피소드는 *Secrets and Spies: Behind-the-Scenes Stories of World War II* (Pleasantville, NY: Reader's Digest, 1964), 136-37 쪽에 나온다.

III. 선별 (Selectivity)

12. 선별이란 저자가 포함하는 것과 생략하는 것, 곧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말해주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정은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고,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은 그가 보기에 어떤 이유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이다.
13. 당신은 열왕기상 13 장에서 저자의 선별을 맛볼 수 있다. 열왕기상 13 장을 통독하면서 저자가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과 그가 말해주지 않으나 당신이 몹시 알고 싶은 것에 주목하라. 왜 그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왕상 13:18]?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참된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왕상 13:20-22]? 이 늙은 선지자는 왜 그렇게 괴상했을까? 당신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죽을 지경이지만, 내레이터는 당신의 이러한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임에 틀림없다.
14. 우리는 저자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포함시키고 관련 없는 것은 생략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 1) 이 가정을 가지면 창세기 22:3 이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는 듣고 있지만 그의 감정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고 있다. (물론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가?
- 2) 요나서는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묻는 질문으로 끝난다. 저자가 책의 끝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저자가 여호와와 마무리하는 진술과 질문(욥 4:10-11)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상관없지 않은가? 저자는 요나에 관한 사실[요나의 대답]을 이야기하는 대신, 우리를 끌어들여 그 질문에 직면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가?
- 3) (저자 누가가 사마리아 성 마술사 시몬의 사건을 기술하며 베드로의 저주 선언[행 8:20-23]을 들은 시몬이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행 8:24].”라고 간청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말하지 않고 생략한 것에 유의하라.)⁴
15. 때때로 저자는 “내가 지금 선별하고 있음을 주의하라!”고 말하듯이 자신의 방법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에 대한 고전적이고 교훈적인 예는 창세기 16 장과 17 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⁴ 때때로 저자는 절약을 위해 생략한다. 열왕기하 1:4b(“...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와 1:5a(“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 사이의 정보 누락을 살펴보자. 저자는 이 두 절 사이에 모든 세부적인 정보를 주지 않고 현명한 독자들이 지적으로 그것을 채워 넣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창세기 16 장을 마감하는 16 절은 우리에게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 세였다.”라고 말한다. 창세기 17 장을 시작하는 1 절은 우리에게 “아브람이 90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한다. 창세기 16 장과 17 장 사이에는 13 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그래서 저자는 최대한 친절하게 “나는 당신에게 아브라함의 완벽한 전기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창세기 16 장의 끝에 이르러 눈 한 번 깜빡하면 13 년이 흘러 가버린 창세기 17:1 을 만난다. 그렇다고 해서 저자가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16. 저자는 자료를 세심하게 선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매우 잘 돕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세심한 “시간 표시 어구들”을 통해 자신의 선별에 유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도 가르쳐준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13 년이 있다. 여기에 창 16:3 의 10 년을 더해 보라(창 12:4 참조).⁵ 정말 기나긴 시간이 흘러갔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창 12:7 과 15:4)⁶ 자손도 없고 아들도 없다. 그래서 저자는 13 년의 시간을 창세기 16 장과 17 장 사이의 역사적 쓰레기통 속으로 떨어뜨림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의 싸움을 강조하고 있다. 그 13 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아니, 그 이전의 10 여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아브라함은 염소들에게 수의사 노릇을 했고, 목동들 사이에 벌어진 싸움을 해결했고, 사라가 독감에 걸렸을 때 곁을 지켰고, 양떼를 위한 물 근원을 찾으라고 정찰대를 보냈다.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매일의 삶에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일하러 가는 것과 같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일을 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가도 여호와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자는 우리에게 **시간이** 믿음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약속의 불꽃 하나 보지 못한 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야만 할 때 믿음을 지속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⁵ [창 12: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의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 [창 16: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 [창 16: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 [17: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⁶ [창 12: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 [창 15:4]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IV. 풍자 (Sarcasm)

17. 종종 성경 저자는 자신의 요점을 납득시키려고 조소, 조롱, 폄하를 사용하며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이 기교는 널리 퍼져 있지 않지만 별 생각 없이 읽는 독자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자주 등장한다. [이것은 이방 종교, 자의적 종교, 거짓 신들과 연관 지어 많이 나온다.]

- 1) 조롱, 조소, 폄하라면, 즉시로 열왕기상 18:27 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놀리는 것이 생각날 것이다. 엘리야는 바알이 외출, 낮잠, 용변과 같은 여러 가지 “신적인” 행위에 몰두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조롱한다.
- 2) 이러한 빈정댐은 다른 곳에서도 (아마 덜 노골적일지 몰라도) 발견된다. 라반이 야곱에게 “어찌 내 신들을 도둑질하였느냐(창 31:30)?”라고 말하며 자기 신들을 훔친 것에 대한 비난을 할 때 비꼬미 살짝 들려진다. 여호와를 섬기는 순수한 독자/청자라면 “아니, 도둑질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신이 무슨 신이냐?”라고 생각할 것이다. 정통 신앙과 유머 감각(너무나 보기 힘든 조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신들이 라헬이 월경하는 동안 그녀의 따스함과 묵중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올 것이다(창 31:34-35).
- 3) 이와 비슷한 비꼬미는 무력한 미가가 단 지파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며 퍼붓는 말, 곧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삿 18:24)?”라는 말에서도 스며 나온다.
- 4) 성경 저자의 비꼬미는 사무엘상 5:1-5 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고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버린 다곤의 “외상(外傷 trauma)”을 묘사할 때 최고조에 달한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워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양의 강력한 접착제로 끊어진 머리와 손목을 몸통이에 붙이며 무척 행복해하였을 것이다.
- 5) 우리는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묘사하는) 열왕기상 12 장 28-33 절에서⁷ 그리고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한 이방 민족들의 종교 행위를 묘사하는) 열왕기하

⁷ [역자 주] 히브리어 동사 [아싸]는 구약에 2600 여번 사용된 흔한 동사이다. [아싸]가 열왕기상 12 장 28 절에 한 번 나오고 31-33 절 즉 이 세 개의 절에 무려 8 번이나 나온다. 다음 개역개정과 Young's Literal Translation 에 볼드체로 된 동사는 모두 히브리어 [아싸]를 번역한 것이다.

[개역개정: 왕상 12:28-33] 28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 하나는 베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17 장 29-31 절에서⁸ 매우 흔한 동사 “만들었다”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을 보고서도 저자의 조롱에 대한 암시를 얻는다.

6) 창세기 41:8, 24 그리고 다니엘 1:20; 2:1-11; 4:6-7, 18; 5:8, 15 에서 이방인들의 자원이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는 점도 유의하라. 이 모든 구절들은 독실한 조롱(devout scoffing)의 냄새를 풍긴다. 이방인들의 쓸모없는 자원은 참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 주신 자원을 돋보이게 하는 대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18. 풍자의 가장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예는 다니엘서 3 장에 나온다.

1)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관리들은 높이가 60 규빗(90 피트)이요 너비가 6 규빗(9 피트)이나 되는 신상 앞에서 의무적으로 묵념의 시간을 지켜야만 했다. 그것은 정부가 후원하는 충성 훈련인 것처럼 보인다. 신상 신봉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사적인 미신과 “개인적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들이 일자리와 목숨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신상에 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압력은 막강하다. 결국 그것은 법이기 때문이다. 모든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31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엘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엘에서 세웠더라 33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엘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YLT: 왕상 12:28-33] 28 And the king taketh counsel, and **maketh** two calves of gold, and saith unto them, ‘Enough to you of going up to Jerusalem; lo, thy gods, O Israel, which brought thee up out of the land of Egypt.’ 29 And he setteth the one in Beth-El, and the other he hath put in Dan, 30 and this thing becometh a sin, and the people go before the one — unto Dan. 31 And he **maketh** the house of high places, and **maketh** priests of the extremities of the people, who were not of the sons of Levi; 32 and Jeroboam **maketh** a festival in the eighth month, in the fifteenth day of the month, like the festival that [is] in Judah, and he offereth on the altar — so **did** he in Beth-El — to sacrifice to the calves which he **made**, and he hath appointed in Beth-El the priests of the high places that he **made**. 33 And he offereth up on the altar that he **made** in Beth-El, on the fifteenth day of the eighth month, in the month that he devised of his own heart, and he **maketh** a festival to the sons of Israel, and offereth on the altar — to make perfume.

⁸ [역자 주] 히브리어 동사 [아싸]는 왕하 17:29-31 에 무려 6 번이나 나온다.

[왕하 17:29-31] 29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30 바벨론 사람들은 숙곳브נות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31 아와 사람들은 님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총독들과 지방 관원들이 두라 평지에 세운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 앞에 그들의 등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코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해야 한다. 그런데, 그건 거부하기 어려운 일이다. “숭배를 조장하는 음악”만으로도 인상적이다(단 3:4-5, 7, 10, 15).

2) 그렇지만 저자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숭배”를 조롱하고 있다. 그는 전하면서 동시에 비웃는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자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언급하면서 “세우다(set up)”라는 뜻의 아람어 동사 [קָם]을 정확히 9 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한다(단 3:1, 2, 3[2 번], 5, 7, 12, 14, 18). 여기에 우리는 2 번(단 3:1, 15) 사용된 “만들다”를 덧붙일 수 있다.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본문에서 “세우다”의 사용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에 유의하며 계속 읽어보면 그 모든 것이 누적된 효과를 주는 것 같다. 말하자면, 그것은 “세운 것”에 불과하다.

3) 마치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배후에 정부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소극(笑劇)에 불과하다. 그 가면의 배후를 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의 거짓과 어리석음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보고 웃으시는 하나님(시 2:4)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에 현혹되거나 휘둘릴 필요가 없다. 사실 풀무불은 뜨겁지만, 그 신상은 그저 뜨거운 공기일 뿐이다. 그것은 단지 인간 왕이 커다란 국제적 바지를 걸치고 확보하는 조그만 자태일 뿐이다(참조, 사 46:6-7).⁹

19. 풍자는 유머의 한 형식이다. 나는 성경이 아주 익살스러울 때마다 그것은 또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관찰해 왔다. 성경 저자가 유머를 사용할 때는 항상 심각한 요점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풍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V. 상상 (Imagination)

20. 우리는 심상에 호소하는 시가서 본문과(/이나) 선지서 본문에 익숙해 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말하고자 했을 때, 그는 9절에 걸쳐 거의 온 우주가 요동하는 것 같은 표현들을 사용했다(시 18:7-15).¹⁰ 그리고 나훔은

⁹ [사 46:6-7] 6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 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7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¹⁰ [시 18:7-15] 7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8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쏘이 피었도다 9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10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여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여호와와 그의 위엄을 당신에게 각인시키려고 번쩍이는 광풍, 말라버린 바다, 진동하는 산, 그리고 황폐해진 세상으로 데려간다(나 1:3b-5).¹¹ 그것은 그가 당신으로 여호와와 그의 위엄 앞에 **떨며** 악을 보복하시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 놓으실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확신하도록 하고 싶기 때문이다(나 1:2-3, 6). 성경을 읽는 어떤 사람들은 왜 다윗이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었는지, 혹은 왜 나훔이 “여호와와 그의 위엄하심이다.”라는 표현에 만족할 수 없었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 왜 그들은 우리를 우주 속으로 데려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관하여 **알려주고** 싶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각인시켜**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 당신의 두뇌를 위한 사실뿐만 아니라 당신의 심상(心像)을 위한 그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21. 그러나 내러티브 본문들도 심상을 사용할 수 있다. 성경의 내레이터들은 비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을 통해 독자 스스로 사물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야만 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을 보라.¹²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야빈의 북부 연합군에 대한 묘사이다. 그런데 저자가 여러 왕들(royalty, 수 11:1-2a)과 여러 지역(geography, 수 11:2b)과 여러 족속(ethnicity, 수 11:3)을 밝히고 해변의 모래 같이 수많은(hyperbole, 수 11:4) 군대라고 묘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다섯 절의 묘사 대신 “야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거대한 군대를 모았다(Jabin assembled a humongous army in order to assault Israel).”라는 간략하고 명료한 요약은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영어로 10개의 단어만 사용하면 그 묘사를 끝마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저자는 71개의 히브리어 단어(→ NASB: 153개의 영어 단어)를 사용하여 숨을 쉴 틈도 주지 않고 당신을 가나안 북부 전역으로 끌어들이는가?

솟아오르셨도다 11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 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뽁뽁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12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뽁뽁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솟불이 내리도다 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렛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솟불을 내리시도다 14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흠으심이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15 이럴 때에 여호와와 그의 꾸지람과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¹¹ [나 1:3b-5] 3b 여호와와 그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4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5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¹² [수 11:1-5] 1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2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3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4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5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 쳤더라

22. 어쩌면 한 축구 경기에 대한 예가 우리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나는 미국 대학 축구 남동 연맹 안에 있는 라이벌 의식을 종이 위에 재현해 낼 수 없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에 미시시피 주립대가 오번대를 상대로 18대 16으로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이 그 경기나 그 점수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자. 하루나 이틀 뒤에 당신은 몇몇 주립대 팬들에게 그 경기에 대해 물으면, 그들이 “주립대가 18대 16으로 이겼다.”라고만 말하겠는가? 당신은 그들이 그렇게만 말하게 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경기 내용은 필요 없으니 점수만 알려 주시오!”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들어주겠는가? 그들은 이렇게 대꾸할 것이다. “점수 만으로는 그 경기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경기의 묘미를 제대로 맛볼 수 없을 것이요. 당신은 주립대가 처하고 있던 상황을 이해해야만 하오. 그들은 경기 종료 2 분여 남겨 놓은 상황에서 16대 3으로 지고 있었소. 그런데 ...” 그리고 그들은 그 2분여 남은 시간에 일어난 기적적인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나갈 것이다. 그래야만 제대로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3. 성경 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에게 캄코더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해야만 했다. 그들은 독자가 참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때때로 말을 늘리거나 말로 넘쳐나게 하였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처럼 말이다. 줄 위에 줄, 세부 사항 위에 세부 사항, 위험 위에 위험, 적 위에 적에 대한 묘사들은 마침내 당신을 연타하여 이스라엘이 직면한 상황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속수무책이었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이 종종 얼마나 불가능해 보였는지 깨닫게 해 준다.¹³

VI. 의외 (Surprise)

24. 성경 내러티브에는 크든 작든 충격적인 것들이 가미되어 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흐름에 너무 익숙해져서 놀라야만 할 때 놀라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처음으로 읽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길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경이 놀라게 하는 것은 교훈적인 것으로 판명된다.

25. 요나서는 준비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우리를 예기치 않은 일로 찰싹 때린다. 우리는 요나가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쳐서 외쳐야”만 했던 것을 읽는다.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옹바로 내려갔다. ... (욥 1:3)”¹⁴ 선지자들은 부르심을 받을 때 매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망연자실하기도

¹³ 우리는 히 11:32-40 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면서 난감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간단하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의 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며 본보기 공세를 퍼붓는다.

¹⁴ “여호와의 앞에서” 도망쳤다고 해서 요나가 선지 학교에서 시편 139 편을 결코 주해해 본 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요나는 미련하지 않았다. 그는 여호와의 우주적 통치에 대해 알고 있었다(욥 1:9 을 보라).

하고(이사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사 6:5]”), 겁에 질리기도 하고(예레미야,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렘 1:6-8]”), 분노하며 괴로워하기도 하였다(에스겔,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기고 7 일 동안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겔 3:14-15, 새번역]”). 그러나 요나만은 대담하게 “나는 여기서 나가 버리겠다!”라는 태도를 보인다.

26. 물론 여호와와는 수동적인 분이 아니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원문에 강조되어 있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욥 1:4).” 요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일으키기 시작하신다. 그러나 놀라운 일들은 계속된다. 배는 박살날 것처럼 보이고 선원들은 어쩔 줄 몰라 겁에 질린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다(욥 1:5).” 이걸 정말 사회적 통념상의 괴로워하는 양심마저 팔아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등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평안하지 못할” 것이라는 누군가의 경고를 들어본 적이

나는 요나의 행동을 왕상 17:1[וַיֵּשֶׁב יוֹנָתָן בְּתֵּי תְּרֵיּוֹן]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왕하 5:16[וַיֵּשֶׁב יוֹנָתָן בְּתֵּי תְּרֵיּוֹן] “내가 섬기는 여호와”에 비추어 이해한다. 이 두 구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여호와를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분(the One “before whom I stand”), 곧 내가 섬기는 분”으로 언급한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여호와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그분의 명령을 받고 그분의 지시를 기꺼이 수행하는 사람이다. 요나가 버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르심과 그 봉사이다. 요나는 니느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더 이상 그 땅에 없으면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을 찾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여호와의 앞에서 “도망친다”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직무에서 도망친다는 의미이다. 요나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이방 나라들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편협한 태도를 대표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여길 필요는 없다. 도대체 누가 요나가 이스라엘에 대한 풍유적 암호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요나서는 요나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선지자의 소명과 사역에 관한 책일 것이다. Cf. C. Hassell Bullock,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Prophetic Books* (Chicago: Moody, 1986), 42, 53-54; Alec Motyer, *The Stor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2001), 111.

[역자 주] 데이비스가 예로 든 왕상 17:1 과 왕하 5:16 의 전명구는 [르파나브]이고 욥 1:3 의 전명구는 [밀리프네]이다. 둘 모두 전치사 [르]와 [프네 < 파님 “얼굴”]을 공유하고 있지만, 욥 1:3 에는 공유된 전명구 앞에 분리를 뜻하는 전치사 [민]이 추가로 붙어 있다. Cf. Stuart, *Hosea-Jonah*, 450: “In fact, however, the expression [וַיֵּשֶׁב יוֹנָתָן] “away from Yahweh” is simply idiomatic, with the meaning that he wanted to get elsewhere, where Yahweh was not worshiped, i.e., ‘away from Israel’ (cf. Gen 4:16; 1 Sam 26:19-20; 2 Kgs 5:17; 13:23; 17:20, 23; Jer 23:39).”

있을 것이다. 그건 요나의 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요나가 위산 중화제를 너무 많이 먹었거나 제산제를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도망치는 것에 대하여 완벽한 평강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물론 때때로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친 종이 그러한 불순종으로 인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고, 항상 그런 것도 아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는 어떤 교인이 바로 지금이 자기 인생 최고의 “평안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들어본 적이 있다. 노골적인 불순종과 주관적인 평안은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있다. 그러한 평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코 없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다. 요나의 평안은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좀 무시무시한 일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기치 않은 일로부터 시작된다.

27. 우리는 여호수아 5 장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만난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대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던(수 5:5) 한 세대의 남성들에게(수 5:2-3)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신다. 비록 적들이 겁을 먹고 있다고 할지라도(수 5:1) 이건 일종의 하늘의 강심장처럼 보인다. 기억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할례 후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 용사들이 무력해진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잘 알 것이다. (이를 위해 창세기 34:25-29 을 보라.) 그러나 여기 적지에서 여호와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그의 전 군대를 무력화시키라고 요구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 “터무니없는” 절차에는 그 나름의 요점이 담겨 있다. 이스라엘의 보호는 전사들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와 팔에 달려있으며, 더 나아가 (할례라는 언약의 표징에 표현된) 언약적 신실이 군사적 준비보다 항상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여호와와 질서에 있어서 거룩함은 실용주의를 능가한다.

28.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뜻밖의 사건이 담당하는 기능 중 하나인 긴급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뉴파크 스트리트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윗층 발코니의 창문들이 박살나 있는 것을 발견했던 때와 같은 것이다. 분명 어떤 파손범의 소행이었다. 사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집사들에게 창문 몇 개를 항상 활짝 열어 놓으라고 여러 번 부탁했었다. 그 건물은 지대가 낮고 밀폐되어 있었으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덥고 통풍이 잘 안 되었다. 그래서 그랬던지 집사들은 무기력했다. 어쨌든 호의적인(?) 범주가 일어난 그날 밤까지 집사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연히 스펀전의 지팡이에 흠들, 굵힌 자국들, 유리 파편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건 그가 나중에 몇몇 학생들에게 “나는 그 답답한 구조물에 산소가 들어오게 하는

지팡이를 들고 걸어 다녔다.”라는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다.¹⁵ 그 충격의 배후에는 어떤 긴급함이 있었다. 스펔전의 경우에는 환기를 위한 긴급함이 있었고, 여호수아 5 장의 경우에는 성결을 위한 긴급함이 있었다.

29.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 24 장 19 절에서 갑자기 물을 얼굴에 끼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설명하며 여호와만 “섬기라”고 설득하고 있었다. “섬기다”라는 동사는 여호수아 24:14-24 에 14 번이나 나온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 1 계명(출 20:3)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권면하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만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택하든지 하라고 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강한 결의를 보여준다(수 24:14-15). 그 때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며 그와 비슷한 결의를 선언한다(수 24:16-18).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수 24:19).”라고 말한다.

30. 여호수아가 복음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는 청원을 하고 그의 요청을 각인시킨다. 음악이 시작된다.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빠르게 달려가 마이크를 잡고 외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정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호수아가 백성을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는 그들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무덤덤한 태도로 여호와께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였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목(attention)을 갈망하지 않고 그들의 진심(earnestness)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나올 때 그들은 감상적인 용납이 아니라 작열하는 거룩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감히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했다. 여호수아 24 장 19 절은 우리 시대의 어떤 “복음의 전도”에 대한 훌륭한 교정 수단이 될 것이다.

31. 성경에 나오는 의외의 일들은 대개 아주 중요한 설교 요점들을 감추고 있다. 이것이 설교자들이 성경의 충격적 사건들에 대해 정신 바짝 차리고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¹⁵ Lewis Drummond, *Spurgeon: Prince of Preachers* (Grand Rapids: Kregel, 1992), 204-205.

VII. 강조 (Emphasis): 반복 (Repetition)

32. 성경 저자들은 우리 컴퓨터 세대가 하는 것처럼 볼드체, 이탤릭체, 혹은 밑줄 긋기와 같은 호사스러운 수단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강조를 표현해야만 했다. 반복은 그들이 사용하는 강조의 방식이었다. 이 문제는 이 책의 9 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한 단락(다니엘서 1 장)을 예로 삼아 간단히 설명할 것이다.
33. 다니엘서 1 장에는 “주다[나탄]”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세 개의 “신학적” 진술이 나온다. 다음에 나오는 영어 번역은 저자의 것이다.

1:2 And the Lord **gave** Jehoiakim king of Judah into his [Nebuchadnezzar's] hand, with some of the vessels of the house of God. 주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셨다.

1:9 And God **gave** Daniel favor and compassion in the sight of the chief of the eunuchs. 하나님께서 환관장 앞에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다.

1:17 As for these four youths, God **gave** them learning and skill in all letters and wisdom. 이 네 젊은이들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문헌을 다루는 학식과 재주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

34. 하나님의 “주심”은 (소위 주요) 역사적 사건들의 전환점에(단 1:2), 개인적 상황들의 급한 커브에(단 1:9), 그리고 직무상 일의 성공에(단 1:17) 작용한다. 느부갓네살 왕의 유다에 대한 성공적 침략으로 인해 바벨론 사람들이 “만복의 근원, 마르독을 찬양하라!”는 노래를 부르지 모르지만, 다니엘서 저자는 그 성공의 실질적인 이유를 알고 “주님께서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설명한다(단 1:2). 우리는 다니엘이 음식 담당 관리들의 호의를 입는 행운을 얻었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 모르지만, 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함으로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정한다(단 1:9). 의심할 여지없이 네 젊은이들이 바벨론학 석사 학위(M.Bab.)를 얻기 위해(단 1:5) 정말 열심히 공부하였을 것이지만, 그들의 학식과 재주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단 1:17).

35. 다니엘서 1 장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 개의 “주셨다”는 진술, 곧 이 세 개의 두드러진 신학적 주해를 반드시 알아차릴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문맥에서 주님의 “주심”은 전복시키는 혹은 비밀스러운 울림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다니엘서 1 장의 이야기는 승리한 바벨론의 지배로 시작하여 바벨론 문화가 만연한 가운데 진행된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정치적 권력과 문화적 포화(飽和) 속에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일하고 계셨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36.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는 여름 집을 운영하던 사람이 톱밥 속에 좋은 시계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보상을 걸었으므로, 사람들은 갈퀴로 톱밥을 긁어 보았지만 찾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찾으려는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러 그 건물을 떠났을 때, 한 작은 소년이 여름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몇 분 후에 그 시계를 가지고 나왔다. 어떻게 그것을 찾았느냐는 질문에 소년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톱밥에 누워 귀를 기울였어요. 마침내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니엘서 1 장에서 묘사된 주님의 사역의 방식이 이와 같다. 그것은 조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문학적으로는 저자의 반복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이방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고 이방 문화에 휩쓸릴 때 우리가 그것을 놓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 때조차도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는가!

VIII. 집약 (Intensity)

37.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자가 청자나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 짧은 지면에 매우 많은 것을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는 “집중된” 혹은 “꽉 찬” 단락들이다. 몇 가지 예들을 들어 보겠다.
38. 여호수아 24장 1-13절은 반드시 대단히 간결한 본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600여 년에 걸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고하며 13절 안에 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상당히 집중된 본문이라 할 수 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요구를 강요하기(수 24:14 이하) 전에 여호와의 은혜를 먼저 회고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수백 년 동안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선한 일들을 이 짧은 절들 안에 압축하고 있었다. 나는 다른 곳에서 이것을 보다 자세하게 다루었다.¹⁶ 여기서는 여호수아의 회고를 간단히 요약하기로 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수 24:2b-3a)

하나님의 점진적인 행보 (수 24:3b-4a)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방식들 (수 24:4b)

¹⁶ 내가 쓴 *Joshua: No Falling Words*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0), 188-97 [= 여호수아 주해, 165-175 (21 장, I. 언약 역사의 회고)]을 보라.

하나님의 명백한 권능 (수 24:5-7, 8, 11-12)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 (수 24:9-10)

하나님의 계속적인 공급 (수 24:7b, 13)

39.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은혜에 흠뻑 젖은 역사적 회고를 통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오, 주님, 매일 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도록 인도하고 싶었다. 그 모든 역사적 회고는 그의 “그러므로(수 24:14)”로 이어진다. 그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은혜의 굴레 속으로 끌어들이기를 바랐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수 24:14a).” 여호수아는 24장 2-13절에 이유들을 누적하고 논리를 집어넣으며 24장 14-15절의 강요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제 일계명의 요구가 첫 번째 자리에 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40. 룯기 1장 1-5절을 보라. 우리는 곧바로 “기근”이란 큰 단어를 만난다(룯 1:1a,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일지 모른다. 참고, 신 28:17-18, 38-40, 48). 그리고 우리는 이주에 대해 듣는다(룯 1:1b, 정당화되는 이주인지 아닌지는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 즉 엘리멜렉이 죽는 사실에 대해 듣는다(룯 1:3a).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명의 죽음, 한 명의 과부, 두 명의 아들을 갖게 된다(룯 1:3b). 다음으로 우리는 두 아들의 결혼, 10년의 거주, 두 아들의 죽음, 그래서 도합 세 남자의 죽음에 대해 듣는다(룯 1:4-5).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통의 수치를 집계해 볼 수 있다: 한(1) 기근, 세(3) 죽음, 세(3) 과부, 10년, 5절 등등. 이것이 룯기의 서막이다. 그것은 갑작스럽고 냉정하고 교훈적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과 다섯 절 안에서 사람의 전체 삶이 산산이 부서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뻑뻑이 채워 넣은 꼭 찬 다섯(5) 절은 우리가 “번영의 복음”에 빠지는 것을 반드시 치료해 줄 것이다.
41. 열왕기하 11장 1-3절도 보라.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비상 사태가 열왕기하 중간에 나오는 세 개의 절에 채워져 있다. 그 형편없고 못쓸 여인 아달랴가 “왕의 씨를 모두” 숙청하기 시작했다(왕하 11:1). 거의 모든 왕족이 멸절당했다. 그녀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삼하 7장)을 절단 내어 하나님의 약속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친 결과, 그것은 죽어 묻혀버린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때 [그러나]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아달랴로부터 숨겼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왕하 11:2).” 이렇게 고모 여호세바는 경건한 유괴범이 되었다! 주전 840년경 여호와와 구원의 전체 계획이 단 하나의 연약한 실에 매달린 것처럼 몹시 위태롭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아달라가 다윗의 혈통을 완전히 없애 버렸다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산되어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뱀(곧 사탄)의 뿔마니들의 음모를 좌절시킬 역전의 용사를 항상 준비해 놓으시는 모습이 정말 흥미롭지 않은가? 여호와와 구원 계획은 역사를 통해 진행될 때 몹시 빈약하고, 방해 공작에 노출되어 있고, 앞날이 매우 불안정해 보인다. 너무나 많은 재앙과 구조, 분노와 충절이 한 짧은 본문 속에 압축되어 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세 개의 절만으로도 온전한 대림절 설교를 할 수 있다.

IX. 긴장 (Tension)

42. 성경 내러티브에서 긴장 혹은 서스펜스를 찾아내는 일은 보통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정신을 차리면 대체로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 때로는 우리가 특별히 그것을 관찰해 보기 전이라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열왕기하 2장 1-6절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나기를 끈질기게 거절하고(왕하 2:2, 4, 6), 벤엘과 여리고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임박한 “승천”에 대해 나지막하게 일러준다(왕하 2:3, 5). 선지자로서 서투른 사람이 아닌 엘리사는 자신도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한다. 갑자기 우리는 억눌린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모든 사람이 엘리야가 떠날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이 긴장감이 나머지 이야기의 무대를 설정한다.
43. 그러나 긴장은 자주 내러티브 본문의 신학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럴 경우 우리는 문학적 감상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나아가며 신학적 의미를 붙잡아야 한다. 긴장을 느끼게 하는 본문들은 종종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의도되어 있다.
44. 에스더서의 중간부에 이르면 긴장감을 느끼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에스더가 왕과 하만에게 다음 날 **두 번째** 잔치에도 와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듣자마자,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부차적 줄거리가 등장한다. 하만은 왕과 왕비와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거의 절정에 있다. 그러나 모르드개라는 역겨운 유대인 녀석이 그에게 영합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서, 하만은 완벽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에게 지루할 정도로 자기의 이력을 읊으면서, 모르드개가 자기의 완벽했을 삶의 유일한 오점이라고 말한다(에 5:11-13). 그들은 하만에게 모르드개의 임박한 미래를 위한 교수대를 세우고 “아침이 되면” 왕에게 모르드개를

거기에 매달 수 있도록 요청하라고 충고한다(에 5:14). “그 날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아니하였다(에 6:1).” 왕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왕은 역대일기를 가져와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명한다(에 6:2). 선택된 역대일기의 부분에는 모르드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저지한 이야기가 들어 있었다(에 6:2; 참고, 에 2:21-23). 왕은 자신을 위한 모르드개의 선행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었는지 물을 정도로 주의 깊게 듣고 또 관심도 보인다(에 6:3). 왕이 모르드개를 위한 적절한 보상을 숙고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달아 죽이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 왕궁 바깥뜰에 나타난다(에 6:4). 그 나머지 이야기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만은 모르드개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에 6:11-13), 왕비의 두 번째 잔치에 가고(에 6:14-7:1), 결국 그 자신이 세운 교수대에 처형된다(에 7:9-10).

45.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스더서 5장의 끝(14절)에서 모르드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이다. (서스펜스를 서서히 올리고 있는 듯이?) 에스더는 유대인 구출을 위한 요청을 두 번째 잔치 때까지 미루었다(에 5:8). 그러나 하만은 “사적 고문단[곧 그의 아내와 친구들] (에 5:14)”과 상의한 후, 다음 날 모르드개를 없애버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완벽한** 절정(곧 모르드개가 없는 세상의 꼭대기)에 서서 에스더의 잔치에 나갈 계획을 세운다. 에스더의 잘 짜인 계획과 깜짝 놀라게 하는 폭로는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르드개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모르드개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 구원은 “다른 데로(참고, 에 4:14)” 말미암은 것이 될 것 같다. 인간의 악의에 찬 새로운 주름[묘안]은 하나님의 섭리의 새로운 비틀림[반전]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 “그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에 6:1).”—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가락들이 조용히 왕의 눈꺼풀을 받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물론 이러한 긴장 속에는 신학이 들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걸고 헌신하는 종들을 그분의 구원 도구로 자주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그런 인간적 수단이 도움이 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도움 없이 비밀히 작용하는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신다. 불면증과 구원! 종종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구원하는 것을 고집하시지만,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이게 하신다.

46. 또 다른 예로 출애굽기 2장 1-10절을 살펴보자. 물론 출애굽기 1장은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진술로 끝난다.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는 그의 작전이 이래저래 좌절되는 경험을 한다. 그래서 바로는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대리자로 삼고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린다(출 1:22). 그렇다면 출애굽기 2장 1절에 나오는 히브리 부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특별한 히브리

부부의 이야기 전체는 다음과 같은 역순 대구의 구조를 갖고 있다.

어머니(출 2:2-3)

누나(출 2:4)

바로의 딸(출 2:5-6)

누나(출 2:7-8)

어머니(출 2:9-10)

47. 출애굽기 1장 22절에 비추어 보면 한 아들의 출생(출 2:2)은 그 자체로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한다.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때 긴장은 더 고조된다(출 2:3).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해 “갈대 상자”(창 6-9장의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를 준비한다. 어쩌면 그녀는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습관을 관찰했을지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이방 종교가 유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아마도 그녀는 이집트 여인이 나일강에서 아기를 발견하면 나일강의 신이 그 아기를 보호하고 있다고 추론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잘 모른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역순대구 구조에서 보듯이 이 이야기의 중양(출 2:5-6)에서 긴장감은 극에 달한다. 만일 내러티브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이 있었다면, 여기서 우리는 오금이 저리는 곡을 듣게 될 것이다. 실제로, 기록된 본문의 글도 그 문법과 구문이 좀 조잡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혈압을 상승시킨다. 출애굽기 2장 5-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¹⁷

(5) 그리고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하려고 내려왔다. 그리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갈대 사이에서 그 상자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여종을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6)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보았다. 곧 그 아이를. 그런데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말했다. “이는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의 하나이다.”

¹⁷ 여기 제시한 번역은 저자 데이비스의 사역 “(5) And the daughter of Pharaoh went down to bathe at the Nile, and her maids were walking along beside the Nile; then she spotted the ark among the reeds; and she sent her servant girl to get it. (6) And she opened (it), and she saw him – the child; and, oh, the lad was crying. And she felt pity for him, and said, ‘This is one of the Hebrews’ children.”을 옮긴 것이다.

48. 여는 것, 보는 것, 우는 것, 느끼는 것—본문은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순간에 일어난 모든 동작을 포착하고 있다. 물론 출애굽기 2장 1-10절에는 이러한 문학적 불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런 긴장은 순전히 문예적인 기교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밑그림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때때로 심장을 멎게 하는 듯한 섭리라는 것을 말해 준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하나님은 결코 따분한 분이 아니시고, 당신의 흥미가 계속 유지되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당신을 당황하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을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고,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동안 매료되게 할 수도 있으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어느 누구도 성경의 하나님을 따분하신 분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다.

49. 내가 이 장을 나의 작고 빨간 포드 픽업 트럭으로 시작했으니,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로 끝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운전을 하는 동안 당신의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자동차들이 더 잘 눈에 띄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운전하면서 나는 확장된 운전대가 없는 다른 빨간 포드 레인저 픽업 트럭들을 주목해서 본다. 당신이 도요다 코롤라를 갖고 있다면 당신도 나와 비슷한 일을 할 것이다. 나는 그것이 구약 내려티브의 어떤 문학적 특징들을 “소유한” 것의 가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특징들에 익숙해지면, 다른 본문에 그것들이 나올 때 당신은 바로 알아차릴 것이다. 이 장에서 다룬 것들이 내려티브의 모든 문학적 특징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제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내가 말한 특징들은 내 자신의 연구 가운데서 조합하여 만들어본 목록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무쪼록 당신이 이런 특징들에 주목함으로써 본문에 대한 보다 더 좋은 관찰자가 되고, 다른 본문에서 그것들이 나올 때 바로 알아차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려티브 연구에 더 많은 흥미를 갖기를 바란다.

3 장 신학: 의도된 메시지 (Theology: Intended message)

1. 당신은 “신학”이란 단어를 보자마자 절망감이 들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여기 깊고 무거운 주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로서는 신학이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신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그렇지 않은가? 어쨌든 나는 신학이란 용어를 성경 본문의 신학을 가리키는 데 사용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학이란 본문이 하나님, 그분의 길들, 그분의 사역들에 관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리킨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신학을 성경 본문의 **의도된 메시지**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본문의 의도를 찾는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는 1 장에서 불충분하지만 몇 가지 암시들을 통하여 다룬 바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창세기의 한 큰 단락인 “족장”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신학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족장 내러티브는 최초의 주요 단락(창세기 12 장 1-9 절)이 잇따라 나오는 수많은 개별 단락들의 의미를 결정한다.¹ 내가 이런 접근 방법을 취하는 이유들이 있다. 첫째로, 그것은 본문들의 신학을 찾는 동안 하나의 큰 단락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해 준다. 둘째로, 그것은 선행하는 성경 신학이 후속 단락들을 해석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잘 보여준다. 셋째로, 그것은 책을 쓰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1. 4 중 약속 (The Quad Promise)

2.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해 보자. 창세기 12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이 온전한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장이 왜 들어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세기 1-11장으로 돌아가 보라. 거기서 당신은 타락(창 3장), 홍수(창 6-9장), 바벨탑(창 11장)이라는 3중 위기를 만나게 된다. 거기서 당신은 반복해서 여호와와 왕권과 교제가 없이 지내기를 기뻐하는 세상, 곧 그 결과로 저주받고, 파괴되고, 흩어지게 된 세상을 발견한다. 당연히 창세기 1-11장 다음에는 끝이 와야 하고, 심판주가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용암이 세상을 석화시켜야 한다. 도대체 왜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조롱하고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거부하는 이 세상에 복의 약속을 주시는가? (창세기 12장 2-3절에는 “축복하다”란 어근이 5번이나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며 이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역설하신다. 여호와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의 통로로 삼아 다시 시작하실 것이다. 죽임을 당하신

¹ 월터 C. 카이저(Walter C. Kaiser, Jr.,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78], 16, 18-19)는 “선행 성경”의 원리 혹은 유추, 다시 말하면, 앞선 단락이 뒤따라오는 단락의 “이해를 돕는다”는 원리를 언급한다.

어린 양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교회를 사서(참고, 계 5:9) 보존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역조(逆潮 rip)를 일으키셔야 하는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

3.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역사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왜 아브라함인가? 그 이름을 언급하면 사람들은 친절하고 할아버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성경의 지미 스튜어트 같은 상냥하고 친절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을 떠올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24장 2-3절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 준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수 24:2).”에 나오는 “그들”에는 아브라함도 포함된다.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왜 여호와께서는 하필이면 죄인 아브라함, 이방인 아브라함,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이것은 우리의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며 은혜가 넘치는 사건이다.
4. 여기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주로 처음 세 절에서) 우리는 내가 네 가지 주요 구성 요소 때문에 4중 약속(Quad Promise)이라고 부르는 계시에 접하게 된다. 도표로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중 약속 (창세기 12장)

백성 [자손] (People [Seed])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창 12:2).”

“네 자손에게 ... (창 12:7)”

보호/임재 (Protection [Presence])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창 12:3a).”

계획 (Programme)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창 12:3b).”

장소 (Place)

“내가 네게 보여줄 땅(창 12:1)”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창 12:7).”

5. 후속 내러티브들을 읽어 내려갈 때 (창세기 26:3-5과 28:13-15에 나오는 4중 약속의 다른 “온전한” 판을 제외하고) 네 가지 요소가 모두 함께 나오는 것을 만나지 못하지만, 이야기의 관심사에 따라 이런저런 요소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후속 내러티브들 중의 일부를 다루면서

어떻게 4중 약속이 그것들의 해석에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적어도 그것들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막아주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II. 아름다운 아내가 문제다 (창 12:10-20 A beautiful wife is a problem.)

6. 아브람은 가나안 땅으로 왔다. 그러나 분명 그는 그 땅을 떠나야만 한다(창 12:10). 그는 애굽으로 내려간다. 문제는 애굽이 아니라 사래이다. 사래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아브람도 그녀에게 그렇게 말한다(창 12:11). 그런데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애굽 남자들은 사래를 차지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아브람을 죽일지도 모른다(창 12:12). 사래는 살고 아브람은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들은 성취될 수 없다. 그래서 방책이 세워진다. 사래가 아브람의 여동생으로 행세하면 이로 인해 아브람의 목숨이 보존될 것이므로, 아브람은 사래에게 그녀 자신을 그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한다(창 12:13). 이것은 의도적인 속임수였지만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었다(참고, 창 20:12).
7. 그런 방책을 세운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개연성”과 “조건과 결과”에 대하여 생각하며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어떤 이들의 말처럼 아브람은 후손(백성)과 땅(장소)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자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믿음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래를 개들(곧 애굽인들)에게 던졌을까? 분명 그는 사래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며 그녀를 위태롭게 하였다. 어떤 이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아브람이 시간을 벌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 그의 “여동생”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면 아브람은 혼담을 진행하되 지연 전술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교묘히 속이며 질질 끌 시간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람은 자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를 계산하지 못했다. 그는 **바로가** 사래에게 군침을 흘리며 보통 왕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냥 그녀를 **취해 버리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창 12: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아브람이 창세기 12장 11-13절에서 예측했던 것이 창세기 12장 14-16절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보면, 아브람에게 수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는 바보가 결코 아니었다. 그는 정확했지만 신실하지 못했다. 그의 판단은 거의 전적으로 옳았지만 동시에 그의 방책은 정말 잘못되었다.
8. 해석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아브람의 주요 결함은 무엇인가? 거짓말인가? 결코 아니다. 이 이야기를 도덕화하여 일곱 살짜리 꼬마들을 헐박하기 위한 사소한 교훈으로 삼지 말라. 아브람의 주요 결함은 창세기 12장 3절 상반절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과 그 약속을 그의 상황들에 대입시키지 못한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창 12:3a).”라는 말씀은 4중 약속 중 보호에 관한 것이다. 보호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을 떨쳐냈어야 했다. 그러나 아브람은 말한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상황은 나의 재치를 요구하고 있다.” 아브람은 여호와와의 약속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의 무서운 상황에서 그 약속이 자신을 통제하게 하지 못했다. 이걸 좀 익숙하게 들리지 않는가?²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3절 상반절에 나오는 보호의 약속은 창 12:10-20의 문제가 아브람의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불신앙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³

9. 우리가 이 단락을 낱낱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브람의 실패와 더불어 여호와와의 개입을 전하는 창 12:17을 다루지 않은 채 지금까지의 논의를 끝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큰 재앙”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는가? 명백한 불임일까? 아니면 질병일까? 바로는 정확히 어떻게 그 요점을 파악했을까?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 상반절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에 조금도 틀리지 않으셨다. “너는 아브람에게 꾀방을 놓았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창세기 12:10-20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겸손과 희망을 동시에 불어넣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아브람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보존되어 번성할 자손, 곧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될 자손을 가질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글쎄, 그건 아브람의 영리함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아브람의 행위는 믿음의 졸도(卒倒)이었다. 그리 드문 일도 아니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창세기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작을 해 오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후 창세기 4장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5장에서 아담과 셋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고, 9장에서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셨다. 하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신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힘으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람을 통한 여호와의 계획도 하수구로 떠내려 가버렸을 것이다.**

² 그것은 아마도 버트런드 러셀이 원칙에 있어서는 평화주의자이지만 태도에 있어서는 호전적인 것과 유사할 것이다. 그에게 원칙이 서서히 스며 들며 그의 태도가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Paul Johnson, *Intellectuals* (New York: Harper Perennial, 1988), 204 을 보라.

³ 천천히 돌들을 던져라.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예수님의 확언(마 10:28-31)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확언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주입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고 있지 않는가?

[마 10:28-31 개역개정] 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표팀의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당신은 창세기 12장 10-20절에서 믿음의 줄도에 대하여 읽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의 절망을 배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희망을 증가시킨다!

III. 무덤을 통한 소망 (창 23 장 A grave hope)

10. 창세기 23 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한 번 훑어보고 매우 슬프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결론을 내릴지 모른다. 사자가 죽는다는 점에서 슬픈 이야기이지만, 이 장의 대부분은 아브라함이 서둘러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헛 족속과 거래하는 내용이다(창 23:3-18).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록을 읽으며 흥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빠른 매장은 그 당시의 기후에서 시급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 오늘날 장의사들이 창세기 23 장을 그들의 광고에 써먹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랬다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막판 타협에 분개하여 불끈 화를 내며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교묘한 말로 선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하면, 당신이 “조기 할인” 특가를 이용하고 미리 준비된 우리 프로그램에 따라 당신의 장례 일정을 확정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며 일들이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당신은 헛 족속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던 아브라함처럼 될 것입니다.”

11. 그러나 근동의 사업 거래는 보고 듣는 재미가 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대여자”를 원하는(참고, 창 23:6)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는 자기 명의로 된 매장지를 원하고 있다. 그는 자기 명의의 굴을 위해 에브론과 거래를 하고 싶어한다(창 23:8-9). 에브론은 매입의 경우에는 밭과 굴이 동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창 23:11).⁴ 아브라함은 동의하며 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한다. 에브론은 “값이요? 어느 누가 값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400 세겔을 가지고 당신과 나 사이에 쓸데없는 언쟁을 벌일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던 것 같다(창 23:15).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400 세겔을 지불하고 거래를 성사시켰고(창 23:16) 이제 에브론의 밭과 굴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적법하게 확정되었다(창 23:17-18).

⁴ 아마도 이것은 에브론에게 세금 부담을 면제해 주었을 것이다.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5), 130 쪽을 참고하라.

12.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일과 관련이 있는가? 차근차근 설명하면 이렇다. 먼저 창세기 23 장의 첫 부분과 끝 부분, 즉 2 절과 19 절에 나오는 “[브에레츠 크나안] **가나안 땅에 있는**”이란 어구가 틀을 제공하며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주목하라.⁵ 그 다음으로 창세기 23 장에서 4 절, 9 절, 18 절 그리고 20 절에 “소유지” 혹은 소유물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에 유의하라. (창세기 23 장에서 4 절과 9 절과 20 절에는 “[아후자트-케베르] 소유 매장지/매장할 소유지”라는 같은 어구가 사용되고, 18 절에는 “[미크나] 소유”라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지만 같은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이야기는 4 중 약속 가운데 장소의 요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창 12:5-7 에 유의하라.) 이미(여기 창세기 23 장에서)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한다!** 오, 그건 변변한 것은 못된다. 단지 매장지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부동산(토지)의 일부이다. 작은 시작들은 그 작음에도 불구하고 강편치를 먹이는 것 같은 대단한 효험을 나타낼 수 있다.
13. 대학 캠퍼스에 한 기독교 동아리의 저녁 모임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 모임이 9 시 반 혹은 10 시쯤 끝났다고 하자. 마지막으로 몇몇 학생들이 대화를 주고받다가 그 중 한 남학생이 예의상 한 여학생에게 캠퍼스 건너편 그녀의 기숙사까지 걸어서 바래다줄 것을 제의하였다. 아름답고 약간 서늘한 10 월의 밤이었다. 그들은 걸으며 대화를 하였고, 잠시 멈추어 서서 캠퍼스 연못 근처에서 오리들을 구경했다. 다음날 그 여학생은 캠퍼스 메일을 통해 그 남학생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 그녀는 전날 밤에 기숙사까지 동행해 준 그의 사려 깊음에 정말 감사한다고 말하며 그 덕분에 “나는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시간을 가졌다(I had a perfectly marvelous time.).”라는 대사도 포함시켰다. 이제 그 남학생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내가 말해 보겠다. 그는 유럽사 시험을 위해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배낭에서 그 편지를 살짝 꺼내어 그 잊히지 않는 여섯 단어를 다시 읽을 것이다. 12 분쯤 후에 그는 시험 준비를 계속할 것이다. 영문학 강의를 듣는 동안 그는 책 안에 둔 그 편지를 열고 교수의 목소리가 약해지는 동안 그 여섯 단어들을 볼 것이다. 그저 사소한 일이었을 뿐이다. 단지 지나가는 말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말 한 마디 안에는 그가 용기를 내어 그 여학생에게 데이트를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 2-3 주 동안 버틸 수 있는 동력이 있었다.

⁵ [창 23:2]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아르바에서 죽으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창 23:19]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렇다면 무엇이 그런 일을 일어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떨쳐 버릴 수 없었던 단지 여섯 단어로 이루어진 그 짧은 문 하나이다.

14. 이것이 창세기 23 장이 작동해야 할 방식이다. 창세기 23 장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 있는 조그마한 시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고 우리의 활력을 북돋아 준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반복되는 패턴임을 깨닫기 시작한다. 가장 어둡고 슬픈 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음을 증명하는 그런 작은 증표, 그런 아주 작은 보증을 빈번하게 주신다. 그렇지 않은가?

IV. 아름다운 아내는 여전히 문제다 (창 26 장 A beautiful wife is still a problem.)

15. 창세기 26 장은 각 부분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초점어(focus word)가 나오는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창 26:1-6 그랄 ... 그랄

창 26:7-11 아내 ... 아내

창 26:12-22 땅 ... 땅

창 26:23-33 브엘세바 ... 브엘세바

16. 여기서 전체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으므로 맛보기 삼아 그 일부만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가 곧바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삭의 문제가 아브라함의 문제와 동일하다는 점이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창 26:1).” 저자는 이것을 아브라함 시대의 흉년(참고, 창 12:10)과 분명히 구별한다. 저자는 “내가 흉년 전승을 답습하며 늘리고 있는 멍청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 이것은 다른 흉년이였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게다가 그의 아내의 문제도 있다. 사라처럼 리브가도 아리따웠고 불임이었다(창 26:7). 여기 리브가가 불임이라고 한 것은 나의 추론이다. 나는 창세기 25 장 24-26 절에 묘사된 야곱과 에서의 출생 **이전에** 창세기 26 장의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추정하고 있다. 성경 이야기들이 엄격하게 혹은 어김없이 연대순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빠가 누구인지 알려줄 돌아다니는 쌍둥이가 없었다면, 이삭이 훨씬 더 쉽게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 넘겼을 것이다.⁶ 흉년과 여인—이삭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문제의 복사판이다.

⁶ Nahum M. Sarna,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184 쪽을 보라.

17. 그러나 본문은 문제가 동일하다면 공급도 역시 동일하다고 말하고 싶어한다. 여호와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창 26:2-3a)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살았던 “4 중 약속”의 모든 것—(1) 임재[창 26:3a], (2) 장소[창 26:3b, 4b], (3) 백성[창 26:4a], (4) 계획[창 26:4c]—의 공급을 빠르게 설명하시며 이삭을 확신시키신다.⁷ 이 중에서 “이 땅에 머무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창 26:3a).”라는 첫 번째 것이 아마도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구속사 전반에 걸쳐 괴롭힘을 당하는 그의 종들을 진정시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확언이다(참고, 출 3:12; 수 1:5; 사 6:16; 행 18:9-10). “머무르라 ...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본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와 “함께 머무는 분(동료 체류자)”이시고, 때때로 구불구불한 길에서도 순례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 하나님이다.⁸
18.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약속의 모든 공급을 이삭에게 역설하시는 것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고무적이다. 이삭은 어떤 것을 자기 홀로 전적으로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창세기 25 장과 27 장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광을 공유한다. 숭선하는 아브라함, 털이 많은 에서, 교활한 야곱이 모두 그를 덮어 가리운다. 창세기 26 장은 이삭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홀로 갖는 유일한 장이다. 심지어 여기서도 에서가 마지막 두 절(34-35 절)에 파고 들어온다. 그러나 여호와와 심지어 평범한 종들에게도 그의 온전한 약속을 주신다.
19. 그런데 “평범한(ordinary)” 이삭이 리브가를 대단한(extraordinary) 위험에 빠지게 한다(창 26:7).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그로 인해 4 중 약속 중 백성에 대한 측면을 위태롭게 한다. 아브라함의 대실패(창세기 12 장과 20 장)와 달리, 이삭이 느낀 위협은 통치자로부터 오지 않고 “그곳 사람들”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주

⁷ [창 26:3-4] 3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임재 presence]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장소 place]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백성 people]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장소 place]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계획 program]

⁸ 삼하 7:6-7 에서 이것을 보라. 그리고 나의 책 *2 Samuel: Out of Every Adversity* (Ross-shire: Christian Focus, 1999), 71-72 쪽[= 사무엘하 주해, 68-70(8 장, II. 여호와와의 겸양)]을 참고하라.

[개역개정 삼하 7:6-7] 6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7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금요일 밤 어떤 그랄 상인이 이제 더 이상 리브가로부터 손을 뗄 수 없다고 결심할지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관례를 따라 행했다. 그러나 본문은 어리석은 실패가 동일하다면 신실한 보호도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창세기 26 장 7-11 절의 증언이다.

20. 창세기 26 장 7-11 절에 묘사된 보호는 똑같지만 지루하지는 않다. 리브가의 구원과 사라의 구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에 유의하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창 12:17), 아비멜렉의 꿈 속에 나타나셔서 “네가 데려온 여인이 유부녀이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창 20:3).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말하자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만 있었다. 어느 날 아비멜렉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삭이 리브가를 “애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창 26:8).⁹ 이삭의 계략이 드러나고 말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상상해 볼 수 있다. “허, 당신의 여동생이라고? 내가 살면서 몇몇 남자가 자기 누이에게 입맞추는 것은 보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그같이**(=당신이 한 것처럼) 한 적이 없소!” 그러나 신이 내려준 봉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아비멜렉은 어느 수요일 점심 식사 후에 창밖을 내다보다가 그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보호는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국한되는 법이 없다. 그 보호는 동일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즐거움과 놀라움을 준다.

21. 아주 젊은 스펠전이 워터비치에서 마을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는 독설로 유명한 나이 많고 심술궂은 여인과 마주쳤다. 어느 날 그가 그녀의 집을 지나가는데, 그녀는 대문에 서서 그를 향해 독설을 “내뿜기” 시작하였다. 그녀가 연달아 말을 할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잘 지냅니다. 당신도 잘 지내길 바랍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다시 그를 호되게 비난했다. 그러자 스펠전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예, 곧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둘러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감탄하며 말했다.

⁹ 실제로 창 26:8 은 이삭 자신의 이름에 대한 언어 유희를 담고 있다. 별명을 사용하여 영어식으로 옮긴다면 “**Sport was sporting** with Rebekah. 스포트가 리브가와 스포팅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자 주] 언어 유희를 보이는 창 26:8 의 원문과 몇몇 영어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문: וַיֵּרָא אֶת רִבְקָה אִשְׁתּוֹ מְצַחֶקֶת אֵת אִשָּׁאָה אֲשֶׁר הָיְתָה אִשְׁתּוֹ [바야르 브히네 **이츠하크 므하체크** 에트 리브카 이시토]

ESV: and saw **Isaac laughing** with Rebekah his wife.

KJV: and saw, and, behold, **Isaac was sporting** with Rebekah his wife.

NASB: and saw, and behold, **Isaac was caressing** his wife Rebekah.

ESV 는 “웃음 laughter”을 뜻하는 이삭과 분사 “웃는 것 laughing”이 언어유희를 잘 드러내고 있다.

Davis 가 이삭 대신 Sport 라는 별명을 사용한 것은 KJV 의 sporting 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저 젊은이를 축복하라. 그는 전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다. 그를 야단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¹⁰

22. 나 같으면 그렇게 대응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건 정말 훌륭했다. 전혀 다른 접근법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에 있어 그토록 즐거운 다양성을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신을 아주 상쾌하게 하신다. 창조주가 그토록 창의적이지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23.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26 장을 살피는 일에 있어서 나의 주된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관심사들이 (아브라함 내러티브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이 후속 본문들의 관심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창세기 26 장의 의도는 거짓말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십중팔구 거짓말할 가능성에 대해 당신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이 일류 선수들이 아닐 때조차도 여전히 자기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을 격려하려는 것이다.

V. 성경적 멜로 드라마 한 편 (창 29:31-30:24 A biblical soap opera)

24. 이 부분(창 29:31-30:24)의 빠른 개요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레아의 다산, 창 29:31-35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야곱과 라헬 사이의 불편한 심기 노출, 창 30:1-2

빌하의 출산, 창 30:3-8 (단, 납달리)

실바의 출산, 창 30:9-13 (갓, 아셀)

임신 촉진제, 창 30:14-15

레아의 또 다른 출산, 창 30:16-21 (잇사갈, 스불론, 디나)

라헬의 궁극적인 출산, 창 30:22-24 (요셉)

25. 그런데 이 본문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일부다처제의 위험”에 관한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비전문가적 심리 통찰들을 가지고 이 역기능적인 가정의 사례 연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의 처음(창 29:31)과 끝 무렵(창 30:22)에 수미쌍관법을 이루는 신학적 진술이 나오는 것에 주목하라. 그리고 창세기 30:17에 나오는 신학적 진술도 놓치지 마라. 이것들은 기준점(anchor points)이다. 첫 번째 신학적 진술(창 29:31)은¹¹ 멸시당하는 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공의를

¹⁰ Lewis Drummond, *Spurgeon: Prince of Preachers* (Grand Rapids: Kregel, 1992), 166.

¹¹ [창 29:31]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가리킨다. 나머지 두 신학적 진술들(창 30:17, 22)은¹² 우리의 종종 뒤틀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한다.¹³ 하지만 그 외에도 더 있다. 내러티브의 모든 초점이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에 있지 않는가? 이것은 여호와와 약속 중 후손(곧 백성)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을 거쳐 **11명의 아들들까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호와와 신실하심에 대한 강조가 아닌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6. “여호와께서 태를 열어 주신” 레아에게는 임신이 너무나 쉬운 일인 듯하여(창 29:31-35) 라헬은 언니에 대한 질투심으로 미칠 지경이었다. 라헬은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분노와 절망 가운데 격한 감정을 드러낸다(창 30:1). 동정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야곱은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यो?”라고 말하며(창 30:2) 좌절감이 다시 그녀에게로 굴러 들어가게 한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레아가 그를 통해 네 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은 임신이란 방정식에서 **그가** 실패의 요인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은 출산 경쟁으로 이어진다. 라헬은 사라의 제자처럼 사라가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은 방식(창 16:1-4)을 그대로 답습하며 자기 여종 빌하를 통해 두 아들 곧 단과 납달리를 얻는다(창 30:3-8). 이것은 라헬판 하갈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레아도 곧바로 라헬을 흉내내며 레아판 하갈 방식으로 자기 여종 실바를 통해 행운이(Lucky)와 행복이(Happy) 곧 갓과 아셀을 얻는다(창 30:9-13). 이걸 정말 너무 세속적이다. 르우벤이 합환채를 구해 어머니 레아에게 드린다. 그 당시 합환채는 일종의 임신 촉진제로 생각되었었다. 라헬은 뻔뻔스럽게도 레아에게 르우벤이 구한 합환채를 달라고 요청한다. 무시당하고 있던 레아는 라헬의 거래에 동의한다. 라헬은 합환채를 갖고, 레아는 야곱을 “밤의 동침자”로 갖는다(창 30:14-16). 레아는 “출산”을 계속 한다(창 30:17-21). 마침내 라헬도 출산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창 30:22-24).

27. 이걸 완전 아수라장 같다. 부부 언쟁, 합환채 광란, 동침 흥정 등 역기능이 현저히 드러나는 언약 가정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 모든 불화, 반목, 갈등, 긴장, 언쟁, 증오,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셨다. 그래서 결국 11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¹² [창 30:17, 22] 17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 22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¹³ 우리는 더 많은 신학적인 진술을 본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등장 인물들의 말(창 29:32, 33; 30:6, 18) 가운데 나오는 것이므로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네 명의 부인을 갖는 것을 승인하신다는 뜻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다산한 부인상을 두고 계속되는 질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기 백성의 모든 상황이나 뒤틀림을 정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진창 속에서도 자손은 증가하고 있었다. 아직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된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도달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것은 마치 삼손의 머리털 같다. 모든 소란과 혼란 중에 당신은 그것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참고, 삿 16:22).

28. 이런 기괴한 멜로 드라마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할 것이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창세기 12장의 백성과 관련된 약속을 배경 삼아 창세기 29-30장을 읽으면, 당신은 분명히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저자가 당신에게 그것을 보도록 의도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본문에서 당신은 한 가족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신음하는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행위의 불순물과 침전물과 혼잡물이 그분의 신실하심의 열매를 맺는 토양이 되게 하는 화학 작용을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퇴비 속으로 던지실 인간적 찌꺼기로 인해 결코 충격을 받지 말라. 우리 자신의 광란과 우둔과 정욕으로 가득 찼던 삶의 한 단면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오물 속에서 조용히 신실하게 계셨음을 깨닫지 못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로 인해 우리는 모든 올바른 해석학이 반드시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 곧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나아가게 된다.

29.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창세기의 다양한 내러티브들이 “4중 약속”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덜 유명하고 덜 “인기 있는” 단락을 사용하여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독자들은 “4중 약속”의 관심사가 창세기를 넘어서도 계속되며 후속 내러티브와 구약 자료 전반에 배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것이다.

- 1)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계획은 창세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고(하나의 예: 애굽 사람들을 보존시키는 요셉, 창 47:13-26), 계속해서 이드로(출 18장)와 라합(수 2장)과 룯(룯 1장)과 나아만(왕하 5장)이 언약의 하나님께로 인도될 때도 역시 드러난다. 정말 아둔한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여호와와 실존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받는다(삼상 4-6장).
- 2) 논증할 필요가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백성의 요소는 계속 구약 내러티브를 지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러티브들을 보라. 더 이상 나아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 3) 장소/땅의 요소는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상 11장으로부터 열왕기하 끝(25장)까지 온통

퍼져 있다.

- 4) 임재/보호의 요소는 그 자체로 조용하게 출애굽기 2장 1-10절에 나타나고, 출애굽기 25-40장에서 다루는 성막의 전체 요점이고(출 25:8을 보라), 가나안 정착의 첫날로부터 여호수아의 보루임이 증명된다(수 1장 그리고 수 5:13-15).
- 5) 더 이상 나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4중 약속은 당신의 해석학적 주머니에 가지고 다닐 가치가 있다. 구약 신학자들은 구약의 가르침을 요약하기 위한 하나의 “중심” 혹은 통괄 표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다. 흥미롭게도 월터 카이저는 “약속”이 실제로 구약의 핵심을 이루는 구성 원리라고 주장했다.¹⁴ 하나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구약 전체를 체계화하거나 구약 전체를 담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다. 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그것이 죄라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죄일 것이다.

¹⁴ 그의 책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78) [= 카이저, 월터 C. **구약 성경 신학**. 최종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를 보라.

4 장 포장: 배치와 구성 (Packaging: placement & layout)

1. 당신은 이사하는 일을 도와준 적이 있는가? 사람들은 트럭을 빌리고 당신과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날 정해진 시간에 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당신이 도착해서 무엇을 보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묶여진 소수의 상자들, 받침대가 없는 가구, 구석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물건, 아직 비우지 않은 부엌 캐비닛,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옷걸이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당신은 실망할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당신은 다른 시나리오를 만날 수도 있다. 테이프로 짝 붙이고 표찰도 붙여 차곡차곡 쌓아 놓은 상자들, 적절한 패딩으로 감싸고 테이프로 붙인 사진들과 거울들, 접속을 끊고 분리하여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을 볼 수도 있다. 후자의 그림은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한 어려움 없이 이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 정리와 포장에서 이삿짐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사려 깊음이 드러난다. 사람들이 주의 깊게 “포장된” 성경의 내러티브를 볼 때도 마찬가지다. 아마도 그런 이야기는 분명한 구조를 따르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아마도 한 에피소드가 다른 에피소드 옆에 서서 의도적인 대조를 낚시 나타낼 수도 있다. 빈번하게 성경 내러티브의 이러한 “포장”은 종종 분명한 디자인을 가리키는데, 이는 결국 설교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성경의 이야기에는 이사하는 날 일부 친구들이 던져 놓은 옷걸이나 잡동사니 같은 어수선했던 모습이 거의 없다.
2. 나는 이 내러티브의 “포장(packaging)” 문제를 배치와 구성이라는 두 가지 제목 아래 다루어 보려고 한다. 여기서 배치(placement)는 보통 다른 본문과 관련된 한 본문의 위치를 포함할 것이고, 구성(layout)은¹ 본문 자체의 문학적 구조에² 초점을 맞출 것이다.

¹ [역자 주] “lay-out”은 **오티스 영한 사전**, 1337 에 “배치, 설계, 기획, 편집상의 지면 배정, 판짜기, 레이아웃” 등으로 풀이되어 있다. “lay-out”에 대한 번역으로 배열이나 짜임새나 구조를 생각해 보았지만 구성을 선택했다. 구성(構成)은 국어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남영신, **국어사전**, 242: “예술 작품에서, 여러 요소를 결합하여 전체적인 통일과 조화를 이루는 일”

이희승, **오티스 국어사전**, 276: “예술에서, 표현상의 소재를 독자적인 수법으로 조립 배열시키는 일”

² [역자 주] “structure”에 대한 번역으로 “구조”를 선택했다. 구조(構造)는 국어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남영신, **국어사전**, 246: “어떤 사물이나 조직체의 짜임새”

이희승, **오티스 국어사전**, 280: “여러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는 방법이나 이루어진 열개”

I. 배치 (Placement)

3. 헬무트 툴리케는 그의 자서전에서 15 살 때 “첫사랑”에 반했던 일을 회상한다. 그 첫사랑의 오빠는 툴리케의 가까운 친구였다. 툴리케는 그 친구에게 여동생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 그는 망설였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툴리케에게 묘안을 제시했다. 그는 툴리케에게 교회 강연이 있을 것인데 자기에게 티켓 값을 주면 티켓을 구해주겠다고 하며, 툴리케가 그 표를 가지고 그 강연에 참석하면 거기서 자기 여동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사랑의 자석에 끌린 툴리케는 말쑥하게 차려 입고 교회로 갔다. 그는 문 앞에서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는 두 젊은 여성에게 표를 내밀며 교회 강당으로 들어섰다. 주변 사람들이 툴리케의 등장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이 현장에서 마침내 첫사랑을 만나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긴장한 나머지 그 이상야릇한 분위기를 크게 의식할 수 없었다. 그는 독일 바르멘에 있는 교회 강당에 모인 청중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헬무트는 소프라노 소리들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유일한 남성 목소리임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그는 자기 주위에 온통 어린 소녀들만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상황은 그보다 더 심각했다. 그때 연단에 있던 현지 여의사가 나와서 소녀들을 위한 성교육에 관한 강연을 했다! 그의 친구가 그를 속였던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땅이 입을 벌려 툴리케를 삼키지 않았다.³ 그러나 헬무트 툴리케는 위치(당신이 있는 자리)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마지막 요점을 몇몇 내러티브 본문을 예로 들며 설명하려고 한다.

i. 짧은 안도 (Brief Relief)

4. 첫 번째 예로서 사무엘상 23 장 14-18 절을 살펴보자. 때때로 당신은 사무엘상 23 장 16 절의 말씀, 곧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새번역).”라는 말씀을 보고 기뻐했을 것이다. 아름다운 감수성이다. 그러나 이야기의 패턴을 따르면, 사무엘상 23 장 14-18 절은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처한 절박한 위험을 묘사하는 두 부분(삼상 23:7-13 그리고 삼상 23:19-24) 사이에 놓여 있다. 다윗은 사울의 일을 수행하며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의 약탈로부터 구해 준다(삼상 23:1-5).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듣고 거기서 다윗을 잡으려는 계획을 세운다(삼상 23:7-8).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줄 것인가? 아니면 돌격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다윗을

³ Helmut Thielicke, *Notes from a Wayfarer* (New York: Paragon, 1995), 42-46.

넘겨 사울의 다정한 처분에 맡길 것인가?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이었고, 둘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이었다(삼상 23:9-13).

5. 잘 알다시피, 요나단의 에피소드(삼상 23:14-28) 바로 다음에는 십 사람들의 배반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온다(삼상 23:19-24). 그들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지만 (관직을 원했는지?) 분명히 사울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에게 다윗의 무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사울을 다윗에게로 바로 인도할 수 있다고 알린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전반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다.

[종잡을 수 없는] 그일라의 신용 부재 (삼상 23:7-13)

[언약에 신실한] 요나단을 통한 격려 (삼상 23:14-18)

[등을 돌리는] 십의 배반 (삼상 23:19-24)

6. 중앙에 배치된 요나단의 헌신의 행위(삼상 23:14-18)가 다윗이 배은 망덕(삼상 23:7-13)이나 배반(삼상 23:19-24)을 경험할 두 부분 **사이에** 나오는 점에 주목하라. 이 배치를 보며 확실한 답을 갖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나는 내 자신에게 물어본다. 이 샌드위치 구조의 중앙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이 단지 하나의 (잠재적) 배은 망덕에서 또 하나의 배신으로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은 너무 심한 것이 되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중간에 안도의 숨을 돌릴 기회도 없이 그일라의 배은 망덕에서 십의 배반으로 가는 것을 견디어 낼 수 있었을까? 실망 위에 실망을 견디어 낼 수 있었을까? 줄잡아 말해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슬픔 위에 슬픔을 갖지 않도록 강타를 당한 하나님의 종을 격려할 누군가를 준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타이밍이 아닌가? 우리가 극단적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많은 실망스러운 일들의 중간 중간에 이러한 격려의 순간들을 집어넣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운 분이 아니신가?⁴

ii. 하찮은 사람들 (Small Potatoes)

7. 두 번째 예로서 창세기 25장 12-26절을 살펴보자. 이 본문은 나란히 놓인 두 부분, 즉 단조로운 목록(창 25:12-18)과 출생 이야기(창 25:19-26)로 이루어져 있다. 출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자.
8. 여기에 누가 나오는가? 이삭이 나온다. 이삭과 리브가가 나온다.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의 제2

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나의 책 *1 Samuel: Looking on the Heart*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0), 192-195 쪽(혹은 2005년에 재판된 책의 238-241 쪽)[= 사무엘상 주해, 226-229 (21 장, II. 하나님의 격려)]을 보라.

막처럼 보인다. 창세기 25장의 20절과 26절에 대한 수학적 계산에 따르면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 후 처음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⁵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오직 둘뿐이었다. 이 사실은 창 25장 12-18절에 나오는 단조로운 목록, 즉 비선택적인 이스마엘의 계보를 빛나게 만든다. 이스마엘에게는 이삭과 같은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이스마엘은 온전한 한 세트의 12 아들이 있었다. 이스마엘의 혈통에는 다산이나 번식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언약 계보는 또 다시 매우 무력하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인다. 아름답지만 불임인 또 다른 여인 때문에 그 계보는 결코 궤도에 오르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이스마엘에 비하면, 교회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면에서도 성공할 수 없었다.

9.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 12-18절과 19-26절을 과 대조해 보면, 언약 계보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대비되는 이 세상 사람들의 힘과 탁월함과 비옥함에 대한 그림이 눈에 들어온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백성이 매우 연약하고 허약해 보이며 이 세상의 성공 이야기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넌지시 말해 준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주 거자씨 형태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번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교회가 두들겨 맞아 거의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교회가 세상의 실세들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 지나치게 당황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주 어려운 길, 약한 길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 뭐 더 새로운 것이 있겠는가? 그리고 ... 그래 어쨌다는 건가?

iii. 은혜와 치욕 (Grace and Disgrace)

10. 열왕기하 5장은 (“큰” 일과 “작은” 일에 대한) 전적인 여호와의 주권(왕하 5:1-2)과 격노를 불러일으킨 여호와의 은혜(왕하 5:9-12)에 관한 즐거운 이야기이다. 그러나 거만한 아람 사람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담그고 난 후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되리라”는 선지자의 말이 종교적 선전이 아닌 확실한 약속임을 알게 되었을 때 나병과 함께 분노도 사라졌다(왕하 5:13-14). 변화시키는 은혜의 흔적들이 나아만의 여기 저기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그의 태도(왕하 5:15-18에서 나아만이 “당신의 종”이란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라), 그의 고백(왕하 5:15b), 그의 결심(왕하 5:17), 그리고 그의 감수성(왕하 5:18)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과 이교 신앙을 요단강에 버렸다.

⁵ [창 25:20, 26] 20 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밋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 26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 세**였더라

11. 그러나 열왕기하 5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게하시에 관한 부분(20-27절)으로 마무리된다. 저자는 게하시를 나아만과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R. S. 월러스는 이 점을 잘 포착하여 “이스라엘인 나아만과 아람인 게하시”라고⁶ 표현하였다. 정말 그래 보인다. 여기서 엘리사의 종은 제3 계명(왕하 5:20), 제9 계명(왕하 5:22), 제10 계명(왕하 5:20, 26)을 위반하고 있다. 그는 은혜에 붙잡혀 있지 않고 탐심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 그가 요구한 은 한 달란트는 300년 품삯과 맞먹는다.⁷ 그런데 나아만은 그에게 두 달란트를 주었다. 상당한 은퇴 자금이 될 수 있으리라! 그러나 게하시의 주된 범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흐려 놓은 것이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와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왕하 5:16). 엘리사는 나아만이 깨닫기를 원했다. 고대 근동의 보통 신들과 달리 여호와는 영원히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드리거나 조종할 필요가 없는(아니, 실제로 그럴 수도 없는) 신이시라는 것을 말이다. 하나님은 심지어 아람인들에게도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거저 주셨다. 그런데 게하시는 이 모든 것을 망쳐 놓았다. 그는 여호와에 대한 진리를 왜곡시켰다. 그는 여호와와 은혜를 흐려 놓았다. 그는 나아만이 여호와를 여느 옛날 이방신처럼 “취하는 자”로 이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나아만의 나병을 얻게 되었다(왕하 5:27).
12. 문학적 배치는 매우 전략적이고 시사적이다. 변화된(*converted*) 이방인 나아만과 변질된(*perverted*) 이스라엘인 게하시가 나란히 서 있다. 나아만에게서 우리는 은혜의 승리(*triumph*)를 보고 게하시에게서 은혜의 파괴(*trashing*)를 본다. 저자는 은혜가 변화시키기도(*transforming* 왕하 5:15-19) 하고 무서워하게도(*terrifying* 왕하 5:20-27) 한다는 이중 요점을 제시하며, 은혜가 우리를 설레게도 해야 하고 우리를 겁나게도 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만일 은혜가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낸다면, 우리는 아마도 관참을 것이다.

iv.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Seen and Unseen)

13. 마지막으로, 룯기 4장에서 18-22절이 14-17절 바로 다음에 배치된 것에 유의하여 어떻게 룯기가 일종의 “2중 결말”로 마무리되는지를 잘 보라. 룯기 4장 18-22절은 우리가 룯기 전체를 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나는 룯기 4장에서 18-22절이 14-17절 바로 다음에 나온다는 위치의 관점에서만 살펴보고 싶다.

⁶ 그의 책 *Elijah and Elisha* (Grand Rapids: Eerdmans, 1957), 135 쪽을 보라.

⁷ John H. Walton, Victor H. Matthews, and Mark W. Chavalas, *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0), 391.

14. 룯기 4장 14-17절에는 나오미가 이전에 겪었던 모든 재난이 극복될 수 있는 일종의 해결책이 나온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성급하게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우리는 나오미에게서 눈을 땔 필요가 있다. 사실 룯기는 나오미에 관한 책이 아니지 않는가? 본문에는 ‘구속사적’ 문제들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기업무를 자[고엘]’ 모티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등등.”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라 일에 너무 몰두하느라 자신의 나라 백성을 잊어버리는 적은 없으시다. 사실, 룯기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미를 계속 주시하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다. 룯기를 읽다 보면 모든 주요 에피소드가 나오미에게 주목하는 하나의 정해진 문학적 패턴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룯기 1장에서 나오미에게 주목하는 것은 그렇게 신기한 것이 아니다. 이는 1장 전체가 나오미의 귀향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1장의 마감 장면이 나오미와 성문에서 환영하는 여인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룯기는 항상 그런 식이다.⁸ 룯기 2장에서는 룯이 보리밭에서 보낸 하루를 나오미에게

⁸ [역자 주] Adele Berlin(*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Sheffield: Almond, 1983], 83-87)의 말대로 룯기의 중심 인물(main character)은 나오미이고 룯기의 주인공(hero)은 룯이다. 룯기는 중심 인물 나오미의 인식의 관점(perceptual point of view)에서 모든 것을 묘사한다. 다른 인물들은 (1:2에서 나오미와 아들들이 엘리멜렉과의 관계로 소개된 것을 제외하고)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언급된다.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고(1:3) 말론과 기론도 나오미의 아들로 언급된다(1:3, 5). 룯과 오르바도 나오미의 며느리이다. 4:10에서 법적으로 룯이 말론의 아내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누가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의 중요한 관계는 그들의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고 나오미와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 2:1에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쪽의 친족으로 묘사되고 2:20에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우리의 근족, 우리의 기업 무를 자중의 하나”라고 한다. 룯과 보아스에게 태어난 아들도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언급된다(4:17). 룯과 오르바의 시어머니라고 하는 것 이외에 나오미는 항상 고유명사로 독립적으로 언급된다. 이 모든 것은 이야기를 중심 인물 나오미의 인식의 관점에서 본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인식의 관점과 구별되는 것은 흥미의 관점(interest point of view)이다. 저자의 탁월한 문예적 기술로 인해 독자는 나오미에게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보다는 룯에게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더 알고 싶어 한다. 그런 의미에서 룯은 흥미의 관점의 초점이다. 룯은 나오미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고 독자들의 관심의 초점이다. 룯은 보아스와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의 만남의 장면을 제외한 모든 장면에 있거나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독자들은 항상 룯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 나오미가 룯과 보아스의 만남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룯의 설명을 통하여서이다. 사건들이 나오미의 인식의 관점에서 묘사되지만, 룯이 나오미의 문제 해결을 돕듯이 룯은 나오미의 인식을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룯은 나오미처럼 중심 인물(main character)이라고 할 수 없지만 주인공(hero)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전하는 보고와 나오미의 개정된 고백(2:20)으로 끝난다.⁹ 룯기 3장에서는 타작 마당의 스릴과 서스펜스가 집으로 돌아온 룯이 나오미에게 임무 수행 보고를 하는 것으로 마감된다. 룯기 4장에서는 [기업 무름에 대한] 성문 법정에서의 하루조차도 [거기 결정된] 그 모든 것이 나오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묘사하는 것(4:13-17)으로 마무리된다.

15. 교회 강단에서 종종 발견되는 것은 흥미롭다. 교인들은 이 성스러운 저장소[= 강단]에 종종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남겨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몇 년 전 어느 주일에 나는 미시시피에 있는 한 시골 교회에서 설교를 하던 중 강단 안에 “와스프 앤 호넷(Wasp and Hornet)” 스프레이 병 두 개가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봄철의 아침 예배에 획 쳐들어와 내려앉는 침입자(말벌)들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수년 전에 그러한 무기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늦은 봄에 캔사스의 한 시골 교회에서 설교할 때 말벌 한 두 마리가 결사적으로 아침 예배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내가 설교하는 동안 사람들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헛수고였다. 나는 말벌이 그들에게 거의 뛰어들 뻔하다가 다시 안전한 높이까지 날아오르는 것을 추적하는 그들의 시선을 따라갈 수 있었다. 그들은 그 말벌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말벌이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었다. 다행히도 그 말벌이 어리석게 강단 위에 내려 앉았을 때 나는 오른손으로 번개처럼 그것을 내리쳐서 카펫 위로 휘 던져버렸다.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내 설교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다.

16. 이와 마찬가지로 룯기는 나오미에게 집중하고 있다. 룯기의 모든 장은 나오미와 **그녀를 위한 어떤 공급**으로 돌아온다. 각 장의 주요 장면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렇다. 룯이 나오미의 보이지 않는 공급이었던 1장에서도 그렇다(룯 1:22). 룯기에서 주님은 나의 캔사스 청중과 같은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다. 그분은 나오미에게 눈을 뗄 수 없으셨다. 그는 나오미의 복지에 몰두하고 계셨다. 룯기 본문은 말한다. 나오미는 결코 잊히지 않았고, 항상 여호와의 배려의 초점이었다고 말이다.

17. 이것을 몰랐을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는 잠시 우리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 모든 것은 “나오미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룯기에서 이야기는 나오미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항상 나오미에게로 돌아온다.

⁹ [역자 주] 룯기 2 장은 룯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운 하루를 다룬다. 룯은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나가서 이삭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그 밭에서 있었던 일을 나오미에게 보고한다. 나오미는 (여호와를 불평하던 룯 1:20-21 과 달리)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축복한다(룯 2:20).

그러므로 여기 룯기 4장 14-17절에서도 우리가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

18.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가 이제 갖게 된 것, 곧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룯 4:15)”가 될 기업 무를 자[고엘]로 인해 여호와를 찬양한다.¹⁰ 그리고 그들은 특히 나오미가 줄곧 **갖고 있었던** 것, 곧 룯에 대해 웅변적으로 말하며,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 “당신에게 일곱 아들들보다 더 좋은 며느리”라고 칭송한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텅 빈(룯 1:21)” 것이 아니며,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어도 아침이면 찾아오는 기쁨을 조금이나마 즐길 수 있게 되었다(시 30:5). 한동안 나오미는 “기쁨”은 고사하고 “아침”조차도 절망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오미는 친구들의 작은 (것처럼 보이는) 도움을 통해 이제 이것[= 자신이 텅 비지 않고 룯과 기업 무를 자를 가진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19. 그러나 나오미가 볼 수 없는 다른 것이 있다. 룯기 4장 17절의 마지막 부분, 곧 “그가[=오벳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짧은 족보는 우리에게 그런 암시를 준다. 우리는 이 계보를 우리의 기억의 하수구로 흘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룯기 4장 17절의 짧은 족보를 확장하여 룯기 4장 18-22절에서 베레스(창 38장!)로부터 보아스를 거쳐 나오미와 그 가족을 넘어 다윗까지 이어지는 가계를 요약하는 긴 족보를 제시한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지상에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통로가 될 언약적 왕이다(삼하 7장). 비록 다윗 계보의 왕들이 언약하고(/언약하거나) 사악한 자들일지라도(렘 21-22장)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의로운 가지(렘 25:5-6)”가 다윗 계보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고 이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눅 1:32-33).”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모든 약속은 룯기가 베레스에서 다윗에 이르는 포괄적인 족보로 끝날 때 씨의 형태로 거기에 있었다.

20. 룯기 4장 18-22절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나라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룯 4:21b).”는 사실은 그 일의 일부이다. 이것은 나오미의 모든 재난과 고통이 여호와의 이 세상을 위한 주권적 계획의 상상할 수 없는 화학 작용에 의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나오미가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재난으로부터 그녀를 구하고 그것을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일으키는 통로로 사용하실

¹⁰ 나는 다니엘 블락(Daniel Block)의 견해에 동의한다. 여기서 고엘은 전문적이고 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여인들이 룯기 4장 15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대로 아주 실제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블락의 *Judges, Ruth,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9), 727 쪽을 보라.

것인지를 볼 수 없었다. 나오미는 오벳을 볼 수 있었고,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룯의 헌신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저자는 자기 책에 “베레스 부록”을 추가함으로써 나오미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신중함과 지혜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우리는 정말 충분히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에 대하여 혹은 외관상 무의미해 보이는 봉사에 대하여 재빨리 그리고 완전히 절망해 버린다. 나에게는 룯기의 “이중 마감”이 주님에게 속한 모든 나오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¹

II. 구성 (Lay-out)

21. 지금부터 나는 본문들의 배치를 넘어 하나의 온전한 내러티브의 구성 혹은 합쳐진 내러티브들의 구성을 살펴보고 한다.¹² 때때로 긴 내러티브 본문은 그것을 설교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뚜렷한 문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 설교를 위해서는 단순한 문학적 구조만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종종 학술 논문들에서 단락들의 매우 정교하고 자세한 문학적 구성을—절들의 이분의 일, 삼분의 일, 혹은 사분의 일에 맞춘 세밀한 구성을—보게 된다. 그러한 것들은 학문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여 설교에는 별로 쓸모가 없다. 설교자로서 나는 일반적으로 문학적인 문제들을 구두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다음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설교할 때 나는 성가신 문학적 구조들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청중은 내가 지적하는 것을 쉽게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

i. 블레셋 사람들, 징그럽지만 기이한 하나님의 도구 (Philistines, God’s wonderful toadies)

22. 다시 한번 사무엘상 23장으로 돌아가 보자. 이제 나는 이 장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한다. 이 장을 통독하며 그일라의 잠재적 배반(삼상 23:6-13)과 십의 사악한 배반(삼상 23:19-24a)

¹¹ [역자 주] 벌린(Berlin,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109-110)에 의하면 룯기는 삼중 마감을 한다. **오벳의 탄생과 명명**에 관한 진술(룯 4:17a-c)은 나오미 가문의 멸절 위기가 극복된 것을 보여주며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첫 번째 마감**이 될 수 있다. 오벳-이새-다윗의 3 대를 밝히는 **짧은 족보**(룯 4:17d)는 독자들을 이야기의 배경 시대이었던 먼 사사 시대(룯 1:1)로부터 최근 시대 즉 다윗이 잘 알려진 더 가까운 시대로 돌아오게 하는 **두 번째 마감**이 될 수 있다. 베레스에서 다윗에 이르는 10 대를 보여주는 **긴 족보**(룯 4:18-22)는 룯기의 등장 인물들을 창세기에서 열왕기에 이르는 잘 알려진 내러티브 전통에 나오는 알려진 사람들 가운데 자리 잡도록 하는 **세 번째 마감**이다. 저자 데이비스의 “이중 마감”은 오벳의 탄생과 짧은 족보(룯 4:14-17)를 첫 번째 마감으로, 긴 족보(룯 4:18-22)를 두 번째 마감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¹² 구약 전체에 걸친 수많은 예들을 보려면 David A. Dorsey,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9)를 참고하라.

사이의 유사점에 주목하면, 우리는 장 전체에 패턴과 대칭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피면 다음과 같은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뜻밖의 구원자들, 삼상 23:1-5

인간의 불성실, 삼상 23:6-13

하나님의 신실하심, 삼상 23:14

인간의 신실함, 삼상 23:15-18

인간의 배반, 삼상 23:19-24a

뜻밖의 구원자들, 삼상 23:24b-28

23. 사무엘상 23장의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다. 삼상 23장 1-5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일라를 침략하는 적이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호와의 뜻을 구한 후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뜻밖의 구원자이다. 그런데 블레셋을 치는 전쟁은 사실 사울이 해야 할 일이었다. 삼상 23장 6-13절은 다윗의 구원에 감사해야 할 그일라의 좋은 시민들이 그들에게 불리한 일이 올 것 같으면 실망스럽게도 다윗 일행을 사울에게 넘길 것임을 전해준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삼상 23:14)과 요나단의 신실함(삼상 23:15-18)에 대한 이중 보고가 이어진다. 하나님은 매일 다윗을 찾아 죽이려는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으시고 보호하셨다(삼상 23:14). 그리고 요나단은 호레스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 격려하였다(삼상 23:15-18). 그 후 십 사람들이 가롯 유다처럼 다윗을 배반하기로 결심하고 가서 사울에게 알랑거렸다(삼상 23:19-24a). 십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울은 마침내 산 하나를 사이에 둘 정도로 다윗을 지척에 두며 포위할 수 있었다(삼상 23:24b-26). 이 때 사울은 또 하나의 블레셋 침략 소식을 듣고 그 위기 상황에 대처하려고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떠난다(삼상 23:27-28).

24. 이 단락을 설교할 때 나는 각 절의 문학적 구조를 살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 구조를 보는 것은 사무엘상 23장 24b-28절을 설교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준다. 그것은 이 절들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이 절들에 대한 적절한 감상을 돕는다. 나는 사무엘상 23장 24b-28절 안에 그 자체로 어떤 아이러니가 있는 것을 본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숙적이지만, 여기서는 시기적절한(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섭리를 그분의 타이밍에서 자주 보지 않는가?) 침략으로 인해 이 적들은 다윗의 “구원자”로 판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야기가 적으로서 전형적 역할을 하는 블레셋 사람들로 시작하는 것(삼상 23:1-5)에 주목하면, 이야기가 끝날 때 그 역할이 반전되는 것을 감상하며 좀 더 많이 즐길 수 있다.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늘 그런 것처럼 그일라를 공격하고 약탈한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뜻밖의(그리고 다소 주저하는)

구원자들이다. 그러나 사무엘상 23장 24b-28절은 블레셋보다 훨씬 더 고약한 적, 곧 여호와의 기름부으신 자를 박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을 묘사한다. 그러나 다시 뜻밖의 구원자들이 등장해서 다윗의 구출을 돕는다.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삼상 23:1-5)이 하나님의 유쾌한 반전의 섭리 가운데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구원자(삼상 23:27-28)가 된다. 이것은 누가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라는 감탄을 자아내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로 나아가게 한다.

25. 같은 종류의 일이 1945년 새해 첫 날에 일어났다. 헤르만 괴링은 미국과 영국의 비행기들이 아르데네스에서 포위된 미군들에게 공수물자를 나르지 못할 정도로 파손당하기를 바라면서 그의 공군에게 연합군 공군기지를 전면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작전은 부분적 성공만을 거두었다. 괴링은 독일 포병들에게 그 공습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 고사포대에 의해 그가 출전시킨 비행기들 중 약 150 대를 잃고 말았다.¹³ 그래서 독일 포병들이 독일 비행기들을 공중에서 떨어뜨렸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대공 포대들은 연합군에게 “구원자” 역할을 하지 않았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에게 마찬가지였다. 여호와의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를 제외하곤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방식이 주는 즐거움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자역에 선정된 사람들이나 세력들을 보고 자주 경탄할 뿐만 아니라 종종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무엘상 23장의 문학적 구성은 강해 작업을 돕는 역할을 한다. 내러티브의 시작과 끝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과(/이나) 병행은 대조와 아이러니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로 인도하길 바란다.

ii. 비참한 포로민들의 장엄하신 하나님 (The grand God of sorry captives)

26. 때때로 대단락의 문학적 구성을 보면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단락 내러티브의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그 안에 있는 주요 주제들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설교문을 작성해 주지 않지만 나의 설교가 무엇에 관한 설교가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모든 세부 사항 속에서 주안점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7. 다니엘서 2-7장을 대표적인 예로 삼아 설명하겠다.¹⁴ 주제적 강조점에 주목하며, 귀납적

¹³ Glenn B. Infield, *Hitler's Secret Life* (New York: Stein and Day, 1979), 247.

¹⁴ 다니엘서 7 장이 “내러티브”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는 다니엘서 2-7 장이 하나의 연관된 복합체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명 이것은 역사적 내러티브(1-6 장)와 묵시적 환상들(7-12 장)의 명백한 구분에 어긋난다. 게다가 단 7:1; 8:1; 9:1; 10:1 에 나오는 세심한 연대 언급은 7 장이 8-12 장과 함께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다니엘서 2-7장의 핵심 단어들을 빨리 훑어보면 다음과 같다.

2장	말하다, 해석하다, 알게 하다, 드러내다 (4, 5, 6, 7, 9, 11, 16, 19, 22, 23, 24, 25, 26, 27, 28, 29, 30, 36, 45, 47)
3장	건져내다, 구원하다 (15, 17[2번], 28, 29)
4장	다스리다 (영어 RSV: 17, 25, 26, 32 [아람어 원문: 14, 22, 23, 29]) + 권세, 나라 (3, 34) + 하늘의 왕 (37)
5장	해석을 보이다, 알게 하다, 해석하다 (7, 8, 12, 15, 16, 17, 26)
6장	건져내다, 구원하다 (14[2번], 16, 20, 27[3번])
7장	권세, 보좌, 나라 (6, 9[2번], 12, 14[5번], 18[2번], 22, 23, 26, 27[5번 (sic)] ¹⁵)

28. 이러한 핵심 단어들의 반복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패턴(ABC/ABC)을 만들 수 있다.

2장	←	A 계시하시는 하나님	→	5장
3장	←	B 구원하시는 하나님	→	6장
4장	←	C 통치하시는 하나님	→	7장

가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해 준다(참고, 단 1:1 과 2:1). 그러나 다니엘서의 언어적 구성(단 1:1-2:4a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단 2:4b-7:28 이 아람어로 기록되고, 단 8:1-12:13 이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은 2-7 장이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 대단락임을 시사한다. 다니엘서의 구조에 대한 매우 흥미진진한 연구들이 몇 개 있다. David W. Gooding,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Book of Daniel and Its Implications," *Tyndale Bulletin* 32 (1981): 43-79; Joyce Baldwin, *Daniel*,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nter-Varsity, 1978), 59-63 (summarizing Lenglet's work); Alec Motyer, *The Stor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2001), 147-52 등을 보라.

¹⁵ [역자 주] 근거 구절 단 7:27 에 대하여 여기서는 "... 27 [five times]"로 잘못되어 있으나, 그의 책 *The Message of Daniel* (IVP, 2013), 23 에는 "... 27 [6 times]"로 바르게 되어 있다. 데이비스가 참고한 RSV 와 ESV 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RSV: And the **kingdom** and the **dominion** and the greatness of the **kingdoms** under the whole heaven shall be given to the people of the saints of the Most High; their **kingdom** shall be an everlasting **kingdom**, and all **dominions** shall serve and obey them.'

ESV: And the **kingdom** and the **dominion** and the greatness of the **kingdoms** under the whole heaven shall be given to the people of the saints of the Most High; his **kingdom** shall be an everlasting **kingdom**, and all **dominions** shall serve and obey him.'

개역개정: 7:27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29. 여기에 불쌍한 이방 세상이 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있고, 빛이 없고, 왕의 딜레마를 도무지 알 수 없고, 다가올 일을 예측할 수 없다(단 2:1-11; 5:6-9, 15-16). 이 에피소드들은 현재의 일과 장래의 일을 식별하지 못하는 바벨론 종교와 이교적 요술의 절망적인 무기력을 폭로하며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이교적 혼란 속에서도 진리를 드러내시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계신다(다니엘서 2장과 5장). 가련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아주 기꺼이 삼키고 내뱉는 억압적 세상이기도 한다. 그러나 미움받고 멸시받는 자기 백성을 멸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다니엘서 3장과 6장). 그것이 억압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주들이 신의 지위를 추구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오만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독재를 뒤엎으시는 하나님, 곧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과 정면으로 부딪치게 된다(다니엘서 4장과 7장).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문학적 전개를 본다고 해서 나의 설교가 저절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령 다니엘서 2장에 대한 나의 설교가 무엇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지 보여준다면, 그것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설교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듬으며 정해야 하지만 적어도 그 방향은 알 수 있다.¹⁶

iii. 주의하라 (Nota Bene)

30. 친구에게 논문이나 편지의 사본을 전할 때, 당신은 여백의 어떤 지점에 “주의하라”는 뜻의 라틴어 nota bene[노타 베네]의 약자 “n.b.”라고 써 놓은 적이 있었을 것이다. 특별히

¹⁶ 나는 다니엘서 2-7 장을 주제적 패턴에 따라 설명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들을 두 장이 각각 짝을 이루는 패턴에 따라 설명할 수도 있다.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니엘서 2-3 장, 4-5 장, 6-7 장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 각 짝 안의 두 장은 주제를 서로 보충하고 있다.

쌍 1	2 장	바벨론 통치는 일시적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왕국을 기뻐하라)
	3 장	그러나 바벨론 통치는 독재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라)
쌍 2	4 장	낮아지고 두려워하는 교만한 왕
	5 장	너무 어리석어 배울 수 없는 교만한 왕
쌍 2	6 장	신실함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사에서도 고난을 당하게 한다.
	7 장	신실함은 종말에도 고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 구조를 어디선가 보았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한 나의 책임이 있을 것이지만 내가 표절을 했다면 그것은 악의적인 표절이 아니라 무지로 인해 밝힐 수 없는 표절임을 양해 바란다. [역자 주: 저자는 그의 책 *The Message of Daniel* (IVP, 2013)의 24 쪽 각주 31 에서 *Tyndale Bulletin* 32 (1981), 43-79 쪽에 실린 David Gooding 의 논문의 일부에 근거해서 이 구조를 만든 것 같다고 말한다.]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어떤 페이지에 “n.b.”라고 써놓을 필요는 없다. 때때로 누군가는 메시지의 위치를 보고서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다. 나의 아내는 열광적인 스포츠 팬이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특정 대학 축구 경기가 방영된다고 가정해 보자. 나는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자지 않고 앉아 지켜볼 인내심이 부족해 잠자리에 든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아주 일찍 (축구 경기를 끝까지 보았던 바바라가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나는 책상으로 가서 종이 쪽지에 적힌 메모를 본다. 그 메모에는 전날 밤 경기의 최종 점수와 함께 최종 점수를 결정지은 특이하거나 중요한 세부 사항이 적혀 있다. 그녀는 내 책상의 중앙에, 곧 내가 거기 남겨두었던 잡동사니나 작품 위에, 이 메모를 올려놓는다. 그녀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메모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성경 저자들도 이야기들의 구성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들은 특정 위치에 어떤 이야기를 놓음으로써 강조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한다. 때때로 이야기들의 구조를 통하여 저자들은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설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31. 상당히 긴 본문이긴 하지만 사무엘상 27-31장을 예로 들어보겠다.¹⁷ 저자가 보여주는 유사점들 그리고(혹은) 대조들을 통해, 우리는 이 다섯 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다윗의 난국: 하나님의 적들의 임재 (사무엘상 27:1-28:2)

사울의 난국: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사무엘상 28:3-25)

다윗의 구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구원받음 (사무엘상 29-30장)

사울의 몰락: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멸망받음 (사무엘상 31장)

32. 사무엘상 27:1-28:2은 다윗의 기만과 잔학 행위에 대한 실화를 담고 있고, 그 모든 것은 다윗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것과 같은 난처한 상황(삼상 28:1-2)으로 끝난다.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의 이력서 중 밝은 부분이 아니다. 다윗이 사면초가에 몰린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말이다. 다윗은 블레셋의 봉신이 되지만 아기스 왕에 대한 그의 속임수는 너무나 잘 먹혔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 공격을 준비할 때 아기스 왕은 자신의 최신 징집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불러들인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은 아기스에게 다윗이 실제로 자기 동족을 상대로 블레셋과 함께 진군하겠다고 대답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가? 어떻게 다윗은 그 징병을 피하며

¹⁷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나의 책 *1 Samuel: Looking on the Heart*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0), 236-39(혹은 2005년 재판의 293-96)쪽[= **사무엘상 주해**, 279-282 (26 장, II. 더 가벼운 짐들)]을 참고하라.

아기스에게 그럴 듯한 핑계를 댈 것인가? 아아, 다윗은 엄청난 곤경에 빠져 있다.

33.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저자가 이 지점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끊어버린다는 점이다. 그는 다윗이 어떻게 이 완벽한 궁지에 몰리게 되었는지 이야기한 다음, 그를 거기에 그대로 내버려둔다. 저자는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사울의 난국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한다. 그는 사무엘상 29장에 와서야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며 계속 전한다. 이것은 큰 제산제 역할을 한다. [사무엘상 29장을 보면] 블레셋 군 수뇌부는 아기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전쟁에 내보내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시글락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사실은 바로 언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울의 곤경에 대하여 먼저 듣는 동안, 당신은 다윗의 일에 조마조마하며 마음을 졸인다. 이렇게 저자는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를 무시해 버린다. 이 사실은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사울의 곤경은 대전투가 있기 **전날 밤** 수넴과 길보아에서(삼상 28:4) 일어났다. 그 위치는 에스드라엘론(Esdraelon) 평지의 동쪽 끝, 갈릴리 바다의 남서쪽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다윗이 블레셋의 징병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은 아벡이란 블레셋의 군대 집결지요 체제 정비 장소에서 일어났다. 아벡은 수넴으로 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길**에 놓여 있는 샤론 평원에 위치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사무엘상 29장의 사건[다윗이 징병에서 면제됨]이 **28장 3-25절의 사건**[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남] **전에** 일어났던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저자는 나중에 일어난 사건(삼상 28:3-25)을 취해 자신의 내러티브에 “더 일찍” 집어넣는다. 저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34. 나는 사무엘상 28장 3-25절에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사울은 눈 앞에 닥친 블레셋의 공격을 보고 관례대로 여호와와 지시를 구한다. “그러나 여호와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신다(삼상 28:6).” 여호와께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한다. 사무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묻는다(삼상 28:15a). 사울은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대항하여 군대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은**(강조) 나를 떠나셔서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대답한다(삼상 28:15b). 여기에 자기 생애의 마지막 위기에 직면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것과 그가 전적으로 혼자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하나님의 침묵이란 절망의 심연에 빠져 있다. 주님의 말씀을 공공연하게 무시했던(참고, 삼상 15:22-23) 그는 이제 그 말씀이 철회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성경에 이보다 더 슬픈 이야기는 거의 없다. 때는 정말로 “밤”이었다(삼상 28:25b). 그것도 가장 어두운 밤이었다. 이러한 [사울의 난국을 전하는] 사무엘상 28장 3-25절을 저자가 연대순을

무시하며 [다윗의 난국을 전하는] 사무엘상 27:1-28:2 바로 다음에 놓은 이유는 독자들이 다윗의 난국과 사울의 난국을 나란히 두고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당신이 그것들을 비교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저자는 당신으로 하여금 사울이 처한 곤경에 비하면 다윗이 스스로 자초한 커다란 곤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고 싶어한다.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없이 자신의 제한된 자원에 갇혀버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증언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는 말이다. 이것은 저자가 사울의 이야기 옆에 “n.b.”를 써놓은 방식이다. 이것은 저자가 당신의 귀에 히브리서 3장 12-13절을 크게 읽어 들려주는 방식이다.¹⁸ 이렇게 저자는 본문을 구성하는 방식을 통하여 그 요점을 전달하고 있다.

¹⁸ [히 3:12-13] 12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5 장 난감한 것들 (nasties)

1. 존 브라이트의 책에서 읽었는지 아니면 그의 강의에서 들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지금도 그가 굵직한 목소리로 “성경에는 비신학적 본문이 하나도 없다.”라고 외친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의 말은 모든 것이 설교에 꼭 맞는 대상이란 뜻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잘 모를 수 있다. 어떤 괴물이 어떤 특정 본문이 설교에 사용될 수 없다는 구두 칙령을 공포한 적이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설교할 수 없는 본문으로 지적되는 것은 대체로 구약 본문이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안에 이러한 본문을 허용하셨을지라도, 설교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더 높은 표준을 가지고 계셨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은 단지 거북하고 난감한 내러티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어떤 본문이 난감한 본문으로 분류되는가? 우선, 어떤 내러티브는 **너무 지루할** 수 있다. 족보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것들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하여 반대한다. 나는 그것들이 설교될 수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실, 나는 작년 성탄절 바로 전 주일에 “성탄절을 위한 한 무리의 죽은 사람들”을 기록한 역대상 1-9 장에 관하여 설교를 했다. 내가 확신하건대, 우리 교회가 미국 전역에서 주보 표지에 역대상 9:1b-4 을 [성탄절과 관련된] 본문으로 실은 유일한 교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대(대상 9:4)라는 사람조차도 별들 날이 있었다! 그러나 내러티브 자체는 일반적으로 지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단들과 편지들을 포함하고 있는) 에스라서는 내러티브임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들은 보편적으로 그것을 설교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 혹시 그것이 지루해서 그런 것일까?
3.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어떤 내러티브는 **너무 선정적**일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설교자가 창세기 38 장의 뒤틀린 품행을 설명하려고 애쓰며 자신을 괴롭히려 하겠는가? 혹은 어떤 내러티브는 **너무 잔혹**할 수 있다. 에훗의 칼과 에글론의 똥(삿 3:12-30)에 대한 저자의 줌 렌즈를 따라가며 무슨 회복될 사회적 가치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떤 내러티브들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거북하고 난감하다. 열왕기하 1 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병사들을 탄소투성으로 만들어 버린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에 자신이 연루되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가? 물론, 몇몇 시편들과 몇 개의 메시아 예언들만을 우리의 필수적인 구약 성경으로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난감한 본문들과 씨름하지 않아도 된다. 청중이 구약을 읽지 않거나 구약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렇다.
4. 그러나 난감한 본문들을 회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며, 그것들을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빈약하게 만든다. 당연히 우리는 성경에서 눈에 거슬리고 이상한 본문들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고심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거슬리거나 이상하기 때문에 “나병 같다”고 부르지만) 그 “나병 같은” 본문에 감추어진 보화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무엘하 21 장 1-14 절[사울의 피흘린 죄 문제 해결]로부터 속죄를 설명할 수 있고, 사무엘하 6 장[성막에 언약궤 안치]으로부터 예배에 임하는 바른 태도를 해설할 수 있고, 사무엘상 15 장[버림받은 사울왕]이나 사사기 3 장[이스라엘의 악행; 웃니엘-에훗-삼갈을 통한 구원]으로부터 타격을 입은 교회를 위로할 수 있고, 사사기 19 장[레위인의 첩과 기브아 사람들]으로부터 죄의 부패를 두루 보게 할 수 있다.

5. 이 짧은 장에서 구약의 모든 “난감한” 내러티브들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몰상식하고 충격적이고 기괴하고 당혹스러운 것들의 일부를 본보기 삼아 다룰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의 논의가 그런 난감한 단락들에 대한 접근 방법의 단서들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I. 외설적이어서 난감한 것 (Indecently Nasty 창 38 장)

6. 류폴트는 1942 년경 창세기 주석을 썼는데, 나쁘지 않은 주석이다. 그는 각 주요 부분의 마지막에 “설교를 위한 제안들”이라고 표시된 단락을 포함시켰다. 창세기 38 장의 끝에 나오는 “설교를 위한 제안”에는 “설교로 사용하기에는 전적으로 부적합한”이라고 시작하는 한 개의 문만 들어 있다.¹ 바꾸어 말하면, 당신은 그것에 대하여 감히 설교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따뜻한 쿠키의 진열대 위에 금지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그것은 우리를 유혹한다. 그리고 당연히 그럴 만하다. 어려운 본문은 설교하고 싶은 유혹을 불러일으킨다. 여전히 우리는 창세기 38 장을 보고 바울을 향해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성경은 ... 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한 것이 적용된다고 확신합니까?”라고 물어보는 사람의 심정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7. 창세기 38 장을 다룰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우선, 우리는 이 내러티브가 문학적 포르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한다고 해서 성경이 그 안에 일어난 모든 것을 승인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자명한 사실이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독자들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 이야기 안에 삽입된 이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비난하는 비평학자들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창세기 38 장)는 전후 이야기(창세기 37 장과 39 장)와 상당히 많은 문예적, 주제적 연결

¹ H. C. Leupold, *Exposition of Genesis*, 2 vols. (Grand Rapids: Baker, 1942), 2:990.

고리가 있다(그 중 일부는 대조적이다).² 때때로 우리는 청중과 더불어 이 내러티브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것처럼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내러티브에 대하여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혹은 “이 이야기는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몇 가지 대답이 튀어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i. 하나님 말씀의 신뢰성 (The trustworthiness of God's word)

8. 유다는 다말이 생물학적으로 그저 시들어 버리기를 바랐던 것 같다. 그는 (자기 셋째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줄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창 38:11). 유다가 (자기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창기와 만난 것은 성욕이 부른 대실패이었고(창 38:15-16a), 자기 “신분증들”을 주면서도(창 38:18) 그녀의 이름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것은(창 38:20-22)³ 어리석음이 낳은 대실패이었다. 그것은 익명의 정사였다. 유다는 자신이 가나안의 신전 창기(창 38:21-22에 나오는 [케데샤]란 단어의 의미일 수 있음)와 동침하는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혀 제지되지 못했다. 유다의 맹목적이고 노골적인 위선(창 38:24)은 다말이 꾸민 계획대로 으름패를 꺼냈을 때(창 38:25-26) 완전히 들통나고 말았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한 조상이 저지른 추잡한 도덕적 혼란이 있다.
9.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성경 안에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짓말과 호색, 오점들과 사악함이 모두 거기에 들어 있다. 아무도 입막음을 위한 돈을 성경 저자에게 주지 않았다. 우리는 역사에 은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인트 앤드류스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 교회의 비문이 그 좋은 예이다. 그 비문은 대주교 제임스 샤프를 “가장 거룩한 순교자”와 “경건의 전형, 평화의 사자, 지혜의 신탁, 그리고 존엄의 화신”이라고 칭송하고 있다.⁴
10. 본보기 삼아 보여주어도 쌀 그런 쓰레기 성직자의 화신에 대하여 어떻게 이런 칭송을 늘어놓을 수 있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그것은 선전이다. 그러나 창세기 38장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나는 이스라엘이 그 민족의 조상들에 대한 전통들을 세탁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그들의 조상에 대한 추악한 진실을 꾸밈없이 말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더럽히겠는가? 그러나 이스라엘이 있는 그대로 말하였다는 사실은

² 예들을 보려면 Bruce K. Waltke,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506-509 쪽을 참고하라.

³ 이 마지막 부분 설명에 대하여는 Nahum Sarna,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269 쪽을 참고하라.

⁴ J. D. Douglas, *Light in the North* (Grand Rapids: Eerdmans, 1964), 139.

우리가 이 기록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성경은 추악한 진실도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록 과감히 내버려두는 책이다.

ii. 하나님 심판의 가혹함 (The severity of God's judgment, 창 38:6-11)

11. 어떤 독자들은 유다의 다말과의 정사만큼이나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혹한 처벌에 대해서 괴로워할지 모른다. 여호와께서는 엘(창 38:7)과 오난(창 38:10)을 모두 죽이셨다.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리고 오난이 행했던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오난은 본질적으로 수혼 제도에 있어서 시동생의 역할을 거부하고 피임 수단으로 성교 중절(中絶)을 이용했다. 창세기의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정신, 수혼 제도의 조문,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보장해 주신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과 모순되는” 것이다.⁵ 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나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신” 일이 너무 선제적이고, 너무 전제적이고,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편협하고,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여호와와 우리 시대의 정신에 반하는 죄를 지으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엘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줄 의무가 없으시다. 어떤 이들은 오난의 위반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교리문답을 잘 알고 있다. 소교리문답 84번은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다.”라고 대답한다. 심판은 항상 공평해야 하며, 그 본질상 자주 가혹하기 마련이다.
12.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본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취향의 문제일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사소한 위반 때문에 사람들을 날려 버리고, 사소한 과실 때문에 트랙에 있는 사람들을 떨어뜨려 버리는, 무서운 “구약의 신”을 들먹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전체를 읽지 않은 사람들이 치는 연막일 뿐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얼렁뚱땅 둘러댔기 때문에 이중 장례식을 치르게 한 “신약의 신”에 대해서는(행 5:1-11)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고린도 사람들은 주님의 성찬에서 보인 작은 교만 때문에 응급실이나 영안소로 가야

⁵ G. J. Wenham, “Genesis,” *New Bible Commentary*, 4th ed. (Leicester: Inter-Varsity, 1994), 85.

했었는가(고전 11:30)? 히브리서 10장 26-31절과⁶ 12장 18-29절의⁷ “가혹함”은 무엇 때문인가? 구약 내러티브에 있는 “어려운 것들”은 자주 구약 자체보다도 우리에게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짜증을 내는 경향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어떤 신을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진짜 신을 원하지 않는다.

iii. 하나님 백성의 분리 (The separation of God's people)

13. 이 내러티브는 이 요점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노란색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한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창 38:1).” 이렇게 유다는 자신과 야곱의 식구 사이에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는 가나안 사람으로 보이는 히라와 친해진다(창 38:1). 그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다(창 38:2). 그는 가나안의 “신전 창기”로 행세하는 여인과 놀아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창 38:16, 18b, 21-22). 저자는 유다의 행위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는 창세기 전반에 걸쳐 언약 가족의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 깃발을 들어왔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소돔으로 떠나간다. 창세기 14장 17-24절에서 아브람은 소돔왕에게 속했던 것을

⁶ [히 10:26-31] 26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8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0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⁷ [히 12:18-29] 18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19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20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21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5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냐 26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전리품으로 갖기를 거부한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에 거주하던 롯은 모든 것을 잃고 만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한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 집안이 세겔 사람들과 통혼해야 할 위기에 빠진다. 저자가 여기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대실패를 못마땅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요셉이 성적 유혹을 적절하게 물리친 일(창 39:7-12)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14. 그러므로 야곱의 가족은 다시 한번 이교도의 풍경 속의 분간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것이 저자가 이 고약한 이야기를 전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는 이 백성이 얼마나 음란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음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월트키가 말한 것처럼 저자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누가 이 가족을 구해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⁸ 마치 내레이터가 자신의 이야기에서 한 발 물러나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당신은 이 사람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외치는 것 같다. 누가 “언약 백성”이란 표현이 교회에 대한 적절한 말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성적 행위는 거룩함이 자주 그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한 영역이다.

iv. 하나님 은혜의 승리 (The triumph of God's grace, 창 38:27-30)

15. 유다는 다말의 “행음” 곧 임신 소문을 들었을 때 재빨리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는 사형 선고를 내린다(창 38:24). 그러나 유다는 다말에게 꺼내 보일 만능패(wild card)가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사람들이 불을 지피고 있을 때 그녀는 “여기 나를 임신시킨 사람의 운전 면허증과 신용 카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했다(창 38:25). 실제로 그녀는 유다의 도장과 지팡이, 곧 유다의 모든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유다가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했다.
16. 추잡한 이야기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이 추잡한 이야기도 끝까지 전개된다(창 38:27-30). 하필이면 쌍둥이가 태어난다. 그래서 베레스와 (법적으로 장자인) 세라가 태어난다. 우리는 그들을 터침이와 밝음이(**B**reach and **B**right), 혹은 부숨이와 찬란이(**S**plash and **S**unny)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를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창세기 49장은 유다 족속이 야곱 집안에서 계속되는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을 보여준다(창 49:8-12).⁹ 베레스 가문은 룯기 4장에서 다시

⁸ Waltke, *Genesis*, 506.

⁹ [창 49:8-12] 8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9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네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나오며 언약적 왕 다윗으로 이어진다(룻 4:12, 18-22).¹⁰ 그리고 마태는 자기 복음서 첫 장의 감격적인 계보에 이 모든 것을 한데 묶어 메시아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한다(마 1:1-17; 특히 1장 3절을 주목하라).¹¹ 거기에 다말이 낳은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계신다. 영광스러운 소식과 부패한 요소가 나란히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패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을 섬기게 하신다.

17. 제2 차 세계 대전 당시 스투트가르트가 폭격을 받은 후, 신학자 헬무트 툴리케와 그의 가족은 인근 마을로 이주해야 했다. 남은 소유물을 뱅에 싣고 이동하던 중 기차역 부근에 이르렀을 때, 도자기가 들어 있던 서랍이 뱅에서 떨어졌다. 모두 부서져 버렸다. 툴리케가 뛰어내려 발로 도자기 조각들을 길 밖으로 쓸어냄으로써 다른 차량들의 타이어가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도로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 폭탄이 터지면서 커다란 분화구가 생겼다. 만일 툴리케 가족에게 도자기가 떨어져 부서지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었다면, 그들은 폭탄이 터진 바로 그 지점에 있었을 것이다.¹² 도자기는 부서졌지만 생명은 보존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화학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18. 유다의 정욕과 다말의 계략에 대한 이 이야기에서 유다의 시야는 양털, 가나안 친구, 성욕 충족의 기회보다 더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유다의 복합적 죄는 하나님의 단일 계획을 파괴하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롬 5:20b). 이것은 창세기 38장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행음하자.”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죄가 용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앞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¹⁰ [룻 4:12, 18-22]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 18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19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20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¹¹ [마 1: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¹² Helmut Thielicke, *Notes from a Wayfarer* (New York: Paragon House, 1995), 183.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부패와 가장 심한 혼란을 취하여 자신의 은혜의 통로로 만드신다(참고, 고전 6:9-11).¹³ 그러므로 결국 루터의 말이 백 번 옳다고 생각된다. 루터는 질문한다. “왜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기록되도록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그는 대답한다. “그것은 아무도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¹⁴

II. 충격적이어서 난감한 것 (Shockingly Nasty)

19. 어떤 “난감한 내러티브들”은 독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난감하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i. 밤의 살인자? (Killer in the Night? 출 4:24-26)

20. 출애굽기 4장 24절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이지만, 우리는 먼저 전체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는 해석자에게 악몽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 1)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죽이려” 하셨다. 여기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죽이려 하신 대상이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 “그”로 언급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 모세인가? NIV는 그렇게 해석한다. 아니면 모세의 아들 중의 한 명인 게르숨이나 엘리에셀인가?
- 2)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 십보라는 돌칼을 취하여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었다(출 4:25a).” [이 본문에 다시 대명사 “그”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그의” 발은 누구의 발인가? 모세의 발인가 아니면 그 아들의 발인가? 그리고 여기서 “발”은 티눈과 굳은 살이 물리적인 발인가, 아니면 어떤 이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성기에 대한 비유적 표현인가? 아이의 포피를 누구의 “발”에 갖다 대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십보라가 (아마도 모세에게) “당신은 나에게 피 남편이다(출 4:25b).”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다시 말해, 십보라가 계속된 저항 끝에 마침내 항복하여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지만, 그것 때문에 화를 냈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녀의

¹³ [고전 6:9-11] 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¹⁴ 이것은 J. P. Lange, *Genesis*,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in vol. 1, *Genesis-Leviticus* (1868; reprint ed., Grand Rapids: Zondervan, 1960), 595 쪽에 나온다.

말은 일차적으로 긍정적인가? 다시 말해, 십보라가 모세가 했어야 할 일을 함으로써 그를(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그의 생명을 돌려주었으므로, 그가 피로 얻은 남편이 되었다는 말인가?

3) 출애굽기 4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놓아주셨다. [또 다시 대명사 “그”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놓아” 주셨는가? 모세인가 아니면 그의 아들 중 한 명인가?¹⁵

21. 이것이나-아니면-저것이나 하는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분명해 보이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

1) 첫째로, 이 단락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창세기 17장 9-14절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둘째로, 어떤 이유에서든 모세는 자기 아들에 대한 할례를 소홀히 했다.

3) 셋째로, 여호와의 공격은 할례의 요구에 순종하게 하였다.

4) 넷째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22.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나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공격의 대상이었다고 생각한다.¹⁶ NIV의 번역은 해석적이지만¹⁷ 옳아 보인다. 십보라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¹⁵ 보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 다음 주석들을 참고하라.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Jerusalem: Magnes, 1967), 58-61; John D. Currid, *A Study Commentary on Exodus*, 2 vols. (Darlington: Evangelical, 2000), 1:115-17; John L. Mackay, *Exodus*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1), 97-99; J. A. Motyer, *The Message of Exodus*, *The Bible Speaks Today*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5), 92-95; C. Houtman, *Exodus*,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3 vols. (Kampen: Kok, 1993), 1:432-48.

¹⁶ 나는 그 공격이 (많은 주석가들에 의해 가정되는) 어떤 병이라기보다는 어떤 형태의 직접적인 물리적 강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애굽기 4 장 26 절 상반절에 “그가 그를 놓아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에 유의하라.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던(창 32:22-32) “대항자”를 참고하라.

¹⁷ [출 4:24 NIV] At a lodging place on the way, the LORD met **Moses** and was about to kill **him**.

= 개역: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참고: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원문의 부사구를 모세를 의미상 주어로 해석하는 부사절로 번역하고 있다.

개역개정: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새번역: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녀가 아들의 할례를 반대했고 모세가 그녀의 저항에 굴복했는지, 아니면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소홀히 했고 그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았는지는 알 수 없다.

23. 어떤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아마도 이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일 것이다.

이 본문은 어떤 21세기 사람들의 마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다니! 그리고 그것도 한 사소한(그들에게는) 문제로 말야!"라는 생각을 불러넣는다. 우리의 문화적 사고를 감안할 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본문을 보고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그런 식으로 행할 리가 없으시다."라고 말하기는 아주 쉽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어도 오도(誤導)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이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고 그렇게 치명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렵듯이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 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교리 체계(예: 개혁 신학)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하지 않으실 일에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신자와 불신자 모두 "하나님은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건전한 판단에 어긋난다고 여기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로 가는 길이다.

24. 출애굽기 4장 24-26절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나에게 가장 유용하다. 그것은 나에게 이같이 묻게 한다. 과연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행하시는 신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부류의 신이 되도록 하나님을 나의 포로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자문(自問)해 보아야 한다. "나는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내가 자의(恣意)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¹⁸

[출 4:24 NASB] Now it came about at the lodging place on the way that the LORD met **him** and sought to put **him** to death.

= 한글 KJV: 주께서 도중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¹⁸ 출 4:24-26 에는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나는 이 본문이 주는 "충격"에 주안점을 두며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 그대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자유에 직면하게 하는지를 다루고 싶었다. 출애굽기 4 장 전부를 다룬다면, 나는 이 본문이 여호와에 대하여 드러내는 것을 강조하며 여호와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룰 것이다.

I.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 (출 4:1-9)

ii. 거룩한 공포 (Holy Terror, 사무엘하 6 장)

25. 종교가 즐거울 때는 정말 좋다. 다윗과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호위하며 기랴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출발했을 때, 이스라엘에는 즐거움이 있었다.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거행하고 있었다(삼하 6:5).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사진으로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볼 수 없다. 그러나 수레를 끌던 소들이 넘어졌거나 멍에를 풀어 버렸던 것 같다. 어쨌든 소들은 거룩한 궤를 밀쳤고 궤는 분명 수레에서 미끄러져 곧 떨어지려고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웃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붙들었던 것 같다. 응급 대원들이 손을 쓸 시간도 없이 장의사를 불러야 했다. 사무엘하 6장 7절은 우리가 사건의 해설을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절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웃사에게 불같이 임했고 하나님은 그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거기서 치셨다.”
26.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설명하셨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궤를 포함한 성막의 모든 비품을 옮기는 일에 대한 “지침서”를 주셨다. 당신은 민수기 4장의 4-6절과 15절과 17-20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 지시는 “만지지 말라, 보지 말라, 수레로 옮기지 말라.”는 것이었다.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참여하는 레위인은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비품들을 옮기는 지침서를 주셨다면, 왜 아무도 그 지침서를 애써 참고하지 않았을까? 여호와께서 이미 주신 계시에 충실하신 분으로 판명되었다고 하여 그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가? 그래도 여전히 항의들이 떠오른다. 웃사는 그저 도우려고 했던 것 아닌가! 주님은 왜 그에게 관대하지 않으셨는가? 주님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를 죽게 하셨는가? 주님은 왜 실수, 아니 본능에 대해 봐주는 여지가 없으셨는가? 나의 대답은 “잘 모르겠다”이다. 당신 역시 알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나는 이 본문이 당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그다지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만족할 만한 설명을 찾고 싶어 하지만, 본문은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 아마도 많은 독자들은 이런 반응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웃사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II. 우리의 부족한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출 4:10-20)

III.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출 4:21-23)

[우리가 직면할 어려운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써]

IV. 그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상을 파괴시키는 하나님 (출 4:24-26)

“당신은 투덜댈 수도 있고 떨 수도 있다. 당신에게는 떠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27. 그러나 사무엘하 6장은 독자들을 부들부들 떨게 하고 겁에 질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무엘하 6장 전체는 (언약궤로 상징되는)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복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전환점(삼하 6:12a)을¹⁹ 주축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6장 전체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거룩한 공포, 삼하 6:1-11

전환점, 삼하 6:12a

황홀한 기쁨, 삼하 6:12b-23

28. 사무엘하 6장에서 1-11절의 경악은 12b-23절의 축하로 바뀐다. 한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 진리의 양면성, 곧 하나님의 임재는 무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다는 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난감한 본문은 격식 없는 예배자(삼하 6:1-11)와 냉담한 예배자(삼하 6:12-23, 예: 20-23절의 미갈) 둘 모두에게 경고를 준다.
29. 사무엘하 6장에서 독자들이 느끼는 “난감”은 일차적으로 주관적인 난감이다. 문제는 대부분 6-7절에서 생긴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바와 다르게 행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독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부당하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민수기 4장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가혹하셨는가? 그렇다. 그러나 그것이 의로운 가혹함이라면 우리는 불평할 권리가 있는가? 우리라면 더 친절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때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질문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떠오르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친절함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을 보이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거룩함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을 보인 것인가?

III. 잔인해서 난감한 것 (Brutally Nasty, 삿 4:17-22)

30. 어떤 내러티브들은 잔인함과 속임수를 묘사하기 때문에 난감하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구약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책에서 여호와와는 항상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당혹스러운 일이 생긴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치명적인 책략과 의도적인 폭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와 관련하여 에훗 에피소드(삿 3:12-30)와 야엘 에피소드(삿 4:17-22)가 즉시 마음에 떠오른다. 여기서는 야엘 에피소드를 예로 삼을 것이다.
31. 가나안 족속에게 전투가 불리하게 되자, 시스라는 병거를 버리고 자기만 무사히 도망쳐

¹⁹ [삼하 6:12a]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벰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나온다. 그는 겐 사람 헤벨의 장막에 이른다. (아하로니에 의하면, 헤벨이 사는 게데스는 갈릴리 바다 남서쪽의 언덕에 위치해 있다.) 그는 야엘의 남편 헤벨이 그의 왕 야빈과 조약을 맺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은신처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했다(삿 4:17). 야엘은 시스라가 피난처에 도달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삿 4:18). 시스라의 요구와 지시(삿 4:19-20)를 보면, 그대로 될 경우 당분간 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은 것 같다. 현대의 베두인 여인들처럼 야엘은 장막 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냄비와 프라이팬을 다루듯이 방망이와 말뚝을 잘 다루었다. 그녀는 그의 말뚝을 다른 “땅”[곧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았을 뿐이었다(삿 4:21). 바락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을 때, 시스라는 이미 거기에 죽어 엎드려져 있었다(삿 4:22).

32. 필립스 엘리엇은 **해석자의 성경**(*Interpreter's Bible*)에 글을 쓸 때 야엘의 행위에 당황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은 에훗이 에글론을 속이고 살해한 것과 비슷하다(사사기 3장).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시대는 “인육이 값싼” 미개한 시대이다. 그러한 악한 행위들은 정당화되거나 옹호될 수 없다. 그것들은 잔인한 시대라는 점에 근거해서 이해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도 희미하게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의 삶과 믿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서 그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묵과되었다. 그러나 고대의 저자들조차도 이런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시대에 히브리서 저자는 위대한 믿음장(11장)을 쓰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등 많은 사사들을 언급하지만, 속임수를 쓰고 폭력을 행사했던 이 두 사람 곧 에훗과 야엘은 그의 목록에 넣지 않았다.²⁰

33. 그러나 얼굴을 붉히고 손을 비비며 사과하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을 시도해 보자. 우리는 야엘이 한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²⁰ *The Interpreter's Bible*, 2:716-17. 엘리엇의 해설은 1950 년대에 시작된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생각, 즉 그 시대는 야만적인 때이고 우리는 지금 도덕적으로 훨씬 더 순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접하게 된다. 이런 생각은 우스꽝스러운 가정일 뿐이다. 오늘날의 “진보된” 문화들에 만연한 가정 폭력과 학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시대에 세계 곳곳에서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말이다. 엘리엇은 또한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 **요약하는** 진술(히 11:32)을 하고 있음에 유의하지 않고, 마치 옳다고 인정된 사사들을 전부 포함한 목록을 제시하는 것처럼 여기며, 침묵으로부터 비상한 추론을 하였다.

- 1) 때때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도전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구약 단락들을 다룰 때) 그 기사가 구속사의 어느 시점에서 발생했는지 기억하고 더 늦은 그리고/혹은 “더 높은” 윤리적 표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는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우리는 야엘이 방망이와 말뚝을 나를 때 잠시 멈추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물어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면 좋았을 것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전 1200-1100년에도 도덕적 범주와 표준들이 정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들은 어떤 진화론적인 도덕적 점액에서 막 솟아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도덕적 통찰에 대한 원시적-진보적 체계를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 2) 그리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하여 풍유화하거나 영해해서는 안 된다. “그녀가 그에게로 가만히 갔다(삿 4:21).”에 대해 야엘이 그리스도인 전도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부드럽게 행동해야 하는지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해를 읽은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시스라가 야엘의 우유 부대에서 우유를 마신 것(삿 4:19)에서도 성만찬의 이미지를 보거나 “말씀의 순전한 젖(참고, 벰전 2:2)”의 이미지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34. 해당 사례에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 묻는 것이 더 좋다. 십중팔구 그럴 것이다. 도덕적 난제를 던지는 본문을 다룰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원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지지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야곱이 4 명의 부인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다(창세기 29-30장). 그렇다고 하여 성경이 그것을 승인하다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사건을 전하는 것과 사건을 승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명백하게 옹호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전할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살피고 있는 경우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압제자를 제거하시기 위해 어떤 사람(야엘)을 **사용하시되** 그녀가 행한 방식을 반드시 **승인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것이 댄 블락의 견해인 것 같다.²¹
35. 우리가 거기서 멈출 수 있다면 훨씬 더 간단하였을(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다 더 깔끔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야엘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구원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의 **사사기 주해**에서 내가 설명한 내용을 인용하겠다.

문제는 성경이 야엘의 행위를 **정말 승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우리가 야엘의

²¹ D. I. Block, *Judges, Ruth*,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9), 209-210.

공격을 혹평한다면, 드보라의 노래도 검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드보라가 야엘을 칭찬하고(삿 5:24-27) 아무것도 하지 않은 메로스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다(삿 5:23). 이러한 평가는 드보라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메로스는 (다름 아닌 바로) 여호와와 사자의 권위에 의해²² 저주받았기 때문이다.²³

36. 드보라가 그녀의 노래에서 시스라의 죽음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녀는 섬뜩하고 현란한 세부 사항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삿 5:25-27). 그리고 그녀는 야엘이 한 일을 승인하며 “야엘이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삿 5:24a)” 것이라고 말한다. 만일 드보라가 여선지자로서 말하고 있다면(삿 4:4), 그녀의 견해와 여호와와 견해는 동일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시스라를 두고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다. 시스라와 그의 부하들은 이스라엘의 처녀들을 겁탈하였다(삿 5:30). 그렇다면 시스라는 여호와와 원수 중 하나였다(삿 5:31). 그리고 이제 그의 머리에는 장막 말뚝이 박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부른다.

37. 블락의 관점은 훨씬 더 단순하다. (내 생각으로는 드보라의 노래가 암시하는 것을 빠뜨린 것을 제외하고) 그는 별다른 문제없이 그 본문에서 나올 수 있다. 그 본문이 친 야엘적이라는 나의 생각이 옳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야엘의 속임수(삿 4:18-19)에 관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것이 거기에 있다.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면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 “난감한 내러티브”를 다루는 나의 목적은 그 이야기와 관련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는지 이해하고,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더라도) 성경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든, 시스라의 뺨뺨한 시신은 여호와와 모든 원수들이 그렇게 망할 것이라는 복된 확신을 준다.²⁴

²² [삿 5:23] **여호와와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²³ *Judges: Such a Great Salvation*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0), 79. [= **사사기 주해**, 58 (6 장, IV. 이야기의 교훈, iv. 제기되는 문제)]

²⁴ 우리는 사사기 4 장에서 예언(9 절)과 섭리(11 절)가 모두 야엘 부분(17-22 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사기 4 장 9 절에서 드보라는 “여인의 손에(강조된 어구)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파실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성별(性別)과 영광의 문제를 해결한다. 시스라와 같이 멋진 알통과 문신을 가진 사람이 여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비이스라엘 여인에 의해서 말이다. 그래서 이제 지리와 섭리가 성별과 영광으로 이어진다. 사사기 4 장

38. 지금쯤 어떤 이들은 내가 “난감한” 내러티브들을 다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할 것이다. 옳다. 우리가 아주 많은 난감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룰 수도 있지만, 나는 모든 범주의 난감한 내러티브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루지는 않았다. 이것은 “부당해서 난감한 것”도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지만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것을 통해 확인된다. “부당해서 난감한 것”이란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겨운 것으로 간주되는 이야기들이다. 좋은 예들은 열왕기하 1장 9-18절(하늘로부터 내려온 불)과 열왕기하 2장 23-25절(곰들과 소년들)일 것이다. 최근에 다른 곳에서 이 두 이야기를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다.²⁵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충고만 덧붙이겠다. 구약의 난감한 내러티브들 속으로 들어가 씨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은 이 난감한 본문에서 무서운 거룩함과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자신을 계시하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11 절에서 우리는 이주에 관한 짙막한 “여담식의” 설명을 접한다. 겐 사람 헤벨은 아마도 남쪽에서(삿 1:16) 북쪽으로 이주했는데, 이상하리만큼 바로 거기서 나중에 헤벨 부인은 시스라에게 결정타를 날린다.

²⁵ 나의 책 *2 Kings: The Power and the Fury*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5), 19-26, 37-40 [= **열왕기하 주해**, 4-15 쪽(1 장 이번에는 불), 26-29 쪽(2 장, IV. 강해, iv.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한다)]을 보라.

6 장 거시적 관점: 큰 그림 보기 (macroscope)

1.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때, 특히 상당히 큰 마을이나 도시라면, 나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로 그 지역 지도를 준비해 두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 종류의 지도에 국한된다. 일반적으로 나는 여러 페이지를 갖고 있는 아주 상세한 지도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도로 안내 지도처럼 도시 전체가 한 페이지의 사분의 일 혹은 절반 안에 다 들어있는 지도를 원한다. 이런 지도는 분명 아주 많은 세부 사항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나는 모든 도로를 알 필요가 없고 주요 도로만 잘 알면 된다. 나는 길을 잘 찾을 수 있게 대부분 외울 수 있는 것을 원한다. 길을 잃게 되면, 나는 주요 도로 중 하나로 나와서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지나친 세부 사항은 전망을 망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그 안에 끼워 넣을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는 이것을 구약 내러티브 책들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정당하게 구약 내러티브 책들 안에서 개별 단락들을 다룰 수 있다. 미시적인 성경 연구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세부 사항은 중요하다. 그러나 책 전체에 비추어 개별 단락들을 보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 총론의 렌즈를 통해 각론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책마다 책 전체에 대한 “지도”를 필요로 한다.¹ 이렇게 우리는 거시적 관점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것을 성경 연구에 대한 “덩어리(glob)” 접근법이라고 부르며 몇 가지 예들을 통해 설명하려고 한다.

I. 출애굽기: 강조점 포착 (Exodus: picking up emphasis)

3. 성경의 한 책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강조점과 연결 고리를 포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한 번에 한 단락이나 한 이야기만을 살핀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칠 수도 있다.
4. 출애굽기에 들어서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출애굽기 3:7-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것이 자신의 계획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신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동정심을 보이고(“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 내가 그들의 고난을 알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¹ 몇 가지 예를 위해 Richard L. Pratt, Jr., *He Gave Us Stories* (Brentwood, TN: Wolgemuth & Hyatt, 1990), 279-305 쪽을 보라. Alec Motyer 가 그의 책 *Look to the Rock* (Leicester: Inter-Varsity, 1996), 23-25 쪽에서 어떻게 사사기의 “지도”를 구약 신학의 광맥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주목하라.

안정(“그들을 ...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을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여기에 구원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다.”라는 주제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부분의 기초를 이룬다.

5. 이 주제는 출애굽기의 첫 번째 덩어리 부분을 지배한다.

1) 출애굽기 1-2장은 구원의 **서곡**이라고 부를 수 있다.

2) 출애굽기 3-11장은 **구원의 장애물**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장애물은 종의 꺼림(출 3-4장)과 왕의 저항(출 5-11장)인데, 전자는 하나님의 준비로 해결되고 후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극복된다.

3) 출애굽기 12-13장은 구원의 **성례**(유월절)라고 부를 수 있다.

4) 출애굽기 13:17-15:21은 구원의 **체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는 찬송가 제목을 통해 이 구원 체험의 각 부분을 요약할 수 있다.

① 출 13:17-22 “He leadeth me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 새찬송가 390: 예수가 거느리시니]”

② 출 14장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 새찬송가 615: 그 큰 일을 행하신]”

③ 출 15:1-21 “I will sing of my Redeemer ‘내가 나의 구속주를 노래하리라’ [= 새찬송가 298: 속죄하신 구세주를]”

④ 우리는 당연히 출애굽기 14장(특히 14장 30절)을 통해 가장 위대한 구원이 바다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출애굽기 6장 6절의 여호와와 일치한다.²

5) 그런데 “구원”의 주제가 지배하는 부분은 출애굽기 15:21을 넘어 더 지속되는가? 아니면 출애굽기 15:22에서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옳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구원과 관련된 용어들이 이드로 이야기에 많이(출 18:1, 8-12) 나오기 때문이다. 이 점에 주목하며 나는 구원 부분이 출애굽기 18장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나는 출애굽기가 이 이드로 에피소드(출 18:1-27)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약간의 지면을 할애하여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내용에 비추어 이드로 에피소드를 살피려고 한다. 나의 제안대로 구원의 주제가 [출애굽기 15장 21절을 넘어 18장 27절까지] 계속된다고 간주하면, 우리는 출애굽기 15:22-18:27을 구원의 **투쟁**이라고 부를 수

² [출 6:6-7]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 [출 14:30]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있다.

6. 우선, 출애굽기 15:22-18:27의 내용을 살펴보자. 그것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3 가지 "공급" 에피소드들, 출 15:22-17:7

물, 출 15:22-27

만나와 메추라기, 출 16:1-35

물, 출 17:1-7

1 가지 "대립" 에피소드, 출 17:8-16

이드로의 방문, 출 18:1-27

7.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집중하며 몇 가지 관찰을 해 보자.

- 1) 저자(내 생각으로는 십중팔구 모세)는 출애굽기 18장을 현재의 위치에 놓을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드로 이야기는 사건이 일어난 연대순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드로는 "하나님의 산(출 18:5)," 곧 시내산에 도착한다. 그러므로 그의 도착은 출애굽기 19:1-2 **이후에** 일어났던 일임이 틀림없다.³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16절과 20절을 주목하라.⁴ 여기서 모세는 백성의 분쟁들을 해결해 주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18:16)"를 그들에게 알게 한다.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기 19-23장에 기록된 여호와와 율법에 대한 계시를 **이미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드로의 방문은 실제로 시내산의 계시 이후의 어떤 시점에 일어났지만, 분명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앞당겨" 현재의 위치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단서들이 있는가?
- 2) 이드로의 찬양(출 18:1, 8-12)이 이스라엘의 찬양(출 15:1-21)과 어쩌면 그렇게 적절한 병행을 이루고 있는지 주목하라. 두 찬양은 모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다.

³ [출 18:15]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 친** 곳이라 ... [출 19:1-2]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삼 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 그들이 르비딴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⁴ [출 18:16, 20] 16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 20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출 15:1-21 이스라엘의 노래

출 18:1, 8-12 이방인의 찬양

- 3) 이드로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찬양과 병행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에피소드들과 **의도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에도 주목하라. 출애굽기 18장 8-12절(이드로의 찬양)을 바로 앞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라.

3 가지 “공급” 이야기: 이스라엘은 불평한다(출 15:24; 16:2, 7 [2번], 8 [3번], 9, 12; 17:3)

1 가지 “대립” 이야기: 이방인 아멜렉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파괴한다(출 17:8-16)

①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에 대한 불신앙으로 원망하는 반면,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 이드로는 여호와에 대한 그의 신앙을 고백한다.⁵

②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죽이려 하지만(17:8-16) 그렇다고 모든 이방인, 모든 이교도가 그런 것은 아니다. 여기 이방인 이드로는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공유하고(출 18:10-12), 더 나아가 모세에게 주는 충고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긍정적인 유익을 가져다준다(출 18:13-27).

8. 이 모든 것은 저자가 이드로의 이야기에 전략적인 중요성을 두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것은 구원 부분의 **절정이 한 이방인이** 여호와를 지고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제시한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교도를 무지로부터 구원하신다. 우리는 라합과 롯과 나아만의 이야기들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함께 여호와는 이방 민족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을 하고 계셨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그분의 진리 아래로 데려오시고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셨다.

9. 그런데 나쁜 소식이 있다. 당신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이한 경험을 즐기면서도 여전히 불신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드로 사이의 두드러진 대조가 주는 의미이다. 이드로의 신앙은 아말렉의 증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냉소주의에도 맞선다. 그것은 많은 특권들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한다. 장로교인들, 침례교인들, 영국

⁵ 우리가 출 2:11-22 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에 대한 예고편을 볼 수 있다. 모세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인”이었지만(출 2:13-14; 참고, 행 7:23-28, 35), 모세의 구원을 체험한 것은 바로 르우엘/이드로의 딸들이었다(출 2:16-21). 이스라엘에 의해 거부당한 자는 르우엘/이드로에 의해 환영받는다. [역자 주: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출 2:18; 민 10:29) =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출 3:1; 4:18; 18:1, 2, 5, 6, 10, 12)]

국교회 교인들, 오순절 교인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동료 교인들이 깊이 뉘우치며 회개할 때이다.

10. [지금까지 살핀 대로 출애굽기의 첫 번째 덩어리 단락은 구원의 주제를 다루는 1-18장이다.] 출애굽기의 두 번째 덩어리 단락의 범위를 19-24장(시내산 언약을 다루는 부분)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십계명(출 20장)과 보다 세부적인 준수 사항들(출 21-23장)을 포함하는 언약법이 주어지는 것을 본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두 가지 일반적인 관찰을 해야 한다.

1) 첫 번째 관찰 사항은 출애굽기 19장이 율법 수여를 위한 다소 긴 서론을 이룬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왜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는가? 왜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와 연기와 불이 있었는가? 산이 진동하고 백성이 떨고 있는 것을 왜 이렇게 길게 전하고 있는가? 왜 이러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묘사되고 있는가? 왜 주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로 그토록 부들부들 떨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들어 지키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의 마음에 각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위엄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이 그의 법을 받을 준비를 시키시는 데 한 장 전체를 “낭비(?)하신다.”

2) 두 번째 관찰 사항은 질문 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다는 사실에는 무슨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인가? 총 18장으로 이루어진 “구원” 부분(출 1-18장)이 총 5장으로 이루어진 “율법” 부분(출 19-24장)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는 명료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율법보다 앞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복된 소식을 주고 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먼저 나온다. 여호와께서는 **요구 사항**을 부과하시기 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여호와께서는 먼저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를 얻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

11. 적절한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 아내가 작은 케이크를 구울 때면, 나는 적어도 그 일부에 당의를 입히곤 한다. 우리는 가끔 식품점에서 당의가 들어 있는 작은 통들을 산다. 우리는 한 통에서 조금만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 둔다. 그러나 케이크를 구워 식힌 다음, 냉장고에서 당의를 꺼내서 바로 케이크에 입히기 시작하면, 울퉁불퉁한 지저분한 케이크가 될 수 있다. 차가운 당의는 잘 퍼지지 않고 오히려 케이크의 일부에 달라붙어 (계속 퍼뜨리려 하면) 케이크의 두꺼운 조각을 잡아당겨 올라오게 한다. 우둔한 남성조차도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빨리 배운다. 냉장고에서 당의가 든 통을 한 시간 정도 미리 꺼내어 실온으로 내려 놓은 후에 당의를 입히면, 그것이 얼마나 쉽고 멋지게 칼 아래서 주르르 미끄러지며 잘 퍼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순서에서 지적되는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요점이다. 적절한 순서가 있다는 것, 곧 율법 준수는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에 반응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확립되게 하라. 그러면 전체 성경이 잘 이해될 것이다.

12.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1-18장에서는 **구원하시는[deliver]** 하나님(핵심: 여호와의 능력)으로, 19-24장에서는 여호와를 **요구하시는[demand]** 하나님(핵심: 여호와의 뜻)으로 제시하고, 세 번째 덩어리 부분인 25-40장에서는 **거하시는[dwell]** 하나님(핵심: 여호와의 임재)으로 제시한다.

13. 출애굽기에서 25-40장(아니면, 25-40에 포함된 내용)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생각으로는 저자가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 홍해를 건넌 것도 출애굽기의 절정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도 출애굽기의 절정이 아니며, (말뚝과 천막, 가족과 가구, 치수와 직물 등의 한없이 지루한 기록을 갖고 있는) 성막이 출애굽기의 절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8절은 당신에게 그 이유를 말한다. 이 구절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막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출 25:8).” 그러므로 여호와의 장막은 이스라엘의 장막들 사이에 세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출애굽기 29:45-46에서⁶ 이와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다. 거기서 여호와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시내산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세운 목표가 아니다. 사실,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구름과 불을 통하여 (알렉 모티어가 어디선가 말한 것처럼) 시내산이 **이동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것이다. 여호와는 시내산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동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단락인 40장 34-38절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⁷

⁶ [출 29:45-46] 45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⁷ [출 40:34-38] 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14.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특권을 거의 잃을 뻔하였다. 이스라엘은 소죽 한 그릇을 위해 이 유산을 팔려고 하였다. 출애굽기 25-40장의 구조가 이 비극을 어떻게 강조하는지 살펴보자.

제안된 임재, 출 25:1-9

주어진 계획, 출 25:10-31:18

상실된 임재, 출 32-34장

실행된 계획, 출 35:1-40:33

증명된 임재, 출 40:34-38

15. 금송아지 숭배를 통한 이스라엘의 배교는(출 32:1-6) 그들을 전멸의 위기까지 몰고 갔다(출 32:9-10). 출애굽기 32장의 마지막 절들로부터 33장을 거쳐 34장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길고 힘든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⁸ 모세는 이 변덕스러운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 아래서 회복되기를 간청하고 탄원하였다. 심판이 있었고(출 32:25-29) 절망이 있었다(출 32:30-32). “반쪽짜리 언약”의 제안(출 33:1-3), 더 많은 것을 구하는 중보자의 계속적인 압박(출 33:12-17), 흘러 넘치는 자비(출 34장)가 있었다. 출애굽기 32-34장을 한 문단 한 문단 고뇌하며 읽다 보면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로 35장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출애굽기 35장은 당신을 거의 무아지경에 빠지게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실과 직물과 물들인 숫양 가죽과 바르는 기름과 갈고리, 뼈대, 빗장, 받침 등 여호와의 장막을 위한 모든 기이한 비품들에 대해 읽기 때문이다. 성경의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좋고 재미있게 들려진 적은 없다.

16. 나는 당신이 이 “성막”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 출애굽기 25-40장의 구조를 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부분의 요지, 즉 출애굽기 25장 8절의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간단히 말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충분할 만큼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거의 믿을 수 없는 것이다.

17. 하지만 우리 자신의 경험에 희미하지만 유사한 것이 있다. 대학 3학년이 끝난 여름에 나는 캔사스 중부의 시골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주중에는 그 교회의 한 농부 밑에서 일했다. 나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⁸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나의 논문인 “Rebellion, Presence, and Covenant: A Study of Exodus 32-34,”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4 (1982): 75-81 쪽을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보자.

매우 이른 아침에는 공부했고, 아침 식사 후에 온 종일 농장에서 일했고, 주일이면 설교하고 심방했다. 정말 여가의 시간이라곤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서쪽으로 180 마일쯤 떨어져 사는 여자 친구(후에 아내 = 바바라)와 상당히 진지한 교제를 하는 일이었다. 그런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다른 교회에서 일하는 나의 친구도 캔사스 서부에 여자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내 여자 친구보다 25마일 더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을 잔인한 고문과 같은 고통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어느 주일 (각자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우리는 함께 내 차를 타고 캔사스 서부로 달려 갔다. 우리가 바바라의 집에 도착하면, 내 친구는 내 차를 타고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갔다. 그는 새벽 2시쯤 나를 데리러 돌아왔고, 우리는 다시 차를 몰고 되돌아왔다. 오전 6시 15분쯤 농장에 차를 세우고 아침을 먹고 트랙터에 올라타서 밭을 갈았다. 그건 대학생들이나 하는 정신 나간 짓이었지만, 우리에게 물어보았다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나는 **그녀와 함께** 있어야만 했다.”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18. 여호와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기의 백성에 대한 여호와와 갈망과 열망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고 여호와께 “하지만 그것은 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광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아, 그렇지만 내 백성이 있는 곳이 내가 있기를 원하는 곳이고, 그래서 그들의 장막 가운데 내 장막이 있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위해 예비하여 둔 곳으로 가고 있고, 나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며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은 내가 여행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가는 곳에 내가 없는 일은 결코 없다. 나는 이것을 끝까지 고집할 것이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헬라어 본문으로 가서⁹ 이것을 신약의 가르침과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증언이 그 자체로 놀랄 만한 확언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구타당한 여호와와 종들이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그들 중 일부가 산산조각난 꿈과 짓누르는 짐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지역을 헤쳐 나가고 있을 때, 그들의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장막을 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백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다.

⁹ [요 1:14a] Καὶ ὁ Λόγος σὰρξ ἐγένετο καὶ ἐσκήνωσεν ἐν ἡμῖν // YLT: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id **tabernacle** among us // ESV: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 NLT: So the Word became human and **made his home** among us// 개역개정: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 새번역: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II. 여호수아: 오리엔테이션 받기 (Joshua: getting an orientation)

19. 출애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책이 강조하고자 하는 몇 가지 점이 눈에 띄는데, 특히 이드로 이야기와 성막 신학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그 강조점들이 부각된다. 그러나 때로는 책 전체를 한 번 훑어보기만 해도 그 책의 작은 부분들을 제대로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관점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큰 관점”은 개별 단락을 남용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통제 수단이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호수아서를 훑어보자.
20. 여호수아서의 절정은 21장 43-45절에 나온다. 이 요약 단락은 그 페이지를 가로지르는 굵은 검정선을 그으며 그 지점까지의 책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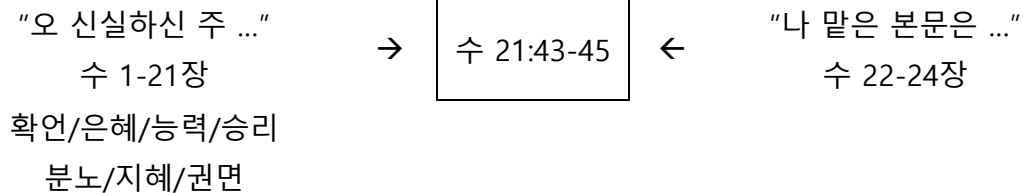
[수 21:43-45] 4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4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4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¹⁰

21. 이 요약 구절을 통해 저자는 “우리 모두 일어서서 ‘오 신실하신 주 [새찬송가 393장]’를 찬양합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호와와 신실하심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앞의 내러티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와 신실하심은 ①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호와와 확언에서(수 1장), ②이방인 기생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공유함으로써 이스라엘로 영입되게 하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수 2장), ③극복하기 “불가능한” 장애에 직면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그분의 능력에서(수 3-4장), ④반복적으로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며 주신 그분의 승리에서(수 6, 8, 10, 11장), ⑤이스라엘을 회개와 회복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분노에서(수 7장), ⑥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막으실 수 있는 그분의 지혜에서(수 9장), ⑦이스라엘로 온전한 순종을 하도록 격려하는 그분의 권면에서(수 13:1-7; 18:3ff) 볼 수 있다. 이렇게 책의 처음 스물 한 장은 저자가 여러 각도에서

¹⁰ 칼 구트브로트(Karl Gutbrod, *Das Buch vom Lande Gottes*, Die Botschaft des alten Testaments, 3rd ed. [Stuttgart: Calwer, 1965], 137)는 수 21:43(이스라엘이 거주한 땅)은 13-21 장을 적절하게 요약하고, 수 21:44(이스라엘의 적들과의 갈등)은 1-12 장의 승리들을 요약하고, 수 21:45(여호와와 선한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전체 내러티브를 둘러싸고 있다고 설명한다.

여호와와 신실하심에 대하여 말하는 이 절정 부분(수 21:43-45)에 이르게 된다.¹¹

22. 여호수아서 21장 43-45절 이후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여호수아서 22-24장이 있다. 이 두 번째 부분에는 하나님 백성 혹은 그들 중 일부가 참여하는 집회가 3번 있다(수 22:1; 23:2; 24:1). 각 집회의 주된 관심사는 제1 계명, 즉 여호와께 대한 이스라엘의 신실함이다(수 22:5, 16, 18, 19, 25, 29, 31; 23:6, 8, 11; 24:14-15, 16, 18, 21, 23, 24). 여기서 저자는 이스라엘로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A Charge to Keep I Have ‘지켜야 할 명령을 내가 갖고 있다’ [= 새찬송가 596 나 맡은 본분은].”를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다. 도표로 나타내면 여호수아서는 다음과 같다.



23. 이것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동일한 패턴이 아닌가? 로마서 12장 1절은 1-11장에서 설명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비추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논리적 반응을 안내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호수아서처럼 로마서의 첫 번째 큰 덩어리(롬 1-11장)는 11장 끝에서 절정 부분에¹² 이르고 있지 않는가? 여호수아서와 로마서는 다음과 같은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다.

¹¹ “[콜] 모두”라는 단어가 수 21:43-45의 히브리어 본문에 6번 나온다.

[수 21:43-45 YLT] 43 And Jehovah giveth to Israel the **whole** of the land which He hath sworn to give to their fathers, and they possess it, and dwell in it; 44 and Jehovah giveth rest to them round about, according to **all** that which He hath sworn to their fathers, and there hath not stood a man in their presence of **all** their enemies, the **whole** of their enemies hath Jehovah given into their hand; 45 there hath not fallen a thing of **all** the good thing which Jehovah spake unto the house of Israel — the **whole** hath come.

[수 21:43-45 개역개정] 4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원문에 없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4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것 (원문에 있으나 번역하지 않음)>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4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모든 (원문에 있으나 번역하지 않음)>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¹² [롬 11:33-36] 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값으심을 받겠느냐 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수아서 1-21장 → 21:43-45 ← 여호수아서 22-24장

로마서 1-11장 → 11:33-36 ← 로마서 12-16장

24. 여호수아서의 80 퍼센트 이상이 여호와와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그리고/혹은 목록—이다. 이것은 당신을 막다른 코너로 몰아놓고, 당신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 곧 여호와와 종이 되도록(곧 “여호와를 섬기도록”)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여호수아서는 두 가지 요점으로 구성된 설교라고 할 수 있다.

I. 여호와와 신실하심에 대한 기록, 수 1-21 장

II. 여호와와 백성의 책임, 수 22-24장

25.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본다고 해서 주어진 여호수아서 본문에 대한 당신의 설교문이 저절로 작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여호수아서에 접근하는 일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줄 뿐이다. 그것은 여호수아서가 구약의 일상적인 패턴, 곧 은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구라는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26. 그것은 또한 여호수아서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러티브 기록에 **주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여호수아서 1-21장에 있는 어떤 단락을 설교하며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혹은 역사적 자료들에 너무 빠져서 여호와와 신실하심에 대한 증언을 흐리게 한다면, 당신은 그 본문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것의 의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호수아서와 같은 책에서는 고고학, 지리학 등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설교자는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더 많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1-21장의 어느 단락에 대한 설교도 사람들이 “설교가 지루하지 않은가?”가 아니라 “여호와를 광대하지 않으신가?”라고 외치게 해야 한다.

27.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 내러티브가 결코 어떤 중립적이거나 초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담고 있음을 알려준다. 여호수아서 22-24장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시급하고 지속적인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여호수아 본문들을 설교할 때, 나는 정보를 주거나 깨우치거나 분명히 하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감사의 수갑을 차고서 “그토록 놀랍고 신성한 사랑이 내 영혼,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헌신을 하도록 밀어붙이려고 애를 쓴다.

III. 에스라-느헤미야: 뜻밖의 일을 만남 (Ezra-Nehemiah: running into surprise)

28. 당신은 에스라-느헤미야서가 내러티브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이 책에는 좀 무미 건조한 것들—목록들, 보고들, 편지들, 문서들—이 들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러티브의 틀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전체 작품을 “내러티브”로 취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나의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전반적인 분석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면을 할애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저 그 내용과 구조에 대한 나의 결론을 요약할 것이고, 성경 본문에 비추어 그것을 검토해 보는 일은 독자들에게 맡길 것이다.

29. 에스라-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다.¹³ 그래서 나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사이에 하이픈을 넣어 하나로 묶었다. 에스라-느헤미야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인다.¹⁴ 첫째 부분은

¹³ B.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626.

[역자 주] Cf. Williamson, *Ezra, Nehemiah*, xxi; Howard, *Historical Books*, 275; Yamauchi, *Ezra-Nehemiah*, 572-573. 에스라-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이었다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1. 히브리어 정경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으로 간주되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인 10 장과 느헤미야서의 첫 장인 1 장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으며 맛소라 학자들은 에스라서 끝에 맛소라 말주를 달지 않았고 느헤미야서 끝에 맛소라 말주(절의 총수 = 685; 책의 후반부 시작하는 두 단어 = 느 3:32 וְכִין עָלֶיָּהּ; 세데르의 수 = 10)를 달았다.

2. 주후 15 세기까지의 모든 히브리어 사본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으로 나온다. 가장 이른 시기의 칠십인역의 사본에서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으로 나온다. 요세푸스(*Contra Apionem* §40)는 히브리어 정경을 24 권으로 계산할 때 에스라-느헤미야를 한권으로 간주하였다. 사데의 주교 멜리토(cf. Eusebius, *Hist. Eccl.* 4.26.14)는 에스라-느헤미야를 합하여 “에스라”라고 말하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자료를 인용한다. 탈무드는 에스라서에 느헤미야의 활동을 포함시키고 “책이 왜 그의 이름을 따라 불리지 않는가?”라고 질문하기조차 한다(Bab. Sanh. 93b; cf. B. Bat. 14b 에스라만 열거되어 있음). 중세 유대인 주석가들(이븐 예즈라, 라시 등)은 에스라에서 바로 느헤미야로 나아가서 주석한다.

3. 느헤미야서의 구분은 기독교 전통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고 오리겐(185-253 A.D.)에 의해 처음으로 증거되며(cf. Eusebius, *Hist. Eccl.* 6.25.2), 4 세기에 제롬은 그의 라틴어역 별게이트에서 에스라서를 Esdras I 이라고 하고 느헤미야서를 Esdras II 라고 하였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구분한 것은 15 세기 이후에야 히브리어 성경 인쇄본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느 1:1 의 제목(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두 책 자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이 각기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함께 통일성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cf. 느 12:26, 47;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내러티브가 뒤섞여 있음).

¹⁴ 이 점에 관하여 나는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632-33 쪽에 설명된 것에 동의한다. 좀 다른 분해를 위해 Andrew E. Hill and John H. Walton, *A Survey of the Old Testament*, 2nd ed. (Grand Rapids: Zondervan, 2000), 272-76 쪽을 보라.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다루는 에스라 1-6장이다. 둘째 부분은 에스라가 귀환하여 그의 지도아래 이루어진 개혁들을 다루는 에스라 7-10장이다. 셋째 부분은 느헤미아가 귀환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다루는 느헤미야 1-6장이다. 넷째 부분은 공동체의 삶을 재건하는 것을 다루는 느헤미야 7-13장이다. 시간상으로 에스라-느헤미야서는 주전 539년경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주전 433년경 느헤미야의 두 번째 예루살렘 귀환까지 100년이 조금 넘는 기간을 다룬다. 네 개의 주요 단락들은 각각 하나의 지배적인 초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개요 형식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로마 숫자 다음의 표제는 각 단락의 특성을 묘사하고,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부표제들은 각 단락의 흐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젯빛 하늘 아래 새로운 기회”라는 제목은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분해

I. 새로운 성전, 스 1-6

1. 미래와 희망, 스 1장
2. 새로워진 이스라엘의 창설자들, 스 2장
3. 새로운 시작 ... 그리고 새로운 노래, 스 3장
4.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스 4장
5. 하늘 왕의 명령과 세상 왕들의 명령들, 스 5-6장

II. 새로운 통치, 스 7-10장

1. 하나님의 손을 즐거워함, 스 7-8장
2. 하나님의 분노를 피함, 스 9-10장

III. 새로운 도성, 느 1-6장

1. 내 하나님의 선한 손, 느 1-2장
2. 내 일꾼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 느 3장
3. 내 일에 대한 큰 반대, 느 4-6장

IV. 새로운 사회, 느 7-13장

1. 개혁의 일, 느 7-10장
2. 강화의 일, 느 11:1-13:3
3. **항상** 개혁하고 있는가? 느 13:4-31

30.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주요 단락(느 7-13장)은 일종의 절정이다. 언약 갱신(느 10장)과 12장의 성벽 봉헌 축하(느 12장) 이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의 삶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느 13:4-31)에서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된다. 그것은 지금까지 유다 회복 프로젝트에 쏟아 부은 모든 신중하고 끈질기고

부지런한 노력(느 7:1-13:3)에 비하면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이다.

31. 느헤미야서 13장 4-31절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느헤미야가 고친 악행들이 그가 바사로 돌아가 있었던 동안 발생했던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느 13:6).¹⁵ 그 악행들은 다음과 같다.

타협, 느 13:4-9 (이방인에게 바싹 달라붙은 것)

태만, 느 13:10-14 (레위인들을 부양하지 않은 것)

상업주의, 느 13:15-22 (안식일을 범한 것)

혼혈, 느 13:23-31 (이방인들과 통혼한 것)

32. 느헤미야는 특유의 활력과 열정으로 이런 악행들을 고쳤다. 이 부분은 그의 회고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해야만 했던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느헤미야가 해야만 했던 일은 (1) 불결을 제거하는 것(느 13:4-9), (2) 십일조를 다시 드리게 하는 것(느 13:10-14), (3) 안식일을 준수하게 하는 것(느 13:15-22), 그리고 (4)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징계하는 것(느 13:23-29)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묘사는 우리를 좀 실망하게 한다! 책의 절정에서 느헤미야는 당신에게 “하강”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가 바로잡는 악행들(느 13:4-31)은 유다가 전에 언약 갱신할 때 **하지 않았다고 맹세했던 것**(느 10:30-39)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혁되었을지” 모른다. 그들이 엄숙한 언약 관계에 들어갔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언약의 어느 조항도 깨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한다. 윌리엄슨의 다음 말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느헤미야서는 용두사미처럼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방식으로 끝난다. 마치 함성으로

¹⁵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면 느 13:4의 초두에 골치 아픈 어구가 하나 있다. 그것은 대개 시간적 의미, 예를 들어 NASB에서처럼 “Now prior to this 이전에”로 번역된다. 이런 번역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에게 성전에 한 큰 방을 주었던 에피소드(느 13:5)가 느 13:1-3과 느 12:44-47의 에피소드들보다 먼저 일어난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에피소드(느 13:1-3와 느 12:44-47)는 모두 느 12:27-43에 있는 성벽 봉헌의 때를 가리키는 “그 날에”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두 에피소드는 성벽 봉헌의 때와 함께 가도록 의도되었다. 그 때에는 느헤미야가 분명히[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러나 느 13:6은 엘리아십이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주었던 것이 느헤미야가 보고드리러 [바사] 왕에게 가고 없었기 때문임을 암시한다. 나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Lange's Commentary*(**랑게 주석**)에서 하워드 크로스비(Howard Crosby)가 제안한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느 13:4의 히브리어 어구 [블리프네 미제]를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위치적인 의미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며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before this 이전에”가 아니라 반향을 나타내는 “in the face of this 이에 직면하여”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작해서 신음으로 끝나는 것 같다. 이 마지막 장에 언급된 모든 악행들은 이전에 다루어졌지만, 여기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개혁자들이 그것들을 근절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 마치 책이 자신의 실패를 지적하는 듯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구조와 일과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 인간 마음의 선천적으로 비뚤어진 성향을 새롭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¹⁶

33. 다소 놀랍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혼신의 힘을 다해 이 공동체에 쏟아 부은 수고와 모든 고난과 기도 다음에 무언가 더 나은 것을 기대해 볼 만하기에 그렇다. 이 다소 반절정적 마감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을 평가 절하하지 않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취약성을 잘 드러낸다. 그렇다면 에스라-느헤미야서의 결말 부분은 교회의 개혁에 너무 많은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에게 깜빡거리는 노란 경고등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개혁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개혁과 함께 섞여 몰래 다가오는 교만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저런 단체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교단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새 교단이 신앙 고백적으로 정통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심을 키우고, 결코 타협이란 미끄러운 경사로에 오르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심지어 신실함을 유지하겠다고 엄숙한 언약을 체결했을 때조차도 말이다.¹⁷

¹⁶ H. G. M. Williamson, “Ezra and Nehemiah,” *New Bible Commentary*, 4th ed. (Leicester: Inter-Varsity, 1994), 440. 참고로 말하면 아주 비슷한 취지로 고든 맥콘빌(Gordon McConville)도 그의 책 *Ezra, Nehemiah, and Esther*, Daily Study Bible (Philadelphia: Westminster, 1985), 149 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에스라-느헤미야의 마지막 설명은 모호하다. 적을 방어할 성벽 재건을 그토록 열광적으로 축하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과 제사장의 가문 안에 적의 존재를 그토록 쉽게 용납하게 되었을까? 정말로 어떻게 (느헤미야서 10 장에서) 종교적 순결을 위해 그토록 엄숙하게 헌신하였던 사람들이 그토록 빨리 본질적으로 비종교적인 관행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집의 질서를 세우려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노력들에 대한 어떤 절망감, 방황하는 양들을 바른 길로 다시 되돌릴 필요성에 대한 권태감, 이 개혁이 어느 다른 것보다 더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느낌, 어쨌든 느헤미야 자신이 그의 최선을 다했다(느 13:14, 22b, 31b)는 느낌 등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부분의 올바른 의미를 포착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¹⁷ [역자 주] Douglas Green, “Ezra-Nehemiah” in *A Complet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Zondervan, 1993), 206-215.

	제 1 막	제 2 막
	스 1:1-느 6:19	느 7:1-13:31

34. 당신은 에스라-느헤미야서가 **암시적으로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는가? 이 책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실패는 당신으로 실패하지 않을 이스라엘인을 찾게 하지 않는가? 언약은 엄숙하게 맹세했더라도 너무 쉽게 깨어진다.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에스라-느헤미야서가 우리 자신에 대한

I	서론 (Introduction)	스 1:1-2:70	느 7:1-7:73a(MT 72a)
II	1 단계 (First Step)	스 3:1-6:22	느 7:73b(MT 72b)-8:18
III	2 단계 (Second Step)	스 7:1-10:44	느 9:1-10:39(MT 40)
IV	절정 (Climax)	느 1:1-6:16	느 11:1-13:3
V	파괴 (Subversion)	느 6:17-19	느 13:4-31

- 에스라-느헤미야서는 두 벽에 대한 이야기이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회복 공동체에 의해 두 벽이 재건되었다.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주는 물리적인 벽(느헤미야의 벽)과 영적인 경계(에스라의 벽)가 세워졌다. 그러나 저자가 1 막의 마지막과 2 막의 마지막에 역재건(파괴 subversion)의 자료를 배열한 의도가 무엇인가? 회복기 공동체의 목표 성취의 질과 지속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대답보다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벽들은 안전한가? 두 세계는 분리된 채로 남아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계속(To be continued)”이란 어구가 책의 끝에 쓰여 있기라도 한 것처럼 원래의 독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이야기가 그들이 난국에 대처하고 하나님의 집의 안전성과 영속성에 대한 모든 의심을 제거한 후속 이야기가 될 것을 도전하고 있다.
- 독자는 회복기 공동체가 그의 목표에 도달한 것을 즐거워하지만 그 성공이 얼마나 영구한 것인지 궁금해한다. 공동체가 계속 전진할 것인가? 이미 얻은 기반을 견지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저자는 솔로몬에 대한 언급(느 13:26-27)을 하면서 공동체를 향하여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당신들은 솔로몬 곧 하나님의 집을 짓고 처음에는 좋았으나 실패자로 마감한 그 솔로몬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솔로몬을 닮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당신들이 재건한 거룩한 성이 파괴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 것인가?” 포로 이전의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죄가 포로 이후의 공동체의 문에도 얹드리고 있다. 내러티브는 대답 없는 질문들과 백성들의 율법 준수에 대한 헌신의 실재에 대한 의문으로 불길하게 끝나고 있다.
-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는 이미 징계받은 공동체였고 이제 회복된 공동체였으나 여전히 개혁이 필요한 공동체이었다. 참된 교회는 지난날에 한 번 개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말씀의 빛 아래서 개혁해 가며 티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잡힌 것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이루어야 한다.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개혁은 교회의 지속적인 소명이다. 개혁이 없을 때 침체와 변질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 가는 교회이다(ecclesia reformata ecclesia semper reformanda).”라는 모토를 남겨 주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개혁해 가고 있는 교회인가?

거룩한 불신을 심어주며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분명하게 파악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주님, 방황하기 쉽습니다. 저는 그걸 느낍니다.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¹⁸ 이 사실을 직시하는 것은 오히려 건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에스라-느헤미야서 안에서 이 사실을 보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보다 거시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¹⁸ [역자 주] 이 인용문은 영어 찬송가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새찬송가 28 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의 3 절의 세 번째 소절에 나온다. 이 찬송의 3 절 가사 전부는 다음과 같다.

O to grace how great a debtor / daily I'm constrained to be!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Let that grace now, like a fetter, / bind my wandering heart to thee.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here's my heart; O take and seal it; / seal it for thy courts above.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7 장 적용 (appropriation)

1. 알렉산더 화이트는 낙담해 있는 감리교 목사 제킨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설교를 포기할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보좌 주위의 천사들이 당신의 위대한 사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혹은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전혀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 자신의 죄로 가득 찬 마음을 들여다보고, 당신 자신의 죄로 가득 찬 삶을 되돌아보고, 죄와 불행으로 가득 찬 세상을 둘러본 후, 신약 성경을 펴서 그리스도를 당신 자신과 청중에게 적용하십시오.¹

2. 성경의 적용(곧 성경을 삶에 알맞게 응용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죄로 가득 찬 마음을 들여다보고, 당신 자신의 죄로 가득 찬 삶을 되돌아보는” 올바른 곳에서 시작하면, 그다지 엄청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설교자가 자기 자신의 부패성에 대해 생생하게 인식한다면, 성경을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화이트의 말을 따라 당신 자신의 죄로 물든 본성을 잘 활용하면, 당신은 내러티브 형식의 하나님 말씀을 훨씬 더 강력하고 은혜롭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내가 보기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어떤 이들은 우리의 일이 성경을 풀이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지, 성자들과 죄인들의 모공에 비벼 넣는 것처럼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간 도구를 통해 일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설명하는 우리의 수고뿐만 아니라 성경을 적용하는 우리의 노력을 기꺼이 사용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² 이에 대하여 나는 논쟁을 벌일 생각이 없다. 나는 성경을 삶에 응용하지 않는 독자 및/또는 성경을 적용하지 않는 교사가 성경에 낙태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적용에 대한 나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훈과 순종, 우리의 인내와 격려를 위해 그분의 말씀을 주셨다.

¹ G. F. Barbour, *The Life of Alexander Whyte, D.D.*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23), 307-308.

² 참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 장 3 항: 하나님은 그의 통상적인 섭리에서 **수단들을 사용하시지만**(볼드체 부분은 저자의 강조를 위한 것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수단 없이, 수단을 초월하여, 그리고 수단에 반하여 (without, above, and against them) 자유롭게 일하신다.

그러므로 적용에 이르지 못하는 해석은 이치에 어긋난다.³

여기서 나는 구약의 내러티브 본문에서 적용을 이끌어내는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럼 시작해보자 ... 그러나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나아가 보자.

I. 시작을 위한 주의: 내러티브로부터 나올 적용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가정하지 말라 (A caution: don't assume that application from narrative is obvious.)

4. 내러티브 본문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처럼 보이고, 오직 남은 문제라면 그것에서 한 두 가지 명백한 “교훈”을 얻는 일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우리로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해석학적 사제만이 적절한 적용을 끌어낼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적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5. 열왕기상 17 장 2-16 절을 예로 들어보자. 여기서 여호와와 엘리야에게 그릇 시냇가 근처로 가서 숨으라고 명하시며, 그 시냇물이 마실 물이 되고 까마귀들이 먹을 것들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확신시키신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께서는 믿을 만한 까마귀들이 정기적으로 선지자의 음식을 가져오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셨다. 그 시내가 말랐을 때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페니키아(즉 시돈에 속한 사르밧)로 가라고 명령하신다. 거기서 그는 주님이 준비하신 다음 공급자, 즉 마지막으로 될 저녁 식사를 한 시간 남겨 놓은 과부를 만난다. 이걸 읽으면서 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을 보존하는 데 신실하신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정체성 위기를 전혀 겪지 않을 수도 있다. 엘리야가 주님의 종인 것처럼 나도 주님의 종이며(엘리야가 더 훌륭하게 봉사했더라도), 여기서 엘리야는 모든 신자를 대표한다고 간단히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을 나를 위해서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항상 먹고 마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나는 주님께서 구속사의 과정에서 위생 기준을 높이셔서 내 일용할 양식이 자동차에 치여 죽은 까마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태복음 6 장 25-34 절이나 누가복음 12 장 22-31 절로 나아갈 수 있고 고조된 경건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³ 분명히 말해서, 나는 적용에 두 가지 기본적인 유형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격려 혹은 폭로(encouragement or exposure)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은 위로 혹은 비난(consoleation or criticism)이다. 다음과 같은 진부한 표현이 맞는 것 같다. 성경은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편안한 자들을 괴롭게 하려고(to comfort the afflicted and afflict the comfortable) 한다.

6. 이럴 때 어쩌면 성령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며] “워, 워!”라고 외치실지 모른다. 왜 우리는 엘리야가 모든 신자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가? 왜 우리는 여기서 우리와 엘리야를 동일시하는가? 엘리야는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선지자 직분을 갖고 있다(왕상 17:1). 그가 숨는 것은 아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합에게 비유가 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호와의 말씀의 전달자가 숨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왕과 백성들로부터 숨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표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선지자를 보존하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나 자신과 엘리야를 동일시할 어떤 근거가 있는가? 여호와께 바짝 붙어 있었지만 매일 정기적으로 양식을 가져오는 까마귀들을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참고, 왕상 19:18)은 어떤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공급이 없이 (배교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가뭄과 기근의 참상을 견뎌낸 신자들과 내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자신을 남은 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직분을 맡은 선지자의 입장에 두려고 고집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7. 그렇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현대의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위로를 위해 열왕기상 17 장 2-16 절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적용이 우리가 너무 쉽게 가정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있을 수 있다고 말할 뿐이다. 여기서 나의 관심은 이 열왕기상 17 장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⁴ 단지 나는 적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적용이 상당한 집중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8. 나는 신학교 첫 학기를 기억한다. 우리는 헬라어 초급 석의(beginning Greek exegesis) 시간에 빌립보서를 가지고 씨름해야 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미 주의 깊게 빌립보서를 연구했고 대학생 목회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나는 그 강좌가 관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석의 수업이 시작되고 한 특별한 어구를 다루게 되었다. 교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세 가지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셨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 가지나 더 많았다. 그런 과정을 수십 번 거치면 아마도 당신은 성경 불가지론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두 손을 들고 “나는 이 서신서가 무엇을

⁴ 왕상 17:2-16 을 위해 M. B. Van't Veer, *My God is Yahweh* (St. Catharines, Ont.: Paideia, 1980), 73-79 쪽을 보라. 혹은 나의 책 *The Wisdom and the Folly: An Exposition of the Book of First Kings*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2), 207-213 쪽[= **열왕기상 주해**, 186-196(20 장 하나님 전쟁의 시작)]에 있는 나의 요약을 보라.

의미하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거야!”라고 외칠지 모른다. 점점 나는 그런 절망에서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런 힘든 경험을 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에게는 그것이 필요했다. 나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지점에 도달해야 했다. **그런 다음** 나는 약간의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당신이 어떻게 이 내러티브를 적용할지 알고 있다고 너무 쉽게 가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당신이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II. 적용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실마리들” (‘Handles’ that can lead to application)

9. 나는 성경 독자나 성경 교사를 위해 내러티브에서 적용으로 나아가는 것, 혹은 어떤 이가 표현한 대로 설교에서 관여(關與)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확실하고 확립된 나의 비결은 없기 때문에 다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적용의 “실마리/단서(handle)” 몇 가지를 식별할 수 있다. 이 “실마리들”에 대하여 이름을 붙이거나 분류하여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주가 완벽하지 않고 목록이 완전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논의하는 동안 잘 정리된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한 책략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주의 사항들이 이해되었으면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다.⁵

i. 절차적 실마리 (Procedural)

10. 여기서 내가 의미하는 것은 본문에서 진행되는 절차, 종종 주요 인물 혹은 인물들이 따르는 절차를 분석하면 적용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예는 열왕기상 14 장 1-18 절(특히 1-6 절)이다.

1) 왕의 안도 (Royal Relief)

11. 여기서 우리는 여로보암 왕이 아내에게 늙은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 만날 방법을 알려주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여로보암 왕과 아내 사이에 태어난 아들(아마도 왕위 계승할 세자)이 병에 걸렸다. 여로보암은 아들이 회복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아히야가 아들에 대하여 최대한 좋은 말을 해 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항을 고집한다. 그의 아내는 변장해야만 했다. 수입산 향수도 뿌려서는 안 되었고 고급 의상도 입어서는 안 되었다.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의

⁵ 이 문제들에 대한 아주 좋은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다음 참고 문헌을 보라. Richard L. Pratt, Jr., *He Gave Us Stories* (Brentwood, TN: Wolgemuth and Hyatt, 1990), 307-402 (= Part 3, Applying Old Testament Narratives); Daniel M. Doriani, *Putting the Truth to Work: The Theory and Practice of Biblical Application*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2001).

아내처럼 보여야만 했다. (사실, 여로보암은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아히야는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왜 선지자가 자신의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토록 신경을 썼는가?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거의 확실한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아히야가 원래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다스릴 왕권이 주어질 것을 알려줄 때, 다윗 왕조와 같은 왕조를 원한다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경고했었다(왕상 11:38). 그러나 여로보암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예루살렘의 공인된 예배를 대신할 이스라엘만의 자체 종교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벤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다(왕상 12:25-33).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종교와 예루살렘에 동조하지 않는 백성이 있으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느꼈다. 그는 이 길을 고수했다(왕상 13:33-34). 그러므로 자연히 여로보암은 아히야와의 만남을 불편해하였다. 아마도 아히야는 여로보암과 그의 종교 정책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며 틀림없이 왕의 어떤 질문에도 통렬하게 비난하는 입장에서 대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아내를 보내되 변장하여 보낸다면, 글썄, 아히야는 훨씬 더 동정적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객관적”이었을 것이다. 아들이 죽을까 봐 걱정하는 사랑스러운 이스라엘 어머니를 상대로 누가 가혹한 말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이것이 여로보암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히야의 시력은 손상되었지만 그의 청력은 뛰어났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왕의 모든 계략에 대하여 귀땀해 주셨다(왕상 14:4-5). 그리고 아히야는 그녀에게 엄중한 말을 정말 전했다(왕상 14:7-16).

12. 여기서 여로보암의 절차에 집중하면, 그것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유일한 적용은 아닐지라도) 적용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가? 여로보암이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 것은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린 것은 결코 칭찬할 수 없다. 그의 아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은 듣고 싶었지만, 이스라엘의 혈관에 주입한 가짜 예배는 근절하고 싶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고뇌를 덜어주는 것은 원했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자신을 위로해 줄 말씀은 원했지만, 자신을 다스릴 말씀은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현재의 딜레마에 빛을 줄 점성 천궁도로서는 환영했지만, 전체 여정을 안내하는 나침판으로서 환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종을 위한 통치 백서가 아니라 자문을 위한 자료일 뿐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는 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정은 전혀 원하지 않았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일시적인 용도의 창기에 불과했다. 여기서 보는 여로보암의 패턴이야말로 우리가 목회

사역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것임을 즉시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스피린은 간절히 원하지만 그분의 왕권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여로보암”이 목회자의 서재에 도움을 청하러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훨씬 더 무서운 일은 때때로 목회자도 자신의 영혼 속에서 같은 경향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대혼란 (Major Mess)

13. 창세기 27 장을 읽어보면, 각자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등장 인물들의 대혼란을 볼 수 있다. 창세기 27 장에 이를 때 우리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창세기 25 장 23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전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14. 즉시 우리는 완고한 이삭과 정면으로 마주친다(창 27:1-4). 그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만들 별미를 원하며(참고, 창 25:28)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말한다. 이삭은 그의 감각에 따라 살아간다. 확실히 그는 시각을 잃어 잘 보지 못하므로(창 27:1), 미각(창 27:4), 촉각(창 27:11, 16, 21-22), 후각(창 27:15, 27), 그리고 청각(창 27:22)에 의존한다. 그에게 대부분의 감각은 있을지라도, 참된 통찰력은 없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창 25:23)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리브가가 그렇게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남편에게 숨겼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기서 이삭은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는 “에서 계획(즉 별미-축복)”을 가지고 분명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그는 언약과 관계된 일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개작하려고 한다. 몹시 주제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를 아주 쉽게 합리화할 수 있다. 어쨌든, 여기서 이삭은 **약속보다 우선하는 미각(palate over promise)**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기필코 나는 내 감각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의 수호 성인이다.
15. 그러나 그때 엿듣고 있던 리브가는 행동을 취한다(창 27:5-10). 리브가를 따라가며 **행동이 어떻게 믿음을 가리어 무색하게 하는지** 지켜보라. 그녀는 빈둥거리지 않는다. 무언가를 **행해야만** 했다. 리브가가 에서의 요리 솜씨에 반한 이삭의 모습에 기분이 조금 상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⁶ 어쨌든, 그녀는 염소 고기로도 동일한 별미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리브가는

⁶ Cf. Derek Kidner, *Genesis*,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ondon: Tyndale, 1967), 156. [“Ironically, even the sense of taste on which Isaac prided himself gave him the wrong answer. Rebekah had not the slightest doubt that she could reproduce Esau’s gastronomic masterpiece—had she often smarted under this? —in a fraction of Esau’s time.”]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의 수호 성인이다.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우리 손 외에는 손이 없으시고, 우리의 책략 외에는 책략이 없으신 신에 불과하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약속의 문제를 거론하지도 않고, 그 문제를 여호와와 손에 맡기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조작하고 속이려고 한다. 때때로 우리의 행동은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고 믿음을 대신하는 것일 수 있는데, 리브가의 행동은 후자에 속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의를 돌보기에 충분하지 못하시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우려고 한다. 하나님은 위대한 약속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자신의 약속을 돌보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지는 못한다.

16. 야곱의 반응에는 “어머니! 그건 아버지를 기만하는 거예요.”라고 지적한 것이 없다. 그는 리브가의 윤리가 아니라 그녀의 계획에 들어있는 결함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그것이 사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뜻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창 27:11-12). 철저하고 노골적인 거짓말에는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고(창 27:18-19, 24), 그는 거짓말을 성공적으로 하는 일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그의 원리는 **정의보다 우선하는 실용주의**(pragmatism over righteousness)이다. 그는 미국인이 있기도 전에 존재했던 전형적인 미국인이었다.
17. 리브가와 야곱의 “성공적인” 계약이 드러나자, 이삭은 깜짝 놀라고(창 27:33), 에서는 몹시 애석해하며 분노한다(창 27:34, 36, 38). 그러나 동정심이 우리의 이성을 흐리게 하기 전에, 우리는 창세기 25 장 29-34 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에서는 팔죽 한 그릇에 이미 그의 장자권(따라서 복에 대한 소유권)을 야곱에게 팔았다.⁷ 저자는 에서의 매매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이처럼 에서는 그의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창 25:34).” 우리는 에서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진정한 남자다운 남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탁월한 야외 활동가였다. 뒷주머니에 항상 들과 개울의 사본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상상된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이 이삭을 속인 것 때문에 에서가 몹시 해를 당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도 창세기 25 장 34 절은 그 문제에 있어서 꾸밈없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저자는 에서의 눈물(창 27:38)이 당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에서는 장자권과 그로 인한 복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팔죽이 더 중요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여기서 우리는 **감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것**(indifference in spite of emotion)이 에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⁷ John D. Currid, *A Study Commentary on Genesis*, 2 vols. (Darlington: Evangelical Press, 2003), 2:21; and Bruce K. Waltke,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363-64.

18. 위의 요약에서 나는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접근 방식을 강조해 왔는데, 각각의 경우에서 적용을 위한 "실마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그리고 본문이 지배한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인간 캐릭터(등장 인물)에 너무 매료되어 큰 요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⁸ 창세기 27 장의 끝에서 우리는 어디에 남는가? 네 명의 죄인들과 함께 남는다. 그들 모두는 여호와와 약속(창 25:23)을 어떤 식으로든 오용하거나 남용하면서 잘못을 저질렀다. 여호와께서는 리브가와 야곱이 그 약속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술책을 승인하셨는가?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삭이 그 약속에 완고하게 저항한 것을 승인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여호와와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와 약속은 그것을 방해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을 반대하거나 "도우려는" "자유롭고" 죄악된 의지의 그물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신다. 인간의 동의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인간의 저항에 직면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인간의 거역을 통해서 혹은 인간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은 실현된다. 그것이 그분의 백성에게 말할 수 없는 희망과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러티브에서 등장인물의 절차를 추적하며 적용에 대한 단서들을 찾는 것은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너무 사로잡혀서 본문에 계시되어 있는 무적(無敵)의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ii. 개념적 실마리 (Conceptual)

19. 어떤 내러티브 본문들은 우리의 사고를 요구하거나, 우리의 사고 방식의 변화를 원한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우리의 사고 방식과 씨름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어떤 본문들은 내가 개념적 적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알맞다. 요즈음 우리는 이런 적용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본문의 적용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우리의 의무를 설명하는 것을 선호한다. 모든 적용에 우리의 감정을 달래거나 우리의 행위를 지시하는 것은 포함되지만 우리의 사고 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 내러티브는 자주 우리가 생각을 바꾸거나 사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채택하기를 원한다. 몇 개의 예들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1) 최악의 시대 (The worst of times)

20. 열왕기상 16:29-17:1 을 보라. 저자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아합과 그가 들여온 새로운 이교 사상을 소개한다. 여로보암이 이미 금송아지 숭배로 이스라엘 위에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워

⁸ S. G. DeGraaf, *Promise and Deliverance*, 4 vols. (St. Catharines, Ont.: Paideia, 1977), 1:187.

놓았는데(왕상 12:25-33), 거기에다 아합은 이스라엘에게 바알 숭배라는 치명적 주사를 주고 있었다. 이 위험에 대하여 저자는 아합이 옛**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위한 단을 세우고, **바알**의 신전을 세웠다고 말하며(왕상 16:31-32) 거듭거듭 주입시킨다. 아합은 정말 그랬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그러한 때에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입니다(왕상 17:1).”

21. 로널드 월러스가 이 순간을 아주 잘 포착하여 설명하였으므로 나는 그의 글을 길게 인용한다.

엘리야는 깜짝 놀랄 만큼 갑작스럽게 현장에 나타난다. 사실, 그의 등장은 신비이다. 갑자기 왕 앞에 서 있는 엘리야를 보고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하여 좀 더 알고 싶어진다. 우리는 그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에서 하나님의 일에 관한 훈련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 우리는 어떻게 그가 그의 시대를 위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아합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그게 더 나을 것이다. 엘리야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악의 소용돌이를 볼 때 실망할 필요가 없음을 상기시켜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미 비밀리에 그의 역습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경우 상황은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 악이 관영할 때마다 그것은 늘 피상적인 관영이다. 그것은 악의 승리가 절정에 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며 자신의 대의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켜 줄 자신의 사람과 운동과 계획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⁹

22. 나는 월러스가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방식을 아주 잘 파악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허풍을 떨고 권력을 휘두르고 왕궁의 지원을 받는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에서 승리하고 있다.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난다. 그는 아합에게 풍요를 좇는 숭배가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지 묻고, 여호와께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풍요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통보한다. 그리고는 사라져버린다(왕상 17:2-3). 본문의 갑작스러움과 괴상함은 우리가 그러한 시대와 그러한 하나님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다.

⁹ Ronald S. Wallace, *Elijah and Elisha* (Grand Rapids: Eerdmans, 1957), 3.

23.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2 차 세계 대전 당시 유럽 연합군 총사령관 자리에 올랐다. 종전 후 인기의 절정에 힘입어 그는 1952 년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일정 기간 동안 “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아이젠하워는 주변의 “더 낮은” 사람이 사소한 일들을 처리해 주는 데 익숙해 있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누군가가 그에게 옷을 입혀 주기도 했다. 비서 존 모아니는 아이젠하워가 손목을 내밀면 그에게 시계를 채워주곤 했다. 그는 아이젠하워의 바지를 올려주곤 했다. 그러나 그런 생활 양식은 역효과를 낳았다. 공직을 떠난 후 아이젠하워는 백화점에서 물건값을 지불하는 방법, TV 를 조절하는 방법, 고속도로 요금 징수소를 통과하는 방법, 심지어 전화를 거는 방법도 거의 모를 정도였다.¹⁰ 정상의 자리에 있었지만, 실제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속수무책이었고 살아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24.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정통 교리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이 백성의 위급한 상황에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포착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한다. 우리는 여호와가 전능하시다는 것을 의문시하지 않지만, 때때로 그가 유능한 책임자인지 의아해한다. 자칫 잘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치 [속수무책의] 다곤신(삼상 5:1-5)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무력한 신” 증후군(“helpless god” syndrome = HGS)에 빠져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 17 장 1 절처럼 우리의 사고 방식을 교정하는 본문이 필요하다. 악이 성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덮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포착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엘리야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하나님께서서는 이미 비밀리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신의 역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과 “악의 승리가 절정에 달할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2) 산과 평지에 묶여 있는 지역신 개념 (Hills-and-plains theology)

25. 열왕기상 20 장에는 독자의 셔츠를 붙들고 “글쎄,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볼 것 같은 한 부분이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부분은 열왕기상 20 장 23-30 절이다. 이 내러티브를 자세히 살펴보자.

26. 벤하닷(아마도 벤하닷 2 세) 왕과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손에 비참한 패배를 당했을 때(왕상 20:13-21), 왕의 작전 참모들은 아람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수정된 계획을 주청드리고 있었다. 지난 번 이스라엘과의 교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사실, 점심에 벤하닷이 32 명의 왕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취한 것[왕상 20:16]을 하나 더 추가하면 세 가지

¹⁰ Cormac O'Brien, *Secret Lives of the U. S. Presidents* (Philadelphia: Quirk Books, 2004), 203.

문제라 할 수 있다.) 두 가지 문제 중 하나는 전략이었고(왕상 20:24-25) 다른 하나는 신학이었다(왕상 20:23). 후자가 듣기에 다소 고무적인 것은 작전 참모가 [다음과 같이] 기꺼이 신학을 논의하는 것을 보기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보다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지에서 싸운다면 분명 우리가 저들보다 강할 것입니다(왕상 20:23).

27. 그래서 벤하닷은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해가 바뀌어 전쟁을 할 때 아람 사람들은 긴네렛/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아벡을 진지로 선택했다. 그렇지만 아람 사람들의 신학은 하늘의 격분을 초래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와서 다음과 같은 확신을 주는 말을 전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람[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28 절).”

28. 이 내러티브의 핵심은 바로 이 잘못된 아람 신학, 곧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사고 방식(개념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신실한 독자라면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식으로든 내가 아람 사상을 흡수한 것은 아닌가?”라고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적절한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29.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의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우리는 적어도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아람 신학이 벤하닷 참모의 신학과 똑같은 형태를 취하지는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열왕기상 20 장 23 절을 보고 “어리석은 이방인들 같으니! 하지만 그 당시 그 멍청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어!”라고 말하기 쉽다.¹¹ 그러나 이 본문이 당신 자신(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오게 하려면, 당신은 이 아람식 사고 방식에 대하여 좀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아람 사람보다 더 세상 물정에 익숙한 죄인인 나는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능력을 국소화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께서 국가의

¹¹ 이것은 적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뚤어져 있고 자주 본문의 요점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본문을 **고대 문서로 치부해 버림**(이를테면, “그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그렇게 생각할 만큼 어리석었지만, 정통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결코 그처럼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함) 혹은 본문을 **일반화함**(예를 들면, “글쎄,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적용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본문의 요점에서 벗어나게 된다.

문제들을 다스리신다고 믿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나의 종양진료 약속에는 관심을 가지실 리 만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면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은 주님 앞에 삶의 세세한 일을(참고, 왕하 6:5—물에 빠져버린 빌려온 도끼) 말씀드리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국가의 군사 행동과 외교 문제를(참고, 왕하 5:1—여호와께서 나아만으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심) 명령하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거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증후군이다. 아니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일어났던 실망스러운 일들을 회고해 볼 수 있다. 어쩌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슬픈 어린 시절, 어렸을 때 어리석은 선택들, 상처가 나고 마비되어 버린 배배 꼬인 관계들이 생각날지 모른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상적인” 부류의 사람들, 곧 부모님 그리고(/혹은) 교회로부터 작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덕적 미궁에 빠져 튕구는 바구니 상자가 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구원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같은 소름끼치는 사람을 위한 구원주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서만 구원주이시고 당신이 있는 골짜기나 구덩이에서는 구원주가 아니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람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30. 이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나는 본문에서 “적용의 실마리”를 보는 것이 적용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다. 위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아람식 사고 방식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형태로 전환시켜야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당신 자신의 죄로 가득 찬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알렉산더 화이트의 말을 다시 음미해 보라.

31. 당신의 사고 방식과 씨름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본문을 만날 것이다. 그것들의 적용은 주로 당신의 생각과 관계가 있다. 그것들은 당신의 생각을 고정시키거나 강화시키려 하고, 당신의 생각을 변화시키려 하고, 아니면 적어도 당신의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려고 할 것이다. 여호수아서 2 장에 한 이교도 가나안 기생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해 보라. 적어도 당신의 생각을 자극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가? 연속되는 여호수아서 11 장 6 절과 7 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재간이 나란히 나오는 것은 어떤가?¹²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아무런 주의나 생각 없이 그것을 지나쳐 버리는 것을 바라시겠는가? 사사기

¹² [수 11:6-7] 6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7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 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9 장(적사사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당신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고요함(그리고 확실함)에 대하여 생각해보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¹³

iii. 상황적 실마리 (Situational)

32. 내러티브에 나오는 인물(들)이 처한 상황은 자주 적용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등장 인물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인물이 직면한 상황이 현대 청중에게 다리가 될 수 있다.

1) “이 일 후에 ...”와 관련된 어려움 (The trouble with “After these things ...”)

33. 사렙다 과부의 어려움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열왕기상 17 장 17-24 절을 보라.¹⁴ 특별히 열왕기상 17 장 17-18 절에 주목하라.¹⁵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다. 특이한 일은 아니다. 늘 일어나는 것이다. 항생제도 없다. 확실히 슬픈 일이다. 그러나 열왕기상 17 장 8-16 절은 그녀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배경을 제공한다. 거기에서 그녀는 극심한 기근 때문에 아들과 자신을 위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그 식사の一部를 달라고 요구했다(왕상 17:11-13). 그는 그녀가 그렇게 할 경우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해 줄 것이라는 여호와와 약속으로 그녀에게 동기를 부여했다(왕상 17:14). 그녀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항상 양식을 위한 가루와 기름이 있는 것을 체험했다. 따라서 여호와와 그 여인의 신실한 보호자이심이 판명되었다(왕상 17:15-16). 그러다가 아들이 병들어 죽고 만다. 그것은 감정적 고통만큼이나 신학적인 문제이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오시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갑자기 뜻을 바꾸신 것인가? 모든 것들을 고려해볼 때 여호와도 결국 이방신들처럼 잘 변하고 변덕스러운 신에 불과한 것인가?

34. 그러나 열왕기상 17 장에서 8-16 절이 17-18 절로 넘어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 이 과부는 믿음의 승리에서 슬픔의 골짜기로 넘어간다. 이렇게 인생의 다음 순간이 당신을 내동댕이쳐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할 수 있다.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진다. 이것은 많은 주님의 백성이 겪는 혼란 경험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헛살이

¹³ 이것에 대하여 나의 책 *Judges: Such a Great Salvation*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0), 127 쪽[= **사사기 주해**, 98-102(11 장, III. 심판의 과정)]을 참고하라.

¹⁴ 어떤 비평가들과 달리, 나는 열왕기상 17 장에서 17-24 절의 여인이 앞선 8-16 절의 여인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책 *The Wisdom and the Folly*, 219-221 쪽[= **열왕기상 주해**, 197-204(21 장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가?)]을 보라.

¹⁵ [왕상 17:17-18] 17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18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갑자기 탄갱의 진흙이 되어버린다. 그분의 불가사의한 섭리가 그분의 놀라운 섭리에 이어 강하게 다가온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설교자는 본문에서 이러한 문제 혹은 이러한 연속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청중 중 상당수는 이 과부의 딜레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를 얻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이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이제 막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야.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런저런 분명하고 뚜렷한 증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나를 매트에 내동댕이치신 것 같아.” 그런데 설교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가 없다. 그의 청중이 본문을 통해 그 문제의 동일성을 확인하게 되면 많은 격려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경이 그들을 **이해해 주는** 책이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경험이 유별나거나 이상야릇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기묘한 방식에 대한 성경적 패턴과 잘 어울린다고 확신할 것이다. 덧붙여 말할 것이 있다. 이 요점이 열왕기상 17 장 17-24 절의 유일한 요점은 아니다. 이 본문에는 이 요점보다 더 많은 가르침과 더 많은 적용들이 있다. 내가 아는 바(아니,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바), 이 본문의 주된 관심사는 여호와의 명예에 대한 것이므로 과부의 필요가 그것을 가리워 버리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¹⁶ 이 본문은 일차적으로 과부의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방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일들이 있는 후에(왕상 17:17a) ...”라는 어구에 주목하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일이 있는 후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과부 아들의 죽음이 일어난다. 폭풍이 하늘을 덮고 삶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¹⁶ 우리는 단락 안에 있는 사람의 필요나 조건이 본문의 해석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열왕기상 19 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엘리야가 교만, 공포, 자기 연민, 의기소침 등이 결합된 증상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매우 확신하는 아주 많은 독자들과 해석자들은 본문에 영향을 받는 대신 엘리야 자신의 주장을 진실의 겉모습 이상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이를 반대하는 내 자신의 노력을 보려면 나의 책 *The Wisdom and the Folly* (1 Kings), 257-275 쪽에 있는 “Shall the Psychotherapists Win? 심리요법 의사들이 이길 것인가?”라는 24 장[= **열왕기상 주해**, 232-250]을 참고하라.

[역자 주] 데이비스에 의하면, 왕상 19:10, 14 에 반복되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는 엘리야의 말은 자기 자신의 실패한 사역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선지자 말살 정책의 예로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배교를 책망하며 언약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데이비스는 왕상 18:22; 19:10, 14 에서 “I am left, I alone. 나만 홀로 남았다.”는 표현이 “I am the only prophet openly and visibly opposing the Baal machine. 내가 바알 숭배 조장 정책에 드러내 놓고 공개적으로 보일 수 있게 반대하는 유일한 선지자이다.”라는 뜻을 갖는 것으로 풀이한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많은 하나님 백성은 이러하신 하나님, 곧 기운나게도 하시고 당황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위로 들어올리기도 하시고 아래로 내동댕이치기도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미소 아래 두기도 하시고 갑자기 어두움 속으로 사라지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본문을 통해 이것이 성경의 전형적인 경험임을 확신시켜 줄 때, 그들은 이상하지만 놀라운 위로를 얻는다.¹⁷

2) 대(?)선지자 엘리사 (Elisha the Great?)

35. 열왕기하 4 장 8-37 절을 보라. 이 중 특히 25b-37 절에 주목하라. 이 수넴 여인도 급소를 공격받은 것처럼 녹초가 되어 버린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약속한 아들이 태어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죽어버린다(왕하 4:18-20). 그녀는 서둘러 그 선지자를 찾아간다.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이르자 그녀는 예의 범절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지자의 발을 붙잡고 고통을 토로한다(왕하 4:26-27a).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다가가서 그녀를 떼어 놓으려고 한다. 엘리사는 그를 말리며 말한다. “그녀를 그대로 두어라. 그녀가 쓰라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께서(강조) 그것을 나에게 감추시고 아무 말씀도 해 주지 않으셨다(왕하 4:27b).”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수넴으로 달려가 그 죽은 아이 위에 엘리사의 지팡이를 놓으라고 명령한다(왕하 4:29). 명령이 시행되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왕하 4:31). 그래서 엘리사가 도착했을 때 그의 유일한 의지 수단은 여호와께 생명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였다(왕하 4:33). 본문은 엘리사가 지혜(왕하 4:27)와 능력(왕하 4:31, 33)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묘사한다. 여기서 선지자의 상황이 적용을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적용은 두 가지 방향을 취할 수 있다. 우선, 그것은 대조의 길로 갈 수 있다. 여기서 엘리사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며 (자신의 잘못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의 한계 속에서 수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탁월한 선지자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는 어두움 속에 남겨지지 않고(참고, 요 5:20), 죽음 앞에서 기도로만 그치지 않고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눅 7:14-15). 엘리사의 한계들은 예수님의 충족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해 준다. 우리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

¹⁷ 삼상 30:1-6 에 묘사된 다윗의 경험에도 좀 비슷한 연속이 있었음을 참고하라. (사무엘상 29 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워야만 하는 일로부터 놀랍게 면제되었다. 바로 그 다음에 (사무엘상 30 장에서) 그가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성읍이 불태워지고 여인들과 자녀들이 사로잡혀간 것을 알게 된다.

36. 우리는 또한 우리의 상황과 유비되는 엘리사의 상황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선지자가 아니다. (적어도 나는 아니다. 나는 엘리사처럼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통속적인 위치에서 동일한 한계에 대하여 좀 알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져 조언을 구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감추시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나는 지혜가 그렇게 부족하고 사람들의 뒤틀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찢찢매는 것을 싫어하지만, 엘리사의 상황은 나에게 위로가 된다. 모든 사람의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내가 “답”을 제시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역할을 수행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혹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어야 하는 불가능한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
37.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적이 없으시다. 마침내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그것이 목회 사역에서 얼마나 많은 짐을 덜어주는지! 사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38. 폴 트립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있었던 가족 에피소드를 이야기한다. 한 아들이 뒷마당에서 갈퀴 자루로 돌을 치며 “야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세 살배기 동생이 뒷마당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형의 갈퀴 자루에 의해 가속도가 붙은 딱딱한 돌이 날아가는 길로 들어섰다. 그 돌은 그의 이마를 강타했다. 그건 결코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계속 많은 피가 나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위급 상황으로 변했다. 폴은 상처의 정도를 보려고 피를 닦아냈다. 그의 어린 아들 다네이는 조용히 누워 있었고 외관상 평온해 보였다. 폴은 그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네이의 입 가까이에 다가가 들어보았다. 폴은 자기 아들이 거둬 거둬 “아빠가 의사라서 정말 다행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아이는 자기 아빠가 이름 앞에 “닥터(Dr.)”를 갖고 있고 때때로 사람들과 약속을 잡는 것도 알고 있었다.¹⁸ 그러나 머리를 다친 사람에게 철학박사(Ph.D.) 학위는 별로 쓸모가 없다. 그는 자기 아빠의 한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
39. 목회 사역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엘리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로 간청할 수밖에

¹⁸ Paul David Tripp,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2002), 42-43.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어찌 부끄러운 일이라 할 수 있는가? 우유부단하고 성경적 해답을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옹호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지금 다른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성경의 권위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사람들의 상황을 평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신의 능력을 중요시한다. 종종 이것은 순전히 오만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께서 어쩌면 이번 한 번만은 그들에게 감추신 것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iv. 논평적 실마리 (Judicial)

40. 때때로 성경 저자는 등장 인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며 독자들이 그 논평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레이터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은 자주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내러티브는 본질적으로 교훈적이기보다는 묘사적이고,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이고, 분명하기보다는 미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러티브 저자가 판단을 내릴 때는 우리는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 나는 그 논평이 적용을 위한 또 하나의 유익한 “실마리”가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내가 사용하는 “judicial 논평적”이란 용어는 저자의 평가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내리는 법정의 이미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41. 사건에 관한 저자의 직접적인 논평은 종종 우리에게 어쨌든 적용 전에 가져야 할 적절한 관점을 제공한다. 창세기 25 장 34 절의 마지막 부분 즉 “이렇게 에서는 그의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논평은 참으로 도움이 된다. 그것은 창세기 25 장 27-34 절에 있는 에피소드를 살펴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저자는 야곱이 치사한 기회주의자라고 말하지 않고 에서가 연약적 문제들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27 장에 나오는 에서의 분노와 슬픔을 고찰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1) 더 나을 뿐 여전히 나쁜 (Better yet bad)

42. 쉽게 지나쳐 버리기 쉬운 본문인 열왕기하 3 장 1-3 절을 살펴보자. 그것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통치에 대한 서론적 논평이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계속해서 읽고 있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북 이스라엘 왕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왕하 3:2a).”라는 말씀을 읽을 때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갑자기 우리는 여호람의 악에 특이한 요소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여호람의 악이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의 악만큼 나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람이—적어도 당분간은—“바알의

주상”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것과 같은 죄에 매여 그것을 떨쳐버리지는 못하였다(왕하 3:3).”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여호람의 행위가 저자에게 인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여호람은 심각한 죄에 대하여 좀 가벼워졌을 뿐이고 표준적인 죄는 계속 짓고 있었다. 여로보암의 왜곡된 종교(왕상 12:25-33 참조)가 정부의 지원 아래 오랫동안 시행되어온 것이라고 해서 저자의 불관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여호람이 (될 수 있었던 만큼)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되어야만 했던 만큼) 그렇게 의로운 왕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거룩한 불관용으로 인하여 언짢았던 것처럼 보인다. 바알 숭배는 덮어서 제지시켰지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가 계속되게 한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다. 제 일계명과 제 이계명에 관하여 여호람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¹⁹

¹⁹ [역자 주] 일계명과 이계명의 차이는 문화 배경과 긍정적 진술과 부정적 진술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어떤 형상으로 가시화되었다. 신을 나타내는 형상은 해와 달과 별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을 가까이 두도록 해 주는 통로이었다. 사람들에게 신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것들을 나타내는 형상을 통하여 가까이 있었다. 이런 문화 배경에서 보면 제 1 계명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이외에 거짓 신들을 섬기며 그 거짓 신들의 그 형상에게 절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명령인 반면 제 2 계명은 거짓 신들이 그들을 나타내는 형상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경우에도 여호와를 나타내는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만들어서 그 형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2) 긍정적으로 진술하면, 제 1 계명은 경배의 참된 대상(whom we worship)과 관련이 있고 제 2 계명은 경배의 참된 방법(how we worship)과 관련이 있다. 일계명은 참된 하나님(Right God, True God)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이계명은 참된 하나님을 올바르게(Right Way, True Service) 경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일계명은 구원을 줄 수 없는 모든 신들을 배제하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유일한 참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분만을 섬길 것을 명하는 반면 이계명은 (일계명을 통해 모든 거짓 신들을 배제하고 홀로 남은) 유일한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하신 대로 경배할 것을 명한다.

3) 부정적으로 진술하면, 제 1 계명이 거짓 신들(false gods)에게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반면 제 2 계명은 참 하나님을 거짓된 방법(false ways)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한다. 일계명은 구원을 베푸시는 참된 신이 아닌 거짓 신들(false gods)을 금하고 이계명은 참된 하나님을 형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짓 예배(false worship)를 금한다. 일계명은 다른 신들(other gods)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이계명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다른 방식들(other ways)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한다.

43. 존 파인스타인은 **내전**(*A Civil War*)이라는 책을 썼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대학 축구”라고 부르는 것의 라이벌 의식에 관한 것으로, 특히 메릴랜드 아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뉴욕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의 1995 년 축구 시즌에 관한 것이다. 그는 그 해 육군사관학교와 거의 영구적인 강팀 노트르담 사이의 경기에 대하여 말한다. 노트르담이 초반부터 앞서 나갔지만, 뒤쳐진 육군사관학교가 정신을 가다듬고 점수를 내기 시작했다. 사관학교가 경기가 거의 끝날 무렵 터치다운을 했다. 이로 인해 경기 점수는 노트르담이 한 점 앞선 28 대 27 이 되었다. 축구 규칙에 따라 사관학교는 이 터치다운 이후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들은 골대를 통과하도록 공을 차서 “추가 점수” 곧 한 점을 더 얻어서 노트르담과 28 대 28 을 만든 후 연장 경기를 하여 승부를 가리는 길로 갈 수 있었다. 이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의 확실한 길이었다. 아니면 그들은 엔드존에서 3 야드 떨어진 곳에서 공을 가지고 달리거나 패스함으로써 2 점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었다. 그것은 더 어려운 길이지만 성공할 경우 29 대 28 로서 한 점 차이로 이기는 길이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확실한 한 점을 얻는 쪽을 택하여 노트르담과 동점을 만들고 연장 경기를 통해 노트르담을 물리치고 노트르담의 자랑스러운 평판에 오점을 남기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실패하면 사관학교가 지는 것을 알면서도 2 점을 추가해 승리하는 길로 갈 것인가? 그 선택은 사실 어렵지 않았다. 서튼 코치와 사관학교 선수들은 노트르담과 동점을 만드는 길로 가지 않았다. 그들은 이기기 위해 왔기에 2 점을 추가할 수 있는 길로 갔다. 하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사관학교는 28 대 27 로 졌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택을 칭찬할 수 있다. 지고 말았던

4) 솔로몬(왕상 11:4-8)은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제 1 계명을 범하는 대표적인 예를 제공하였다. 모세의 형 아론과 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1 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고 말하며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함으로써 제 2 계명을 범하는 대표적인 예를 제공하였다(출 32:1-8; 왕상 12:28-30).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왕상 14:16; 15:30, 34; 16:2, 19, 26, 31; 21:22; 22:52; 왕하 3:3; 10:29, 31; 13:2, 6; 14:24; 15:9, 18, 24, 28, 34; 17:21, 22; 23:15; cf. 역대하 13:8)”는 여호와를 나타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고(왕상 12:30) 헌신하게 하고(cf. 호 4:17) 입 맞추게 한(cf. 호 13:2) 것이다. 아합(왕상 16:30-33)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바알 숭배를 장려함으로써 제 2 계명과 제 1 계명을 동시에 어기는 일을 저지름으로써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 예후(왕하 10:23-29)는 오므리 왕조(오므리-아합-아하시야-요람[여호람])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바알을 멸함으로써 제 1 계명 준수에는 성공했으나 여로보암의 죄 곧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음으로써 제 2 계명 준수에는 실패하였다

경기이지만 올바른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축구 경기는 비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이기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

44. 나는 열왕기하 저자가 잘 이해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자, 여기 여호람이 있다. 그는 악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합보다는 덜 악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소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만족해하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 “여호람은 실제로 결코 의롭지 않았다. 다만 아합보다는 의로움에 조금 더 가까이 있었을 뿐이다.”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로보암의 죄들에 매여 있었다.”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 배후에 있는 저자의 격노에 찬 불만족을 느낄 수 있다. 저자는 누가 그 정도에 만족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신명기 6 장 5 절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단 하나의 거룩한 열정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몇 가지 하찮은 대용품에 기뻐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내가 다른 곳에서 쓴 것처럼 “절대적 충성 이외에 어떤 것도 거부하는 성경의 이러한 참을성 없음은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불관용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²⁰

45. 이 모든 것이 적용을 세부적으로 하도록 해 주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예들을 가지고 살을 붙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바라건대 적용의 방향만은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적용은 성경 저자가 내린 판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따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2) 하나님께서 주신 논평 (God-speak)

46. 1920 년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이었던 칼빈 쿨리지는 침묵과 말수 적은 것으로 유명했다. 부통령 시절 쿨리지에 대한 일화가 있다. 저녁 만찬 파티에서 쿨리지의 옆에 앉아 있던 여인은 그날 일찍 자신이 그로부터 두 단어보다 많은 말을 하게 할 수 있다는 내기를 걸었다고 하며 꼭 말을 해 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쿨리지는 그녀를 향하여 아주 정확하게 “당신이 졌소(You lose).”라고 대답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내레이터들은 쿨리지와 매우 흡사하다. 그들은 과묵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직접 나서서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말하는 대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독자로 자신의 생각을 추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내레이터가 솔직하고 직접적인 평가를 주는 때들도 있다. 그래서 저자가 논평을 줄 때 우리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익한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하나님 자신이 내러티브 본문에서 논평하실 때는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²⁰ 2 Kings: The Power and the Fury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5), 43.

47. 욥기 42:7-8을 예로 들어 보자.

[개역개정] (7)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저자의 강조]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48. 물론 욥기의 대부분은 내러티브가 아니고 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욥기는 내러티브(1-2장 그리고 42:7-17)가 외곽 틀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 마감하는 내러티브 부분에는 욥에 대한 여호와의 아이러니한 변호가 나온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에서처럼 그를 “내 종 욥”이라고 부르며 그의 말이 옳았다고 여기신다(욥 42:7, 8). 욥기 42장 8절 상반절에 나오는 “욥, 내 종”은 강조적이며 (친구들의 견해로는) 죄인인 욥이 (하나님의 견해대로) 중보자 욥이 되어야 하는 아이러니를 강화시킨다.

49. 여호와께서 욥이 여호와에 대하여 “옳은 (혹은 확실한) 것”을 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상적이다. 나는 여호와께서 지적하신 “옳은 것”이 욥기 42장 5-6절에 나오는 욥의 “회개”만을 가리킨다는 딜러드와 롱만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²¹ 친구들의 모든 말—그리고 그러므로

²¹ Raymond B. Dillard and Tremper Longman III,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4), 208. 욥기 42 장 6 절의 원문이 올바르게 번역되면, “회개”는 사실상 어울리지 않는다. 첫 번째 동사 [엡아스 < 마아스]가 “내 자신을 멸시하다(RSV, NIV, ESV: despise myself)”는 재귀의 의미로 번역된 것은 잘못되었다. 이 히브리어 동사는 재귀의 의미가 아니다. 원문에는 재귀대명사 “myself 내 자신”이 없다. 번역자들의 추측일 뿐이다. 특별히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동사는 단지 “내가 철회한다, 내가 거절한다, 내가 멸시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무엇을 철회하는지 혹은 무엇을 거절하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문맥상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욥은 지나치게 말했던 자신의 말을 거절한다(JB: “**I retract all I have said, and in dust and ashes I repent.**”; NLT: “**I take back everything I said, and I sit in dust and ashes to show my repentance.**” cf. 욥 42:3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니면 욥은 자신의 여호와에 대한 이전의 불완전하고 간접적인 지식(욥 42:5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을 거절한다. 나는 후자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히브리어 동사는 보통 “회개하다”로 번역되는 [나함]이다. 그것이 “회개하다”로 번역되면 어떤 종류의 회개를 의미하는가? 여호와께서 욥에 대하여 특별한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욥 40:1-2, 6-8 을 유의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죄에 대한 회개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욥의 모든 말—이 고려된 것이다. 그렇다면 엘리슨의 다음 말은 아주 적절하다.

욥기 42장 7절의 참뜻은 욥이 아무리 어리석게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경험을 이해해 주실 만큼 크신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그의 친구들은 아무리 현명하게 그것을 말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견해에 순응해야 할 만큼 작으신 하나님을 옹호하고 있었다.²²

50. 그러므로 욥이 “옳게” 말한 것을 예로 든다면 욥기 3:11-12, 20, 23; 7:19-21; 30:19-21 등이

여호와께서는 욥기 42 장 7 절에서 욥이 여호와에 관하여 “옳은 것”을 말했다고 욥을 옹호하셨다. [나함]은 하나님에 대하여(동사 단독으로 혹은 부정하는 말과 함께) 약 25 번 정도 사용되었다. 이 경우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는 것”, 혹은 그분의 판결이나 제시된 행동 방침을 “돌이키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욥은 [나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저의 판단을 돌이킵니다. 제가 저의 요구를 철회합니다. 더 이상 당신님과 저의 사건을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당신님이 저에게 당신님이 저를 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나함]은 또한 “자신을 위로하다/위안하다”는 뜻을 갖는데, 그것이 여기에서의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 이 동사는 욥기 2 장 11 절에서 욥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온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욥의 친구들이 하지 못한 것을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욥은 “띠끌과 재 위에서 제가 제 자신을 위로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게 아니다. 욥이 ‘띠끌과 재 가운데서’ 그렇게 했고 띠끌과 재는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은 ‘(죄에 대해) 회개하다’라는 의미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하며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띠끌과 재는 욥이 앉아 있었던 성읍 쓰레기장, 곧 작은 언덕을 나타낸다. 만일 “띠끌과 재”가 어떤 것을 상징한다면 그것은 욥의 고립된 상태를 상징한다. 더욱이 “띠끌과 재 가운데서”라는 번역은 서투른 번역이므로, 보다 적절하게 “띠끌과 재 위에서”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띠끌과 재는 욥의 태도와 아무런 상관 없이 오히려 욥이 있던 장소와 상관이 있다. 욥이 성읍의 쓰레기 더미 위에서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찾아오신 것에 비추어 욥이 고독과 분리의 장소에서 자신을 위로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매혹적이다. 이상의 논의를 따라 번역해 보면 “Therefore I reject [my former, second-hand knowledge of you] and I comfort myself upon dust and ashes. 그러므로 저는 [당신님에 대한 저의 이전의 간접적인 지식을] 거절하며 띠끌과 재 위에서 제 자신을 위로합니다.”가 될 것이다. 이 번역은 분명히 우리가 책 전체를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그것이 작품의 중대한 일관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내가 트리니티 복음 신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의 구약 시가서 수업에서 이러한 대안적 이해를 처음으로 제안해 주신 G. 더글라스 영 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²² H. L. Ellison, *From Tragedy to Triumph* (Grand Rapids: Eerdmans, 1958), 126-127. 이것은 (*ISBE*의 구판 3:1685 에서) 게능(Genung)으로 이렇게 외치도록 인도한다. “욥의 정직하고 굉장히 계시적인 말들, 분노, 항변, 하나님의 길에 대한 대담한 비난까지 모두 ‘옳은 것’이었다. 성경 전체에서 이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선언은 없다.” 아울러 로버트 피올(Robert Fyall)이 그의 훌륭한 책 *How Does God Treat His Friends?* (Ross-shire: Christian Focus, 1995), 135-138 쪽에서 논의한 것도 참고하라.

포함된다.²³ 그의 모든 실망, 괴로움, 고발, 그리고 공포도 포함된다. 그리고 여호와에 의하면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들은 그분에 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술도 많이 했고 그들의 조직 신학의 많은 부분도 목표에 부합했다.²⁴ 그것의 많은 부분은 잘 구성되었고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그러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나에 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역설하신다.

51. 우리가 욥기를 끝까지 명확하게 읽었다면, 그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욥은 그들처럼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친구들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계속했다. 어쨌든 욥은 친구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계속했다. (욥 7:7-21; 9:28-31; 10:2-22에 주목하라. 욥기 7장 7절에 나오는 “remember[개역개정: ‘생각하옵소서’, 새번역: ‘기억하여 주십시오’]”는 명령형 단수이다.²⁵ 그러므로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²⁶

²³ [역자 주] 저자 데이비스가 여기서 지적인 욥기의 구절들을 개역개정을 따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욥 3:11-12, 20, 23] 11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2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 20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 23 하나님에게 둘러 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욥 7:19-21] 19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20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21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흠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욥 30:19-21] 19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20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21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²⁴ 내가 교회의 편지지 윗머리나 교회 주보에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혹은 엘리후로부터 (분명한 승인과 함께) 취한 인용 글귀를 볼 때마다 그것은 여전히 나를 오싹하게 한다.

²⁵ [욥 7:7 새번역]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²⁶ Franz Delitzsch, *Bibl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Job*, 2 vols. [1872;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49], 1:160: “욥이 기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함이 없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비록 그가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았다고 느낄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한 채로 남아 있었다.”

말이 난 김에 하는 말인데, 본회퍼는 타락은 하나님에 **관한**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대화를 포함하였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였다.²⁷

52. 여기 욥의 친구들에 대한 여호와의 논평이 있다. 그들이 여호와에 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평은 우리를 개인적 적용으로 몰고 가야만 하는 근엄한 말이 아닌가? 이 본문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끊임없이 떠오르도록 우리 서재의 벽에 걸려 있어야만 하지 않는가? 이 진술이 공적 혹은 사적 예배에서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준비하는 모든 예배자의 양심에 돌진해 오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신중하게 말을 골라서 발언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얼마나 쉽게 잘 지껄여대는지 모른다. 이것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주의 사항은 바로 매주 목회자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왜곡하거나 시시한 것으로 만들거나 곡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53. 페기 누난은 1981년 3월 로널드 레이건이 총격을 받고 조지 워싱턴 대학 병원의 응급실로 급히 실려 가던 날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도중에 기침하며 피를 토하고 있었을지라도 그가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레이건은 혼자서 리무진에서 나왔다. 그리고서 그는 똑바로 서서 명치를 들여당기고 바지를 위로 잡아당기고 웃웃에 단추를 채웠다. 응급실에 들어갈 때에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자신을 잘 추스린 레이건 전 대통령다운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는 30피트 정도 가다가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했다.²⁸

54. 그러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의 숨구멍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신경 써야 한다. 우리의 가르침과 신학 작업을 위해 중보 기도와 속죄의 사역이 필요한 때들이 수없이 많지 않은가(욥 42:8-9)? 우리의 설교와 예배와 신학적 토론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져와서 그것들의 왜곡과 경솔함을 씻어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 여기서 여호와는 모든 신학자의 지속적인 필요, 즉 그가 속죄와 기도 아래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지 않는가? 적용을 위한 실마리를 하나만 더 살펴보자.

참고, F. I. Andersen, *Job*,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76), 98: “그의 기도들은 그의 종교적인 친구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이지만, 적어도 그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듯하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드렸다.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말했다. 욥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그리고 이것이 욥기에서 그를 유일한 진정한 신학자가 되게 한다.”

²⁷ D. Bonhoeffer, *Creation and Fall/Temptation* (New York: Macmillan, 1967), 69.

²⁸ *When Character Was King* (New York: Viking, 2001), 170-71.

v. 송영적 실마리 (Doxological)

55. 자주 내러티브들은 내가 “송영적” 적용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가 찬양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적용”에 대해 생각할 때 인간의 필요나 “나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다루려고 하므로 여기서는 “송영적” 적용의 한 가지 예만 들려고 한다.
56. 우리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의 일부인 열왕기하 4장 8-17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자신에 대한 그녀의 친절에 대하여 보답하기를 원하던 선지자는 그녀의 상황에 대한 사환 게하시의 배경 조사를 통해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그녀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왕하 4:14-16a). 그녀는 그 생각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왕하 4:16b) 한 해가 지나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는다(왕하 4:17).
57. 이 본문을 다루기 위해 다리품을 파는 것은 도움이 된다.
- 1) 첫째로, 열왕기하 4장 16절과 17절에 사용된 “회생하는 때에(at the time of reviving), 철이 돌아오면, 내년”이란 어구는²⁹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과 씨름하던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에만 나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 둘째로, 이것은 불임 여인에 대한 전체 패턴을 상기시켜주며 사라(창 11:30 이하), 리브가(창세기 25장), 라헬(창세기 29-30장), 마노아의 아내(사사기 13장), 아마도 롯(롯기 1장, 4장), 한나(사무엘상 1장), 그리고 엘리사벳(누가복음 1장)을 생각나게 해 준다.
 - 3) 셋째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열왕기하 4장의 상황이 다른 모든 불임 상황들보다 더 독특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모든 어머니들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조력자/구원자이거나 생물학적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4장의 아들은 이름도 없고, 이스라엘의 자체 생존 유지에 필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아는 한 가족의 농장에서 일하는 것 이외에 다른 괄목할 만한 일을

²⁹ [역자 주] לְמוֹעֵד הַהֵוא כְּעֵת חַיָּה YLT: At this season, according to the time of life; KJV: (About this season) according to the time of life; NASB: (at this season) next year; ESV: (at this season) about this time next year; NIV/ISV: (about this time) next year; HCSB: (at this time) next year

개역개정: 창 18:10 내년 이맘때에; 창 18:14 기한이 이를 때에;

왕하 4:16 한 해가 지나 이 때쯤에; 왕하 4:17 한 해가 지나 이 때쯤에

새번역: 창 18:10 다음 해 이맘때에; 창 18:14 다음 해 이맘때에;

왕하 4:16 내년 이맘때가 되면; 왕하 4:17 다음해 같은 때에

하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송영을 준비시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는가?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아들로 인해 행복해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건 그만큼 간단하다.

- 4)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행복하게 하실 때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 틀림없다. 그가 그렇게 하시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 본문은 당신이 숭배의 자세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무릎을 잡아당기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그러는가? 글썄, 여기에 그의 백성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마 7:11)”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선물들이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기쁨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때때로 이것이 성경 본문이 주려고 하는 유일한 “적용”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본문이 의도하는 유일한 적용일 경우가 있다. 때때로 그건 그만큼 간단하다.

III. 마감을 위한 또 하나의 주의: 내러티브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라! (We end with another caution—don’t claim too much from narrative.)

58. 사무엘상 26장의 이야기는 스틸 넘치고 제산제 같은 에피소드이다. 거기에서 다윗과 아비새는 잠든 사울 곁이나 그 위에 서서 사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쟁하고 있었다. 둘 다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비새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유능한 종인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삼상 26:8). 다윗 자신도 신학에 서투른 사람이 결코 아니므로 원리(삼상 26:9), 섭리(삼상 26:10), 양심(삼상 26:11a)에 호소했다. 다윗은 아비새를 막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의 물병과 창만을 훔치고서 그 진영으로부터 급히 빠져나왔다(삼상 26:11b-12a).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사울이나 그의 일류 용사들의 어느 하나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던 이유(삼상 26:12b—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음)에 대해 듣는다. 그리고 다윗이 안전한 거리에 있는 먼 산 꼭대기에 이른 것을 묘사하는 즐거운 장면이 나온다(삼상 26:13). 다윗은 용사 아브넬을 깜짝 놀라게 하며 허울만의 보초 임무 수행에 대해 그와 나머지 용사들을 꾸짖는다(삼상 26:15). “군율”에 의하면 그런 직무 태만은 마땅히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삼상 26:16a). 다윗은 그들에게 “꾸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이 있었다(삼상 26:16b)!

59. 이 이야기로부터 어떤 적용(들)을 해야 할지 고려할 때, 적에게 교묘한 속임수를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임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다윗의 혜택 중 어느 것이 필연적으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나의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님은 불가사의하게 다윗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는가? 물론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당신은 나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사울”이 아마도 나를 붙들 것이다. 혹은 암, 혹은 토네이도, 혹은 (그런데 고속도로보다 더 위험한) 월마트 주차장에서의 교통사고가 나를 붙들 것이다.

60. 그래서 나는 묻고 싶다. 다윗이 여기서 조마조마하지만 그토록 뛰어난 보호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정하신 여호와께서 그 직분을 위해 다윗이 보존되도록 돌보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속적-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나보다 혹은 당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당신의 지역 시민 자유 협회를 통해 고소를 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특별한 직분에 임명하셨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는 그런 운명을 다하도록 보존되어야만 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한 정해진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다윗과 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무엘상 26장을 근거로 내가 다윗처럼 완벽하게 보호받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없다.

61. 사실 이것은 자주 일어나는 잘못된 방식이다. 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다. 나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경향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자주 (적어도 처음에는 아닐지라도) 강조를 두어서는 안 되는 곳에 강조를 두게 만든다. 그러나 내가 나의 눈을 들어 여호와께로 향하고 사무엘 26장에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물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나는 여호와께서 무엇보다도 그의 갈가리 찢긴 종 다윗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 다윗과 아비새가 왕의 진영 가운데서 전혀 해를 받지 않은 채 서 있었다는 사실, 사울이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 사실, 그들이 마음만 먹었다면 사울을 제거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 사울의 지위의 상징물(곧 그의 창)을 훔쳐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이 모든 것은 다윗의 마음에 엄청난 격려를 주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분명히 다윗을 위한 표징, 곧 사울의 권력은 사라지고 어떤 것도 다윗이 왕국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표징이었다. 이것은 사무엘상 26장이 나의 경우에 전혀 적용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여기서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분은 자포자기한 자신의 종에게 격려의

증거들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인다. 물론 나에게는 다윗처럼 구속적-역사적 “중요성”이 없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통하여 다윗의 하나님을 안다면, 십중팔구 그분이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판명될 것이 아니겠는가? 당신은 더 좋은 것을 선호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호와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성향**에도 만족한다. 몸을 굽혀 자기 종들의 난감한 상황들을 내려다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것은 전형적인 여호와의 사역이다.

62.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가끔 들었던 “복음 성가들” 중 하나가 기억난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셨던 것을 당신을 위해서 하실 것이다.” 리듬은 좋은 곡이지만 해석학적 원리는 좋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셨던 것을 당신을 위해 하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 사무엘상 26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어떠하심]이 앞으로 당신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격려를 주고 있다. 정말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충분해야 한다. 사무엘상 26장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본문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상황은 다윗이 속한 하나님의 성품만큼이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항상 보물을 발견한다.

8 장 중심점: 하나님 중심의 관점 (center: theocentric view)

1. 워커 퍼시의 소설에 재미있는 문이 하나 있다. 그는 자칭 골프 프로인 루이스 페캄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에게는 공간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는 부분들이 서로 붙어 있지 않았다.”¹ 허구적인 루이스의 경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사실이어서는 안 된다. 성경 해석은 합쳐지고, 통합되고, 적절한 초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 의견으로는 우리의 모든 성경 해석을 떠받치는 최고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에 관한 계시로서 자신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나는 그분과의 만남을 갈망할 것이고 그분은 내 연구의 초점이 될 것이다.

2.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구약 내러티브를 읽어야 한다. 내러티브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자신에 관하여 무엇을 계시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주목해야 한다.²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즉시 반대하며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다른 한 쪽의 끝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신학적”이 되기 전에 “실존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의 성경 연구가 당면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지 않는가? 이에 대하여 나는 논쟁하고 싶지 않다. 다만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백성의 필요도 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그것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리고 나의 방식이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은 성경의 하나님만큼 충격적이고, 놀랍고, 꾸준하고, 매혹적인 분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해석학적 조언은 성경 해석이 정확하고 흥미롭고 풍부하고 적절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약 내러티브를 해석할 때 “중심(점)”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I. 일관된 관점 (A Constant Perspective)

3. 이 말은 이미 말했듯이 항상 하나님 중심적 관점에서 본문을 보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관행이자 통상적인 접근 방식이 되어야 한다.

¹ Walker Percy, *The Second Coming* (New York: Farrar, Straus, Giroux, 1980), 152.

² 당신은 폴 하우스(Paul R. House)의 책 *Old Testament Theology*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8)의 개요와 전개에서 구약의 모든 가르침에 대한 요약의 볼 수 있다.

i. 유혹이 문을 두드리면, 굴복하라? (If Temptation Knocks, Yield?)

4. 창세기 39장을 보라. 그것은 창세기 37장만큼 어렵지도 않고 창세기 38장만큼 무섭지도 않다. 보디발의 아내는 확실히 창세기 39장을 흥미롭게 한다. 사실, 그녀는 요셉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 창세기 39장 7-12절에 끌려서 “유혹에 저항하는 원리들”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부분에서 적어도 네 가지 원리를 끌어낼 수 있다. 당신은 이보다 더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5. 그러나 우리가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눈을 떼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거나 단순히 본문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저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창 39:2, 3, 21, 23).”라는 뚜렷한 신학적 강조로 감싸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이 요지가 내러티브의 시작 부분에 두 번(창 39:2, 3) 그리고 끝 부분에 두 번(창 39:21, 23) 나온다는 사실은 전체 이야기의 모든 내용이 여호와께서 자기 종과 함께 계심을 묘사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누렸던 여러 가지 상황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이 (1) 버림을 당할 때에(창 39:1-6), (2)유혹을 받을 때에(창 39:7-18), 그리고 (3)환멸을 느낄 때에(창 39:19-23)³ 그와 함께 계셨다. 이것은 저자가 표명한 신학적 강조와 더 많이 일치하지 않은가? 그것은 “유혹에 저항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 풍부한 적용의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은가? 나는 우리가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와의 만남을 분석하고 거기서 실질적인 도움을 끌어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결국 창 39:9의 신학에 유의하라).⁴ 그러나 그것에만 집중할 경우 우리는 저자가 여호와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을 놓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네 가지(혹은 그보다 더 많은) 원리를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저자의 암묵적 주장을 무시할 수도 있다. 당신은 우리의 부적절한 해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 있는지 볼 수 있는가? 감사하게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그렇지만 어쩌면 너무 많은 해석자들이 그녀와의 해석학적 동침에 유혹을 받아왔는지도 모른다.

³ 마지막 항목에서 내가 좀 과장했을 수도 있다. 다만 나는 요셉이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웁은 일을 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주인을 공경했으나, 모든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결국 감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때—그것을 어떻게 보았을지 포착하려고 “환멸을 느꼈을 때”라고 했을 뿐이다.

⁴ [창 39:9]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ii. 신학으로 가득 찬 (Riddled with theology)

6. 사무엘상 16장 1-13절을 보라. 이 이야기를 간단히 분해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나열할 수 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오다, 삼상 16:1-5

사무엘의 잘못된 판단, 삼상 16:6-7

난처한 순간, 삼상 16:8-11

다윗이 도착하다, 삼상 16:12-13

7. 그러나 이것은 설교가 되지 않을 것이고, 설교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 물론 우리는 사무엘상 16 장 7 절에 주목하고 그것이 중요한 신학적 요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⁵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옳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 단락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인간 등장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몇 가지 장면이 아니라 암송아지조차도 나름대로 기여하는 일이 들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단락을 다음과 같이 다루는 것을 더 좋아한다.

I. 자신의 왕국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삼상 16:1

II.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낮추시는 하나님, 삼상 16:2-5a

III. 우리의 어리석음을 막으시는 하나님, 삼상 16:5b-7

IV. 우리의 관습을 뒤집으시는 하나님, 삼상 16:8-13

8. 이것은 설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요점에서 나는 사무엘이 사울에 대하여 슬퍼했던 것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분명 사무엘은 사울에 대하여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공개적으로 버리셨기 때문에 적어도 사무엘은 어떤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덮치게 될 것을 우려하며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주시며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위한 왕을 보았기 때문이다(삼상 16:1).”라는 말씀에서 밝혀진다. 사무엘에게 왕국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다음 단계를 아시며 왕국이 지속되는 데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 어느 역사적 순간이라도 우리는 너무 쉽게

⁵ [삼상 16: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자, 보라.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적이 없다. 나는 이 어두운 시간에도 내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를 확신시키신다. 예수님은 “음부의 문들”에 대해 모두 알고 계셨지만 그것들이 그분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마 16:18).

9. 그런데 사무엘에게 “다음 단계”는 틀림없는 문제거리였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었다(삼상 16:2a).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암송아지도 준비하시는 것을 본다(삼상 16:2b). 사무엘은 여호와께 드릴 희생 제사를 구실 삼아 베들레헴에 갈 수 있고 아무도 그보다 더 지혜롭지 못할 것이다.⁶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했다. 그런데 당신은 두 번째 요점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말해 주는지 보고 있지 않는가? 이 작고 초라한 구절들은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에 불과하지 않은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의 두려움을 주목하시고 해결해 주시는지 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조롱하거나 비웃지 않으시고, 그에게 관찮은 럭비 선수가 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말 앞에서 떠다고 하여 그를 놀리지도 않으신다(시 103:14).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는지 이해하고 계시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당신은 세상에서 혼자이고 더 어두운 날들이 다가올 때 누가 당신을 돌보아 줄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지 않는가? 당신은 그리스도의 양떼 중 하나이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는가? 당신을 버리고 있는 배우자가 있어서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지 않는가? 당신은 사무엘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그분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몸을 굽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을 만나 주신다.
10. 셋째 요점은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상이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호와께서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셨다(삼상 16:1 직역).”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이 바로 즉시 그 왕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엘리압에 대한 좋은 것, 곧 그의 체격,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처신하였던 방식, 혹은 그의 말끔함 등등. 누가 알겠는가? 어쨌든

⁶ 여기에 비윤리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사무엘은 자신의 모든 의제를 사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보다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 John Murray, *Principles of Conduct* (Grand Rapids: Eerdmans, 1957), 139-141 쪽을 보라.

사무엘은 엘리압의 온 몸에 “왕”이라고 쓰여 있는 줄로 알았다(삼상 16:6).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운영 원칙을 천명하셔야만 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고 살피는 분이시다. 그래서 엘리압은 버려진 자였다(삼상 16:7). 외형적으로 엘리압은 사울(삼상 9:1-2; 10:23-24)만큼이나 인상적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사무엘이 자기 뜻대로 했다면, 그는 또 다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또 다른 재앙을 향해 나아갔을 것이다.

11.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명백한 것들이 주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무엘을 막으셨다. 이것은 동네 슈퍼마켓에 식료품을 사러 갔던 린다 버넷에 관한 AP 통신 기사와 비슷하다. 차문이 잠기고 창문이 닫힌 채 차 안에 앉아 눈을 감고 손을 머리 뒤로 올린 그녀의 모습이 목격되었다. 한 남성이 그녀에게 괜찮은지 물었다. 그녀는 뒤통수에 총을 맞았고 한 시간 넘게 자기 머리를 붙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구급 대원들이 출동했다. 그들은 차 안으로 들어가 린다의 머리 뒤쪽에 빵 반죽 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필스버리 비스켓 통이 열에 의해 폭발하면서 총소리와 함께 반죽이 그녀의 뒤통수를 강타한 것이었다. 그녀가 붙잡고 있던 것은 머리가 아니라 빵이었고, 그 해결책은 수술이 아니라 삼푸였다. 그러나 그것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당신이 총소리와 함께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12. 엘리압은 어느 모로 보나 왕답게 **보였다**. 사무엘은 그것에 속아 넘어갔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가장 훌륭하고 경건한 지도자조차도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말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기름 뿔로 성급하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을 막으셨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주 자신의 종들을 다루는 방식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재앙을 초래할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막으셨던 횃수를 항목별로 나눌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구원을 위한 장애물들을 놓아주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13. 사무엘이 이새에게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이 아들도 택하지 아니 하셨다”고 말해야만 했기 때문에 모여 식사하는 자리는 다소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후보 아들들이 다 낙마했을 때 사무엘은 이새에게 당연한 질문을 던졌고, “후보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여겨 양을 돌보게 한 막내 아들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부름을 받고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시 한번 성경은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고 목적을 이루는 데 가장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주 인간의 지루한 머리에 들어 있는 표준과 기대에 대항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흥미진진하고 참신한 분이시다.
14. 사무엘상 16장 1-13절은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훌륭한 말씀이 아닌가? 특히 교회가 위기의

순간(사실, 교회의 대부분의 시간이 위기의 순간임)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더욱 그러하다. 이 본문은 교회에게 “이러하신 하나님 곧 모든 경우에 알맞고 친절하고 지혜롭고 다르신 하나님이 계시는 한, 당신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본문의 모든 것은 그분에 관한 것이다. 구약 내러티브를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이러한 일관된 하나님 중심적 관점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한다.

II. 모험적 용기 (An Adventurous Courage)

15. 나는 성경을 해석할 때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일관된 관점”을 꼽는다.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지만 덜 중요한 전제 조건들도 있다. 이 중 하나는 내가 “모험적 용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16.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겠다. 우리의 해석적 접근 방식이 하나님 중심적이라면 우리는 자주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과 어떻게 맞물리는가와 같은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청중의 일부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신학적 난제들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에 관한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문이 명확할지라도,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아니, 당신은 거기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이다. 난제들 가운데 보화들이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본문의 가르침이 이끄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든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지라도 말이다. 다른 어떤 신비들이 그렇게 중요할까? 아니다. 우리는 단지 논쟁을 부추기기 위한 신학적인 논쟁에 뛰어 들고 싶지 않을 뿐이다.⁷ 그러나 신학을 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적절하지 않은 책을 연구하고 있는 꼴이 된다!
17. 거기에 신학과 교리가 있을 것이고, 아마도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운 교리가 있을 것이다. 그건 그렇고, 일단 성경에 온 것을 환영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매우 교리적인 책이기

⁷ 하나님의 주권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방식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청중이 관심을 꺼버리거나 저항하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정면으로 돌파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때때로 사람들을 자극하는 무거운 유행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내러티브와 같은) 성경 본문에서 이러한 주제를 설교하는, 은밀하지만 여전히 윤리적인 방식이 자주 있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어쨌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아니면 내가!—다른 교회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하튼 교리적 논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선포를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때문이다. 사실 나의 설교의 대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이하심과 방식들을 강해하며 하나님의 교리로 가득 차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어 있기만 하면) 이 혼란스러운 교리를 설교하는 데 있어서 교리적인 뼈가 이야기의 살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내러티브 본문보다 더 나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18. 사무엘하 17장을 예로 들어보자. 다윗은 피난 길에 오르며 예루살렘을 떠났고, 압살롬은 쿠데타에 성공한 후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 궁리하고 있었다. 다윗의 전 최고의 모사였다가 반역자가 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을 제거하고 백성의 충성을 얻을 수 있는 계락을 베풀었다(삼하 17:1-4).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계락에 꽤 감동을 받았다. 그것은 최고의 모사다운 전형적인 아히도벨의 것으로 보였다(참고, 삼하 16:23). 어떤 이유에서인지 압살롬은 친 압살롬적으로 돌아선 듯 보이는 다윗의 친구 후새(삼하 16:16-19)에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압살롬은 후새에게 아히도벨의 계락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준다(삼하 17:6). 후새는 터무니없는 계락을 내놓는다. 그는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락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후새는 장황하고 그림 같고 아첨하는 수사학을 동원하여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삼하 17:14a). 그때 우리는 이 모든 일 뒤에 숨겨진 비밀을 읽게 된다.

이는 여호와께서[강조]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 아히도벨의 “좋은” 계락을 꺾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삼하 17:14b).

19. 사무엘하 17장 1-24절을 살피면서, 당신은 14절 하반절 말씀이 이야기의 중앙에 놓여 있는 신학적 반석이고 전체 이야기의 닻의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반짝이는 네온 사인과 같은 본문이다. 여기에 난감한 것이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셨고 아히도벨의 성공적인 계락을 꺾으심으로써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심판은 결코 기분 좋거나 편안한 것이 아니다.
20. (내가 돌아가신 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참고 문헌을 밝히지 않지만) 한 강해자가 했던 것처럼 당신도 당연히 “이기심의 위험”에 대해, 압살롬이 악한 계획을 밀어붙일 용기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 그리고 우유부단함이 자주 이기심에 빠진 자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다음, 잠깐 지나가는 식으로 사무엘하 17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인정하는 언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4절 하반절 말씀은 압살롬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에 강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분명한 의도를 따라 설교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

21. 이 단락을 완전하게 다 개진할 수 없지만, 나는 이 단락이 여호와와 주권에 대한 두 가지 강조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첫째로, 이 단락은 **하나님의 주권의 신비**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혀 참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주어진 후, 우리는 다윗의 막이 내릴 때가 될까 봐 조마조마한다. 그러나 그때 후세는 미사여구와 생생한 묘사로 자극적인 계략을 압살롬에게 준다. 그는 압살롬의 **지식**에 호소한다(삼하 17:8에서 “당신”은 강조적임, 곧 아히도벨이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렸을지 모르지만 “당신(압살롬)”은 이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지시킴). 그는 또 압살롬의 **신중함/두려움**에 호소한다(삼하 17:9-10에서 “압살롬이여, 성급함과 어리석음 사이에 미세한 경계선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압살롬의 **자만**(삼하 17:11)과 **중요**(삼하 17:12-13)에 호소한다. 아히도벨은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면, 후세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사무엘하 17장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비밀을 읽으면, 당신은 후세에게 영광송을 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후세는 단지 압살롬을 죽이시려는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 그분의 기민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주 잘 숨겨져 있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악한 사람들과 악한 목적들이 아무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의 확고한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주권이 그토록 비밀스럽고 그렇게 감추어진 채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정말 그것에 대한 흥미와 신비를 증진시킨다.

22. 둘째로, 이 단락은 **하나님의 주권의 승리**를 가르친다. 사무엘하 17장 14절 하반절의 모든 확실성은 뒤따르는 일에서 드러나는 명백한 불확실성에 자리를 내어 준다. 그들은 후세의 계략을 따를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전략 회의에서 그를 떠나게 한다. 이제 후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윗에게 상황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하는 것뿐이다. 그것도 그 자체로 무모한 모험임이 입증되었다(삼하 17:15-22). 그러나 모든 것이 다윗의 보호를 위해 움직여 나간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감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다윗은 다시 반격할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군대를 때려눕힐 것이었다. 아히도벨은 회복된 다윗에 의하여 반역죄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보다 조용히 집에서 자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겼던 것이 분명하다(삼하 17:23). 그러나 아히도벨의 최후는 단순히 개인적인 자살 그 이상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과 왕국을 감히 공격하는 자들에게 정해진 수치스럽고 확실한 최후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다. 여기에 “더 큰 요점,” 즉 “종말의 일들”에 대한 암시가 있다. 왕을 배신한 이 사람의 몰락은 참되고 더 위대하신 다윗, 곧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왕과 왕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23. 사무엘하 17장 14절 하반절이 너무 신학적이고 주권 지향적이어서 “오싹”했다면 그건 비극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당신의 청중은 여호와의 방식들이 얼마나 매혹적이며 그의 왕국이 얼마나 견실한가에 대해 듣지 못할 것이고, 흥미진진한 교훈과 견고한 위로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사무엘하 17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자석 삼아 당신이 이 내러티브의 핵심 진리로 빨려 들도록 의도하셨다. 그것은 교리적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교리에 대한 피해망상(편집증)이 있다면, 그걸 극복하라.

III. 어떤 악의 (A certain viciousness)

24.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과 사역이 우리 해석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부차적인 문제에 몰두하려는 유혹을 냉정하게 물리쳐야 한다. 우리 중 일부는 철두철미함(보통은 장점)에 대한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본문의 가르침에 이르기 전에 본문의 어려움이나 난제를 모두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 청중들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 모든 것이 본문의 가르침을 무디게 하고, 흐리게 하고, 죽여버릴 수도 있다.
25. 예를 들어 열왕기하 5장을 설교하려고 할 때, 나아만의 나병이 한센병이었는지 아니면 정확히 어떤 병이었는지를 다루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설교의 처음 5분을 병 문제를 다루는 데 할애하여 레위기가 이스라엘의 나병에 대해 가르치는 것과 우리가 아람의 나병에 대해 모르고 있던 것을 설명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본문을 연구할 때 해당 본문과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리고 본문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루며 그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한 내용 중에는 강단으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설교자가 청중이 본문에 대해 가질 법한 질문, 곧 그들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고 그 점에 대해 무심한 사람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당신이 나아만의 나병을 온전히 다루지 않는다면, 나중에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는 성경의 “나병”과 다른 질병들에 특별한 관심을 늘 보여왔고, 그의 취미가 고대

피부학인 타스마니아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쓴 논문을 읽었고, 나아만의 질병에 관하여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제안한 적이 없는 제안을 내놓는 사람이다.

26. 하지만 무시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리폼드 신학교 채플 시간에서 설교학 교수였던 로이 테일러 박사는 선택된 본문에 대한 그의 설교가 “고속도로” 설교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흥미로운 “출구”마다 “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속도를 내며 달리듯이 본문의 주요 취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것은 자주 우리 작업의 좋은 모델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것에 몰두하는 것은 불필요한 산만함을 많이 없앨 것이다.

27. 여호수아서 2 장은 이에 대한 유용한 예이다. 여기에는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라합의 문제가 등장한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갖고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며 “만일 나치 당원들이 당신의 문에 이르러” 유대인을 숨기고 있는지 묻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잠시 멈추고 내가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싶다. 나는 우리의 본문에서 그러한 난제들을 무시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강해자가 “라합의 거짓말”이란 딜레마를 오히려 철저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화권도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문제에 너무 “매달려” 본문이 주고자 하는 증언을 전혀 듣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28. 여호수아서 2 장의 구조는 그 증언을 잘 드러내 준다. 다음과 같은 구성에 주목하라.⁸

여호수아에 의한 지시, 수 2:1a

도착/관심사: 정탐꾼들의 보호, 수 2:1b-7

신앙 고백, 수 2:8-14

도주/관심사: 라합과 그 가족의 보호, 수 2:15-21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옴, 수 2:22-24

29. 여호수아서 2장 7절 끝에 나오는 표현에 주목하라.⁹ 독자는 가벼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며 초조해한다. 성읍 문들이 닫혔다면 두 정탐꾼들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의아해하며

⁸ 이 구성은 나의 책 *Joshua: No Falling Words*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0), 25 쪽[여호수아 주해, 12]에 있는 것을 약간 고친 것이다. [역자 주: 이 둘의 차이점은 두 번째 항목의 절 수 표시에 있어서 여호수아 주해에는 2-7 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⁹ [수 2:7]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이다. 그런데 저자가 여호수아서 2장 15절 이하에 이르러서야¹⁰ 독자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에도 유의하라. 저자는 그 사이에 라합의 신앙 고백을 배치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자는 여호수아서 2장에서 정탐꾼의 도착(1-7절)과 도주(15-21절) 사이에, 곧 이야기의 바로 중앙 부분(8-14절)에 라합의 신앙 고백을 놓는다.¹¹ 그런데 그것은 참된 믿음의 요소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요약이다.

통신(communication): 여호와와 능력에 대하여 들음, 수 2:10

확신(conviction): 여호와와 위엄을 고백함, 수 2:11

헌신(commitment): 여호와와 자비으로 피신함, 수 2:12-13

30. 믿음은 증언(testimony)에서 설득(persuasion)을 거쳐 모험(venturing)으로 나아간다. 이 모든 것이 저자가 전하는 이야기의 중심이고 초점이다. 이것이 **라합이 말한 진리**이다. 그러나 여호수아 2장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경향은 무엇일까? 아, 여기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얼마나 많은 “견해들”이 있는가? 어느 정도는 그러한 것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매료되어 집착하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서 눈을 떼는 경향이 있다. 여호수아의 저자가 “라합”에 관한 우리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보라. “저 사람도 그렇게 설교했네!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나는 여호와와 지고하심에 대한 라합의 고백을 이 본문의 한 가운데에 배치했는데, 그가 이것을 정말 보았을까? 그가 이것을 정말 들었을까? 나는 분명 7절 끝에서 이야기의 흐름을 끊으며 정탐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8절 바로 앞에서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기조차 했다. 그런데 여기 이방 여인 곧 가나안 기생이 보다

¹⁰ [수 2:15-16] 15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16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¹¹ [수 2:9-12] 9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12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더 높은 도덕적 표준을 갖지 않은 것에 대하여 걱정하는 설교자가 있네. 으악,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이 본문에서 라합이 말한 거짓말이 라합이 말한 진리를 가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나는 설교할 때 난제 해결에 연연하지 말고 금(正鵠 정곡)을 노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31. 당신은 수많은 내러티브 본문에서 덜 중요한 것에 머물고자 하는 유혹에 직면할 것이다.

- 1) 당신은 열왕기상 20장에서 아합과 대면할 선지자의 이야기를 만난다. 이 이야기에 좀 이상한 부분(왕상 20:35-36)이 나온다. 이 선지자가 한 친구에게 자기를 치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거절한다. 그러자 그 선지자는 그 친구에게 사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당신은 이 본문에 대해 설교할 수 없다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여호와의 말씀에 관하여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 2) 아니면 열왕기상 22장에서 당신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아합을 꺾어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환상에 대하여 미가야가 말하는 것을 우연히 마주칠 수 있다(19-23절). 당신은 여호와께서 속임수를 쓰시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당신이 속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아합에게 말해 주는 것이 무슨 속임수가 된다는 것인가?
- 3) 아니면 당신은 사사기 3장을 읽다가 에글론의 육중한 몸이 특별한 화장실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의 창자와 흘린 피를 그냥 지나쳐 버리고, 사사기 3장 12-30절을 그 의도를 따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본다면, 그것은 당신의 종말론에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비대한 오물들이 역사의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질 것임을 확신시켜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설교할 때 덜 중요한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루지는 않겠다는] 어떤 악의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해석학적 곁길로 나아가는 우를 범할 것이다.

IV. 이끄는 열정 (A driving passion)

32. 1700년대 초반에 에벤에셀 어스킨이 집례하는 성찬식에 참여한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어스킨의 강해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어스킨이 누구인지를 알아냈고 다음 주일에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예배당으로 갔다. 그러나 그녀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녀는 이전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처럼 감동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에 당황한 그녀는 어스킨을 찾아가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설교자가 당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설교자 본인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그녀의 느낌에 왜 그런 차이가 있었는가? 어스킨은 이렇게 대답했다. “부인,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주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인은 에벤에셀 어스킨의 말을 들으러 왔습니다.”¹²

33. 우리의 성경 해석 문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혹자는 여기서 내가 “도를 넘었다”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석학적 문제의 상당 부분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대상에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해석이 본제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는데도 모른다.

34. 시편 43편 3-4절에 나오는 고라 자손의 시구를 읽을 때 종종 나는 영적인 난쟁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오, 당신님의 빛과 당신님의 진리를 보내 주소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것들이 나를 당신님의 거룩한 산과 당신님의 장막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겠습니다.

나의 넘치는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35. 나의 넘치는 기쁨이신 하나님(God – my exceeding joy)! 일상에서 나는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일상에서 나는 그분을 그런 분으로 찾고 있는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내 시선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가? 그가 나의 성경 해석에서—특히 나의 성경 해석에서조차도—그런 분이어야만 하고 그런 분이 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 침을 많이 흘리고 있지 않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그분이 아니라 설교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은 예배의 문제일 수도 있다.

V. 부록 (건너뛰어도 됨) [Addendum (can be skipped)]

36. 이 장은 구약 강해가 단순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분명히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지만 내가 복음주의 해석자들 사이에 소수의 견해라고 간주되는 것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은

¹² John Whitecross, *The Shorter Catechism Illustrated from Christian Biography and History* (reprint ed., London: Banner of Truth, 1968), 144.

변명해야 할 것 같다.

37. 질문은 구약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하는가(이에 대한 답은 긍정임)에 있지 않고 **모든** 구약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해야만** 하는가에 있다. 그래야만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곤 한다. 그들은 요한복음 5:39-40, 46과¹³ 누가복음 24:25-27, 44-47에¹⁴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본문이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단언하셨다고 주장한다.

38. 누가복음 24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과 구약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로, 예수님은 구약의 증언의 **전체**(눅 24:25, 44),¹⁵ 특히 메시아의 영광 이전의 고난에 대한 증언(눅 24:26, 46)에 관심을 두셨다. 둘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증언을 찾을 수 있는 **구약 자료는 광범위**하다(눅 24:27a, 44b).¹⁶ 메시아에 대한 증언은 구약의 모든 부분에서 발견된다. 셋째로, 구약 성경의 증언은 특히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¹⁷ 다소 중첩되긴 하지만 이 세 가지 사항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장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9.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추론하여 내리는 결론은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지만

¹³ [요 5:39-40, 46]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 46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¹⁴ [눅 24:25-27, 44-48] 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 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¹⁵ 눅 24:25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리고 눅 24:44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에 나오는 “모든 것”이란 단어에 주목하라.

¹⁶ 눅 24:27a의 “**모세로부터**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그리고 눅 24:44b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것들”이란 어구에 주목하라.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반대하는 성경 비평의 주장들에 맞서는 것이다.

¹⁷ 눅 24:27a의 “**자기에** 관한 것”과 눅 24:44의 “**나에** 관한 ... 모든 것”이란 어구에 주목하라.

- 구약이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¹⁸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가? 그것은 내가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을 근거로 광범위한(*extensive*) 추론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집중적인(*intensive*) 추론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나의 주장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취지를 설명하면 이렇다. 나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all parts)이¹⁹ 메시아로서 자신의 고난과 영광을 증언한다고 가르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구절/본문**(every passage/text)이 자신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 **안에서**(in)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지적하셨지만(눅 24:44), 구약의 모든 구절이 자신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구약 (내러티브) 구절이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를 가리키도록 해야만 한다는 강박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0. 그렇다면 모든 구약 강해가 그리스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2) 그러한 통제가 구약 강해를 빈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두 번째 경우가 일어나는가? 만일 구약 강해가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해야만 하는데 구약 구절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는다면(아니, 말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가치 없는 강해로 간주하여 제거해야 하지 않겠는가?
41.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사무엘상 25장은 여호와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그의 종 다윗이 나발과 그의 온 집에 대한 충동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계획을 어떻게 제지하셨는지를 이야기한다. 이 제지라는 주제가 본문 전체에 퍼져 있다(삼상 25:26, 33, 34, 39).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길로 가는 그분의 종들을 어떻게 (꼭 사랑스러운 여인을 통해서는 아닐지라도) 은혜롭고 단호하게 가로막으시는가를 보여주지 않는가? 그분은 자신이 선택한 왕에게만 그렇게 하시는가, 아니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주님의 손길이 자주 우리의 정해진 어리석음을 가로막는 노상 장애물을 사랑스럽게 세우는 방식을 주님의 백성에게 지적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요점이 적절한 강해나 적용이 되기 전에

¹⁸ [원문] “From Jesus’ statements I make an inference and form a corollary: the whole Old Testament bears witness to Christ; and, the Old Testament does not bear witness only to Christ.”

¹⁹ [역자 주] 저자의 “all parts 모든 부분들”에서 “부분”은 유대인의 히브리 정경 분류법에 따라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2 분법 혹은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이라는 3 분법의 각 부분을 의미한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든 기독교론적인 체(Christological sieve)로 거르는 일을 해야만 하는가?

42. 아니면 사무엘상 4장 3절을 예로 들어보자. 그것은 신학으로 짝 차 있다. 나쁜 신학으로 말이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한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멋진 생각이다. 이것은 이교도의 마음을 가진 언약 백성의 사례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 궤에²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여호와와는 “패배한” 신으로 보일 것이고 그분의 명예는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그분은 **감히**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들이 원하는 곳, 곧 그들의 수중에 하나님을 두었다. 이것은 신을 납치하는 또 다른 사례이다. 오늘날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 나쁜 신학과 유사한 것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도 하나님을 억압 아래 두기 위한 “복음주의적” 책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보다 더 교묘하게 그것을 실행할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행운의 호부(護符)를 제공하는 종교의 추종자는 아닌가? 그러나 이런 특별한 강해와 적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 없이도 얼마든지 개진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요점이

²⁰ [역자 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법궤”라는 용어는 한글 성경(개역, 개역 개정) 레위기 16 장 2 절에 단 한 번 나온다. 그러나 레 16:2 에 “법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하아론](הַאֲרוֹן)은 직역하면 “그 궤”이지 “법궤”가 아니다. “법궤”라는 용어 사용은 십계명을 율법 혹은 법령으로만 보도록 잘못 인도할 수 있다. 모세 오경에 “법의 궤”가 나오지 않고 “증거궤(=증거의 궤)” 혹은 “언약궤(=언약의 궤)”로 명명된 것은 십계명을 법령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으로 본 것을 잘 보여준다. 모세 오경에서 “증거”는 “언약”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말이다. “증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אֵדוּת[에두트]는 종주국과 속국사이에 맺은 종주권 조약의 내용을 가리키는 아카드어 adē[아데](adū[아두]의 복수)와 관련이 있고 보통 “언약”으로 번역되는 בְּרִית[브리트]가 널리 사용되기 이전에 언약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Klin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118 n. 11). 이것은 모세 오경에서 십계명을 지칭할 때 “בְּרִית[브리트] 언약”보다 “אֵדוּת[에두트] 증거”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된 데서 확인된다. 삼상 4-6 장에도 “법궤”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으며 “여호와의 언약궤(삼상 4:3, 4[2x], 5, 6)” 혹은 “하나님의 궤(삼상 4:11, 17, 18, 21; 5:1; 6:10[2x])” 혹은 “여호와의 궤(삼상 5:3, 4, 6:1, 2, 8, 11, 15, 18, 19, 21)” 혹은 “이스라엘 신의 궤(삼상 5:7, 8[2x]; 6:3)”라는 이름이 나온다. 레 16:2 의 הַאֲרוֹן[하아론]은 “그 궤”로 번역하든지, 굳이 밝힌다면 “증거궤 혹은 언약궤”로 바꾸든지 해야 한다. 개역개정에서 “증거”만 나온 경우 “증거판”과 “증거궤”처럼 폰트 크기를 달리하여 “증거판”과 “증거궤”와 구별해 준 것은 잘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 돌판과 궤 혹은 성막과 관련하여 “증거”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증거” 대신 “법” 혹은 “법궤”로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일일이 각주를 단 것은 불필요한 것이며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 둔 궤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지 않는 “법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적인 선포로 무효화되는가?

43. 아니면 열왕기상 17장 17-24절을 살펴보자. 이 본문을 설교하고 있었다면 나는 여기 23-24절이 보여주는 바 죽음에 대한 여호와와 승리로부터 마가복음 5장 21-43절[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심], 누가복음 7장 11-17절[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심], 요한복음 11 장[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참고, 딤후 1:10)이 온전히 보여주는 바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도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열왕기상 17장 17-18절은 어떤가? 절박한 궁핍 가운데 있던 여인(왕상 17:10-12)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왕상 17:13-14) 계속되는 공급을 즐기다가(왕상 17:15-16) 그만 아들이 죽자 슬픔에 잠기게 된(왕상 17:17-18) 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이지 않은가? 생명을 보존해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빼앗아가셨다. 이 본문에서 길르앗의 향유가 주님의 동시대 백성 중 일부에게 스며들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집회에 이 과부가 직면했던 것을 정확하게 아는 신자들(그들 중 일부는 이 과부처럼 최근에 신자가 됨)은 없는가? 그들은 그들 장막 위에 보이신 주님의 미소를 즐기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덩이로 밀어 넣으신 것처럼 보이는 경험을 한다. 그것은 단지 믿는 경험의 일부이다. 그것이 구약의 내러티브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 백성 앞에 제시하라고 외치고 있다. 즐거움에서 절망으로, 하나님의 공급에서 그분의 가혹하심으로 이어지는 이 순서를 보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은 놀랍게 위로를 받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해해 준다고 느끼며 이상하게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요점에는 명백하게 기독교적인 것이 없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이 요점이 나의 청중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로 사역을 위해 다른 수단을 찾으셔야만 한다고 가정해야 하는가?²¹

44. 구약 내러티브를 통해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자주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무엘상 16장 1-13절을 다시 보라. 사무엘상 16장 8-12절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놀라움을 차근차근 설명한다면, 다윗의 후손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택된

²¹ 나는 강해자들이 또한 기독교적 연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본문에 있는 좀 더 평범한 이런 신학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았던 창세기 22 장에 대한 설교 요약이 생각한다. 그 강해자는 그리스도와 연결 고리를 끌어내는 데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이 내러티브의 바로 첫 부분에 있는 엄청난 신학적 문제(곧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약속과 계획이 모순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무시한 것 같았다.

왕이 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이유들을 댈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막 6:2-3). 그는 너무 많은 즐거움을 좇는다(마 11:18-19). 그는 적절한 곳에서 나오지 않았다(요 7:41-42). 메시아들은 고난당하지 않는다(마 27:42-43).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분이다(벧전 2:4). **그리고** “믿는 그의 백성에게도 보배”이다(벧전 2:7).

45.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여호와와 신이 다윗 위에 임하여 임무를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셨던 다윗의 경험의 **패턴**을 통해 우리는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지적할 수 있지 않는가? 성령님께서 다윗 위에 임하시자마자 그는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사울의 시기, 분노, 음모와 같은 고난의 장으로 빠져든다. 여호와와 신이 임한 사람 다윗은 쫓기고 배신당하고, 함정에 빠졌다가 피신하고, 동굴에 숨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 망명 생활을 하며 궁지에 몰린다. 성령님께서 오시자 고난이 시작된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 곧 다윗의 주님에게도 동일하지 않았던가? 그분의 세례 때에 성령님의 내려오심과 성부의 음성보다 더 고무적인 것이 있었을까(막 1:11)? 그리고 나서 광야, 유혹, 원수가 나온다(막 1:12-13).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이 나온다. 그런데 동일한 패턴이 그분의 백성에게도 일어난다(행 14:22).

46.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나는 구약 내려티브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누군가 성경 본문을 근거로 이혼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가 이혼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구약 본문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적법하게 보일 수 있는 구약 본문들에서도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무엇 때문에 내 자신의 구약 강해가 더 많은 기독교적 성향을 띠지 않는지 물어볼 수 있다. 그 대답은 간단하다. 나는 많은 다른 사람들만큼 그 분야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본문 속으로 그리스도를 억지로 끌어들이므로써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9 장 종합: 관찰에서 강해로 (synthesis: from observations to exposition)

1.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내러티브들을 설교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그 요소들을 종합해서 적용해 보는 연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어떻게 이 모든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일관된 강해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문으로 나는 출애굽기 1-2장을 택하여 관찰에 이은 강해를 제시함으로써 **관찰이** 어떻게 **강해로** 연결되는지 보여줄 것이다. 출애굽기 1장은 장 전체에 대한 관찰과 강해를 제시할 것이다. 출애굽기 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관찰과 막간 논평을 한 후 마지막으로 장 전체에 대한 강해를 제시할 것이다. 제시된 여러 표제들을 따라 읽으면, 독자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I. 출애굽기 1 장의 관찰 (Observations on Exodus 1:1-22)

2. 이름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책을 시작하는 것(출 1:1-5)은 가장 좋은 마케팅 전략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기 1 장이 모두 백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으면 아주 일리 있는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 곧 출애굽기 1 장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내려는 소망에서 본문을 주의 깊게 살핀다. 종종 반복은 단서를 제공한다. 바로 이 본문의 경우가 그렇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 장의 7 절과 12 절과 20 절에서 똑같지는 않지만 충분할 정도로 분명하면서 자제하는 듯한 반복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출 1:7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매우 강해져**(multiplied and became very, very strong)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출 1:12a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multiplied) 퍼져나갔다.

출 1:20b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multiplied and became very strong).

3. 저자는 단지 소수 민족의 출산율에 매혹되어 있었는가? 저자는 무엇 때문에 이런 반복을 사용했는가? 창세기 12-50 장에 비추어 출애굽기 1 장을 새롭게 읽으면, 우리는 자손 번성을 반복해서 묘사하는 출애굽기 1 장 7 절과 12 절과 20 절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창세기 12:2, 15:5, 17:6, 22:17, 26:4, 28:14 등에 나오는 백성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그 약속은 이상적 상황이라고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출애굽기 1 장은 자신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간단히 말하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4. 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출애굽기 1 장이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닌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 장은 요셉을 알지/인정하지 않은 새로운 왕에 관한 것이 아니다(8 절). 우리가 그 왕의 정체를 확인하고 연대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말이다. 출애굽기 1 장은 국고성들의 정확한 위치에 관한 것도 아니고(11 절) 산파들의 윤리에 관한 것도 아니다(19 절).¹ 우리는 본문과 관련된 역사적, 지리학적, 고고학적, 그리고 윤리학적 문제들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알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찾은 신학적 급소로부터 우리 손가락을 떼게 해서는 안 된다.
5. 몇 가지 더 관찰해야 할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 장 8-14 절에 묘사된 사태의 변화가 성경 독자인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가?² 우리가 창세기 15 장 13-14 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건 놀랄 일이 아니다.³ 이 모든 것은 흥미로운 뜻밖의 반전을 드러낸다. “그러나 창세기 15 장 13 절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은 억압하고 있는 바로와 그 백성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⁴ 바로가 알았었다면 그것은 그의 분노에 불을 질렀을 것이다!
6. 이외에 다른 관찰 사항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로, 산파들의 개인 이름이 주어진 점에 유의하라. 애굽의 왕에게는 그러한 존귀함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는 애굽 왕의 일반적인 명칭인 “바로”로만 불린다.⁵ 둘째로, 출애굽기 1 장은 서스펜스를 주는 설명(22 절)으로 끝난다.

¹ 산파들이 바로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는 “꾸며서 이야기”했다고 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우리가 그들의 말들을 그렇게 해석할 뿐이다. (어쩌면 올바른 “추측”일지 모르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왜 문제를 만드는가?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하다” 혹은 “튼튼하다”고 말할 때, 산파들은 동물 혹은 야생 짐승에게 사용하는 용어를 쓰고 있다. 어쩌면 히브리 여인들을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참고, W. H. Gispen, *Exodus*, Bible Student's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2], 37.) “바로여, 보십시오. 저 여인들은 동물과 같습니다. 그들은 애굽 여인처럼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산파가 필요 없습니다.”

² 저자는 히브리 본문(출 1:13-14)에서 다섯 번이나 “섬기다”는 의미의 어근 [아바드]에서 유래한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그 상황이 얼마나 암울한지 보여준다. [역자 주: Young's Literal Translation(YLT)은 이것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 13 and the Egyptians cause the sons of Israel to **serve** with rigour, 14 and make their lives bitter in hard **service**, in clay, and in brick, and in every kind of **service** in the field; all their **service** in which they have **served** is with rigour.]

³ J. A. Motyer, *The Message of Exodus*, The Bible Speaks Today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5), 32.

⁴ Gispen, *Exodus*, 31.

⁵ Nahum M. Sarna, *Exod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7.

이야기는 2장에서도 계속되지만, 그것은 1장의 독립된 부분이다. 따라서 출애굽기 1장 22절은 독자들을 그들 앞에 놓인 가장 최신의 위기와 함께 머물게 한다. 셋째로,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점에 유의하라. 하나님께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바로는 거의 모든 말을 한다(9, 15, 18, 22 절).

II. 출애굽기 1 장의 강해 (Exposition of Exodus 1)

7.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 강해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름들(출 1:1-5)로부터 시작하며 이 모든 이름을 만나는 이유가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연구에 근거하여 출애굽기 1장이 **하나님은 자신에게 중요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시는 데 주의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⁶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선포할 것이다. 따라서 출애굽기 1장의 일반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침묵**(the silence of **God's faithfulness**)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청중이 7절과 12절과 20절에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출애굽기 1장이 무엇에 관해 말하는지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청중은 이 구절들을 보며 창세기에 나오는 백성에 대한 약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닫기 위해 약속이란 안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다.⁷ 그런 다음 나는 청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방식 곧 그것의 **침묵**을 **듣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에게 이 본문에는 요란스럽게 내보이는 것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때에 ‘보라, 나는 내가 했던 약속을 곧 이루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다.”와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정말로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있는 두 절[출 1:20-21의 저자의 논평]에 3번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⁸ 이에 비해 바로는 모든 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위협이 될 정도로 부상하는 백성을 묘사하는 7절, 12절, 20절에 나오는 세 개의 작은 문들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우리가 화려하거나 극적인 형태로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⁶ [역자 주] 저자의 설교 명제 “God is careful to keep his promises to the people who matter to him.”을 번역한 것이다.

⁷ (창 12:2, 15:5, 17:6 등에 나오는) 그 약속들의 취지는 이 세상에 언약 백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마 16:18).”라고 하신 말씀도 동일한 약속의 재천명이 아니겠는가?

⁸ [출 1:20-21] 20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8. 나는 출애굽기 1장 8-14절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비밀**(the secret of God's **faithfulness**)을 강조하고 싶다. 이스라엘의 번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난은 창세기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다.⁹ 그리고 여기에는 (기스펜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바로와 그 백성이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었다는 추가적인 아이러니한 반전이 있다. 당신은 사도행전 4장 27-28절에 나오는 교회의 기도에서 똑같은 것을 발견한다.¹⁰ 이 시대의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의 행보에서 뿔내지 못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기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며 따라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역설에 직면한다. 우리도 동일한 신비에 직면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행 14:22)"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나의 역경들은 하나님의 배신이나 태만의 증거가 아니라 그분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9. 우리는 용기 있는 산파들(출 1:15-21)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종들**(the servants of God's **faithfulness**)을 본다. 그들은 한 산파 지부의 리더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들은 바로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산파들을 사용하시며 자신의 신실하심을 유지하신다(출 1:20b 참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비천한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 반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군주는 일관되게 익명으로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 내레이터는 자신의 가치 척도를 표현하고 있다."¹¹ 두 여인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폭군의 칙령을 좌절시키고 있다.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시는 다양한 도구에 대해 우리가 너무 놀라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정말 그 도구들은 종종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¹²

⁹ [창 15: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¹⁰ [행 4:27-28] (행 4:25-26 절에 시 2:1-2 이 인용됨) 27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¹¹ Sarna, *Exploring Exodus* (New York: Schocken, 1986), 25.

¹² 산파들은 또한 우리에게 자유의 비결을 알려준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출 1:17a).

10.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서스펜스(the suspense of **God's faithfulness**)를 남기며 끝난다(출 1:22). 산파들과 함께 정치 공작을 하는 것은 이제 충분하다. 바로의 새로운 정책은 모든 애굽 시민이 대량 학살에 가담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것은 새로운 비상사태이자 출애굽기 1장의 끝이다. 이렇게 우리는 문학적 낭떠러지의 끝에 남게 된다. 글썄, 어떻게 될까? 조금만 생각하면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전 행적에 대한 기록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직면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출 1:1-6)?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출 1:7). 극심한 고난은 어떻게 되었는가(출 1:8-11, 13-14)? 하나님의 약속이 더 끈질기다는 것이 판명되었다(출 1:12). 그러나 노골적인 폭정이 자행된다(출 1:15-16, 18).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도 여전히 바로가 아니라 약속이 지배했다(출 1:20b). 저자는 당신이 논리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시간의 흐름(출 1:1-7), 고난(출 1:8-14), 그리고 폭정(출 1:15-21)에 직면하여 신실하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면, 그분의 백성은 모든 새로운 위기(출 1:22)에 직면해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요점은 출애굽기 1장 내내 당신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22절) 이후에도 당신을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다.

11. 여러 해 전에 타임지는 “오후의 성과 고난”이란 제목의 특집 기사를 냈다. 그것은 텔레비전의 연속극들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시청하지 않았고 그 기사만 읽었을 뿐이다.) 그 기사는 연속극의 작가가 금요일 오후 에피소드에 어떤 종류의 해결되지 않은 위기를 대본에 넣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시청자들이 주말 휴식 후 다시 그 연속극을 시청하게 하는 “갈고리”로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서스펜스는 연속극에서는 계략이지만, 현실에서는 아주 흔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해한다. 우리는 이 새로운 상실 혹은 이 새로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대답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른 모든 것을 헤쳐 나가게 해 주신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III. 출 2:1-10 의 관찰 (Observations on Exodus 2:1-10)

12. 출애굽기 2 장 1-10 절은 매우 총칭(總稱)적이다. 아무도 이름이 없다. 10 절에 “모세”라는 이름이 밝혀질 때까지 말이다. 그때까지 그는 다만 “아기”로 언급된다(7 번). 그의 아버지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출 2:1)”이라 하고, 그의 어머니는 “레위 여자(출 2:1)” 혹은 “그 여자(출 2:2)” 혹은 “그 아기의 어머니(출 2:8)”라고 한다. 다른 여성 등장 인물들은 “그의 누이(출 2:4)”와 “바로 딸(출 2:5)” 그리고 그녀의 시녀들이다. 하지만 이름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관찰하는 동안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의 눈을 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13. 출애굽기 2 장 2 절에 있는 “아들”이란 단어를 읽을 때 우리가 심한 아픔을 느끼는 것은 출애굽기 1 장 22 절에서 그런 남자 아기에 대해 바로가 명령한 것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엮어 만들고 방수 처리한 작은 “갈대 상자(출 2:3, 5)”에 대해 읽을 때 희망의 빛이 우리의 아픔에 합류한다. 여기서 갈대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바]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다른 곳은 창세기 6-9 장이다. 물론 창세기 6-9 장에서 “방주”로 번역된 [테바]는 여기서 “갈대 상자”로 번역된 [테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지만¹³ 어쨌든 여기 갈대 상자도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느낀다.
14. 저자가 출애굽기 2 장 5-6 절에서 긴장과 서스펜스를 서서히 올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책의 “2 장 내러티브의 특징들”의 끝부분인 “IX. 긴장”의 “46-48 항”에 나오는 나의 논평을 참고하라. 우리는 출애굽기 2 장 6 절 이하에 나오는 에피소드에서 유머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로, 바로 자신의 딸이 바로의 명령을 좌절시킨다. 적어도 이 주목할 만한 경우에는 그렇다.¹⁴ 둘째로, 그 아기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된다. 셋째로, 그 어머니는 친자식을 위해 젖을 먹이는 댕가로 왕궁에서 주는 일정한 삯을 받는다. 넷째로, 그 아기는 국가의 보호 아래 자라난다. 하늘이 웃고 있다.

IV. 출 2:1-10 의 막간 논평 (Interim Comments on Exodus 2:1-10)

15. 강해의 본보기를 위해 나는 출애굽기 2장 전체를 함께 다루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 1-10절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설교할 수 있다. 누군가 그렇게 해야 한다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논평을 주고 싶다.
16. 여기에는 하나님의 매우 즐거운 섭리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우리는 주님의 양 떼 가운데 상당수가 주님의 행복한 섭리보다 난해한 섭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출애굽기 1:1-2:10 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가 구원받은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모세 이야기”)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나는 이것을 인정하는

¹³ [역자 주] 여기서 저자는 [테바]를 “ark”로 번역하고 있다. KJV/YLT 는 [테바]를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모두 “ark”로 번역했지만, 다른 영어 성경들의 경우 대부분 창세기에서는 “ark”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basket”로 번역했다.

¹⁴ 그녀가 왕의 특혜 토템 폴(royal preference totem-pole)에서 좀 떨어진 하렘에 사는 첩의 사춘기 딸이었다고 할지라도 이 요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Sarna, *Exploring Exodus*, 31, 그리고 John D. Currid, *A Study Commentary on Exodus*, 2 vols. (Darlington: Evangelical Press, 2000), 1:61 등을 참고하라.

것이 (아마도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부모들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필사적으로 움켜 잡고 있던 갓난 자기 아기를 빼앗기며 억누를 길 없는 분노와 가슴 찢어지는 슬픔 가운데 “법대로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갓난 자기 아기가 나일강에 핵 던져지는 것을 보아야만 했던가?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놀라운(marvelous) 섭리를 즐겼지만, 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가사의한(mysterious) 섭리를 체득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섭리를 다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2 장 13-23 절에 묘사된 상황도 이와 똑같다. 거기서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애굽이 그의 안전을 위한 피난처가 되어 “모세의 경험”을 즐기셨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대부분의 유아들은 그렇지 못했다. 헤롯의 자객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사내 아이들을 모두 학살했다(마 2:16). 나는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섭리의 기이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흥분해야 하면서도 하나님 백성의 아픔이 우리로 하나님 섭리의 곤혹스러운 측면을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본문이 참으로 약속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섭리는 교회를 두려움으로부터는 항상 보호해 주지 않지만, 멸절로부터는 항상 보호한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17. 나는 우리가 출애굽기 2 장 1-10 절의 목표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다. 아기 모세의 보존에 대하여 읽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소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에피소드로 간주한다. 그런데 우리가 요점을 잘못 파악하는 것이 바로 여기이다. 왜냐하면 본문의 목표는 당신이 “저런, 섭리란 좋은 교리가 아닌가?”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본문은 “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합시다!”라고 당신을 부르고 있다.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진정한 예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둘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최고의 해석학적 순간에도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단 한 걸음 떨어져 있을 뿐이다.

V. 출 2:11-22 의 관찰 (Observations on Exodus 2:11-22)

18. 출애굽기 2 장 10 절에서 모세는 아기였다. 그런데 출애굽기 2 장 11 절에서 그는 장성하여 나가서 자신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출애굽기 2 장의 10 절과 11 절 사이에는 아주 많은 시간 차이가 있다! 모세의 연속되는 전기가 아닌 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즉시 우리는 피 흘리는 사건을 만나게 된다(출 2:11b-12).

그 때에 그는 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그의 형제들의 한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리 저리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음을 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고 그를 모래 속에 묻었다(출 2:11b-12).

19. 어떤 식으로든 강해자는 이 에피소드를 다루어야 한다. 일반적인 해석은 모세가 살인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앞서 나가며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 대해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나는 모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는 살인이 아니라 정의를 시행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¹⁵ 참고로, 모세가 본문의 세 가지 에피소드[출 2:11-12, 13-14, 15-17]에 모두 개입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구원을 가져오려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의 미래 사역을 미리 보게 하는 미광(微光)이다. 그러나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잔인하게 구타할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의 등을 돌리며 로마서 13 장을 인용할 것인가? 구타가 (중상을 입힐지 모르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당신 자신을 위로할 것인가? 모세(복받은 사람)는 휴대 전화가 없었다. 부근에 공중 전화 박스도 없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아, 그렇지만 본문은 그가 “이리 저리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음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출 2:12). 그렇다면 그는 몰래 내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 어구는 다른 곳(사 59:16; 참고, 사 63:5)에서도 사용된다.¹⁶ 이사야서 59 장 16 절에 여호와께서 “아무도 없음”을 보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위에 도와주거나 개입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다. 이사야서 59 장 16 절에 비추어 나는 모세가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리 저리 둘러보았으나 그럴 사람이 보이지 않자 싸움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애굽인을 죽이게 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여기서 모세는 “소명”없이 행동했던가? 나는 잘 모르겠다.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다. 나중에(출애굽기 3-4 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를 부르실

¹⁵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나의 친구요 동료인 존 커리드(John Currid)는 여전히 놀라 자빠질지 모른다. 그의 *Study Commentary on Exodus*, 1:67 를 보라. 여기서 나는 모세 그린버그(Moshe Greenberg)의 논의 중 일부(*Understanding Exodus* [New York: Behrman House, 1969], 44-45)를 따르고 있다.

¹⁶ [출 2:12]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וַיִּבֶן כֹּה וַיֵּרָא כִּי אֵין אִישׁ)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사 59:16]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וַיֵּרָא כִּי אֵין אִישׁ)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시; [사 63:5]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וְאֵין עֹזֵר]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때, 모세는 그 소명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음이 확실하다. 마치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비전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보인다.¹⁷ 그렇지만 이 에피소드만 따로 놓고 보면, 나는 모세에게서 어떤 흠을 잡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사정없이 때리는 것을 본다면, 당신에게도 그런 개입은 결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 그러나 이런 논쟁에 얽매이지 말자. 본문이 모세의 동기에 대하여 암시하는 것을 주목하라. “그는 (왕궁) 밖으로 나가 그의 형제들에게로 갔고 그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때에 그는 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그의 형제들의 한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출 2:11).” 영어 번역들은 본문을 중성화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남성적인 용어가 뇌졸증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반응하며 “형제”를 총칭적인 “백성” 혹은 이와 비슷한 용어로 바꾼다.¹⁸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당신은 히브리서 11 장 24-26 절의 설명을 기억하는가?¹⁹ 모세는 얼마나 이상한 가치관을 가졌던가! 모세는 얼마든지 사물들을 다르게 바라볼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모세는 자기는 델타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가졌지만 이 이스라엘인들은 하위 계층보다 더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는 더 세련된

¹⁷ 특별히 Motyer, *The Message of Exodus*, 59-62 쪽을 보라.

¹⁸ [출 2:11] 두 번 나오는 אֶחָאֵל[에하브]에 대하여 영어 성경은 “his brothers, his brethren” (YLT, AMPC, DRA, WEB, JUB), “his own people, his people” (NIV, ESV, ISV, CSB, RSV, NLT), “his fellow Hebrews” (NASB, NLT), “his countrymen” (AMP), “his kinsmen” (CJB) 등으로 번역한다.

YLT: And it cometh to pass, in those days, that Moses is grown, and he goeth out unto his **brethren**, and looketh on their burdens, and seeth a man, an Egyptian, smiting a man, a Hebrew, [one] of his **brethren**,

WEB: In those days, when Moses had grown up, he went out to his **brothers** and saw their burdens. He saw an Egyptian striking a Hebrew, one of his **brothers**.

ESV: After some time, when Moses had grown up, he went out to his **own people** and observed their forced labor. He saw an Egyptian striking a Hebrew, one of his **own people**.

NASB: Now it came about in those days, when Moses had grown up, that he went out to his **fellow Hebrews** and looked at their hard labors; and he saw an Egyptian beating a Hebrew, one of his **fellow Hebrews**.

NLT: Many years later, when Moses had grown up, he went out to visit his **own people**, the Hebrews, and he saw how hard they were forced to work. During his visit, he saw an Egyptian beating one of his **fellow Hebrews**.

¹⁹ [히 11:24-26] 11: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문화에 익숙하여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외진 별채에서 사는 것처럼 비주류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의 형제들”이었다. 내가 문자적 번역을 고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내가 신비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히브리어 본문에서 “형제들”이란 단어를 보면,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이 떠오르지 않는가? “그분은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히 2:11).” “그분은 모든 점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다(히 2:17).”²⁰

21. 우리는 또한 두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출 2:13-14). 잘못을 저지른 히브리 사람은 모세의 “정의”와 개입을 거부했다. 그 가해자는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 적절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는가? 스테반이 사도행전 7 장 23-29 절(그리고 35 절)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주목하라. 스테반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패턴**을 보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룬다. 우리는 스테반이 여기 히브리인의 모세 거부와 당시 이스라엘의 예수님 거부 사이에 유사점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다. 출애굽기 2 장 13-14 절에 대한 스테반의 해석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세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패턴(출 14:11-12; 16:2ff; 17:1-7; 32:1-6)과 일치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행동했다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스테반에 의하면 이 히브리 사람은 전형적이고 이스라엘인다운 이스라엘인이었다. 그는 아브라함의 씨에 속하였지만 구세주와 어떤 관계도 갖고 싶지 않았다.
22. 모세가 정의를 시행하려는 세 번째 시도(출 2:15-21)는 완전히 성공적이고 다소 재미있어 보인다. 르우엘의 딸들은 아마도 우물가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데 익숙했을 것이다. (출애굽기 2 장 18 절에서 르우엘이 그날 딸들이 적절한 시간에 집으로 돌아온 것에 대하여 놀라는 것에 유의하라.) 이 지역 목자들은 얼마나 사내다운(?) 녀석들이었는지! 그들은 여자들을 쫓아내며 양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도전할 용기를 지닌 사람을 만날

²⁰ 이 세상의 전형적인 위인들과 얼마나 다른가! 예를 들어, 폴 존슨(Paul Johnson)은 레닌이 “공장을 방문하거나 농장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결코 없고” 그가 거주하던 어느 마을의 노동자 계급의 숙소에서 나타난 적이 결코 없었다고 지적한다. “그의 전 삶은 자신이 속한 부류, 곧 부르조아 지식인들과 함께 보냈다(*Modern Times*, rev. ed. [New York: Harper Perennial, 1992], 52).” 노동자들의 투사란 것이 고작 그런 것이었다.

때까지는 말이다. 그것은 마치 한 구원자가 단지 몇몇 힘없는 미디안 소녀들을 위해 애굽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²¹

VI. 출 2:11-22 의 막간 논평 (Interim Comments on Exodus 2:11-22)

23. 우리는 이 단락의 개별 부분들에서 벗어나 계속 나아가야 한다. 사실, 당신은 내가 말한 많은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관없다. 그래도 출애굽기 2 장 11-22 절이 우리 독자에게 주고자 했던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4. 이 단락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전체 풍경을 살펴보자. 이스라엘은 쇠퇴해가고, 모세는 추방되고,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 있는 일곱 소녀는 유일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왜 이런 낭비가 있어야 하는가?”라고 묻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출애굽기 2 장에서 1-10 절은 우리의 희망을 불러일으켰지만, 11-22 절은 1-10 절의 전체 목적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엘리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섭리 가운데 [애굽에서] 모세가 받았던 모든 훈련은 그 뒤를 이은 오랜 세월 동안 [미디안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반 사막 지대에 드문드문 있는 초목 속에서 몇 마리 양을 돌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모세의 일류 교육은 분명 낭비되고 있었다.²²

25. 실망과 허무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붙어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모세는 놀랍게 살아 남았고 최고의 교육도 받았다. 그런데 그는 고작 양들을 위한 풀을 찾고 있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²¹ 출 2:22 에서 인정할 만큼 의미심장한 게르숨이란 이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므로 길게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출 2:17 에서 목자들이 르우엘의 딸들을 쫓아내는 것을 묘사할 때 동족 동사인 어근 [가라시]가 사용되었다. (“쫓아내다”는 동사 [바이가르숨]과 “게르숨”이란 명사 [게르숨]은 세 개의 자음을 공유한다.) 어쩌면 본문은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미디안으로 “쫓겨난” 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모세는 언어 유희적 설명을 하며 “거기의 나그네”를 뜻하는 게르숨이란 이름을 통해 자신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 [게르]”가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까다로운 부분은 “거기”가 어디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거기”는 지금 머물고 있는 미디안인가? 아니면 예전에 머물던 애굽인가? 그는 자신이 미디안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이 애굽에 속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John L. Mackay, *Exodus* (Ross-shire: Christian Focus, 2001), 60-61 쪽과 Sarna, *Exodus*, JPS Torah Commentary, 12-13 쪽을 참고하라.

²² H. L. Ellison, *Exodus*, Daily Study Bible (Philadelphia: Westminster, 1982), 12-13.

VII. 출 2:23-25 의 관찰 (Observations on Exodus 2:23-25)

26. 집에 전기 커피 메이커가 있다. 그것은 10-12 잔의 커피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뚝뚝 떨어지는” 방식을 사용한다. 물을 채우면 그것은 그 물을 가열하여 뿜은 커피를 담아 놓은 통으로 흘러가게 하며 커피가 그 아래 따뜻한 판 위에 있는 주전자 속으로 뚝뚝 떨어지게 한다. 나의 커피 메이커는 단순해 보이지만 작은 차단 장치가 있다. 예를 들어, 조급해서 전체 양이 끓여지기 전에 한 잔을 원할 때 주전자를 꺼내면, 통으로부터 커피가 떨어지는 일이 멈춘다. 나의 컵에 커피를 채우고 주전자를 제자리로 돌려 놓으면, 일시적으로 통에 “막혀 있던” 커피가 어느 때와 달리 빠르게 주전자 속으로 흘러내린다. 이것이 출애굽기 2 장 23-25 절에 대한 나의 인상이다. 출애굽기 1 장과 2 장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들은 거의 주어지지 않고 “막혀 있던”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에 관하여 침묵하자는 결탁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출애굽기 1 장(총 22 절)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있는 두 절(출 1:20-21)에서 3 번 언급될 뿐이다. 출애굽기 2 장(총 25 절)의 거의 전부(출 2:1-22)에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다가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갑자기 출애굽기 2 장 23-25 절에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언급이 본문 속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들으셨고 ...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 하나님은 보셨고 ... 하나님은 아셨다.”²³

27. 이 부분에서 다른 한 가지 사항을 살펴보자. 출애굽기 2 장 23 절에 의하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된 노예 생활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었다. 간단히 말하면, 정치 상황의 변화(곧 바로의 죽음)도 이스라엘의 상황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종종 정치적 변화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는데 말이다. 사르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애굽에서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축하하며 범죄자들을 사면하고 죄수들을 석방하고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확립된 관행이었다. 라암세스 4 세의 등극을 축하하며 작곡된 현존하는 한 찬양은 이 관습을 설명한다. 그것은 애굽에서 “도주자들이 그들의 성읍으로 돌아가고” “숨어있던 자들이 나타나고” “감옥에 있던 자들이 풀려나는” 행복한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권의 변화와 더불어 자신들의 처지가 어느 정도 호전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²³ 출 2:23 이하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에 대해서는 Motyer, *The Message of Exodus*, 41 쪽(“False starts and true beginnings 거짓된 출발들과 참된 시작들”이란 부분)을 보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그것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화된 비참함을 강조한다.²⁴

28. 이런 식으로 본문은 진정한 희망이 어디서 발견될 수 있는지를 설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정한 희망은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교한다.

VIII. 출애굽기 2 장의 강해 (Exposition of Exodus 2)

29. 경찰의 초대를 받은 힌두교 극단주의자들로 구성된 모임의 지도자가 인도 중부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러 온 두 명의 기독교인에게 말했다. 그는 그들이 다시 오면 뼈가 부러지고 산 채로 불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 기독교를 믿는 소녀들과 젊은 여인들은 납치되고 강간당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강요받았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들과 기독교 가정들이 화가 난 무슬림 폭도들에 의해 공격을 당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학교를 다니던 세 명의 소녀가 벌채용 칼을 휘두르는 광신적 암살단에 의해 참수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치욕을 당하고 심지어 식수 공급도 거부당했다. 우리 시대에도 고난당하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바로는 수없이 많고 분명 살아있고 건재하다.

30. 우리 중 일부는 현재 부당한 억압에 시달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 백성에게 “정상”인지 말씀해 주셨다(막 13:13).²⁵ 그리고 출애굽기 2 장은 분명 우리에게 이에 대한 명백한 본보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짓밟히고 두들겨 맞는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나는 출애굽기 2 장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출애굽기 2 장을 개별 단락들로 나누어 설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출애굽기 2 장을 전체적으로 보며 하나님 안에서 “장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강해할 수도 있다.

31. 첫째로, 출애굽기 2 장은 1-10 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즐거운 섭리에 의해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섭리”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복지를 위해서 상황들을 다스리며 엮어가시는 항상 흥미로운 방식을 의미한다. 출애굽기 2 장 1-10 절에 대한 관찰 부분에서 이미 다룬 모든 근거를 다시

²⁴ Exodus, JPS Commentary, 13.

²⁵ [막 13:13]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어머니가 있다(출 2:3-4). 그녀는 일정 기간동안 바로의 딸의 움직임들을 주시해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절박한 계획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이 책의 제 2 장[특징들 중 “긴장(tension)” 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어쩌면 그녀는 바로의 딸의 이교도 신앙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바로의 공주가 한 히브리 사내 아이가 안전하게 나일강에 안겨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는 나일강의 신이 그를 보호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간파할 것인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여기 이 부분에는 한 어머니의 모든 계산과 절박함(출 2:3), 누이의 감시(출 2:4)와 공주의 발견(출 2:5-6) 사이의 모든 긴장, 왕명이 좌절되는 유머(출 2:7-10, 앞선 논의 참고),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으나 논의할 여지없이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의 매력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에피소드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흥미롭고 유쾌하며 눈에 띄지 않는 분으로 드러내신다.

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비를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분명히 난제에 대하여 생각할 것이다. 아기 모세는 구원받았지만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에 던져 물고기의 밥이 되게 한 수많은 다른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십중팔구 “모세의 경험”은 보기 드문 예외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구하지는 않으셨지만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될 사내 아이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마태복음 2:13-23 에서 모든 베들레헴 사내 아이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세주는 구원받은 것과 똑같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결코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도 자기 백성을 근절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의 온 백성을 위한 구원자가 될 한 사내 아이를 보존하셨다. 본문이 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 땅에서 그분을 섬길 백성이 있게 하실 것이고 그분을 막을 수 있는 지상의 폭군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확실하게 할 자신의 방법, 곧 재미있고 조용한 방법을 갖고 계신다.

33. 둘째로, 출애굽기 2 장은 11-22 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실망들을 기각하시기(override)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의 행동은 동정(출 2:11a)에서 행동(출 2:11b-12)으로, 행동에서 거부(출 2:13-14)로, 거부에서 망명(출 2:15-22)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미디안에서도 모세는 비록 위협당하는

소녀들을 위한 것에 불과할지라도 정의를 구현하려고 애쓰는 구원자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출애굽기 2 장 1-10 절의 그 모든 놀라운 섭리는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모세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혼란이 거듭되고 일련의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는 정부 행정학 석사 학위를 가졌지만 시내 반도의 넓게 펼쳐진 황량한 지역에서 막노동을 하게 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34. 그렇지 않다. 몇 가지 일들(부분적으로 본문 위에, 본문 아래, 그리고 본문 주변에 있을지라도)을 고려해보라. 첫째로, 수십 년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시내산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다. 시내산 지역에 대한 그의 철저한 지식은(참고, 출 3:1) 엄청난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둘째로, “미디안과의 연관”은 모세의 장인(이드로/르우엘)이 여호와를 믿는 궁극적인 개종(출 18 장에 대한 이 책의 제 6 장 논의 참조)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얼마간 고난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셋째로, 모세의 실망과 망명은 자기 민족의 불행과 처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이 마지막 일에 대하여 모세 그린버그는 “미디안에서의 오랜 망명 생활이 없었다면, 모세는 애굽에서 자기 민족이 겪었던 이질감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말한다.²⁶ 모세가 화려한 공직에서 나와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에 대하여 그는 어떤 경험이 있었는가?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 그는 무엇을 알았는가? 어쩌면 모세의 고난은 당시 고난을 받고 있는 백성을 돕기 위해 필요한 준비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참고, 고후 1:3-4).²⁷ 어쩌면 미디안 생활은 결국 미친 짓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섞여 있었을지도 모른다.

35. 제이 비 필립스와 베라 필립스는 런던 남동부에 살며 목회하고 있었고 세계 2 차 대전 초기에 독일의 공습을 피해 살아 남으려고 애를 썼다. 야간 공습이 있을 때는 그들은 보통 두 개의 뒷마당을 걸어서 공동 피난처가 될 식탁을 가진 노부부의 집으로 갔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이 부부의 집으로 가던 중 평소와 달리 길모퉁이 우체통에 편지를 부치기 위해 앞길, 곧 포장 도로로 가기로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우편물을 수집하는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어쨌든 그날 밤 편지를 부치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하자마자 폭탄이

²⁶ *Understanding Exodus*, 49.

²⁷ [고후 1:3-4] 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확하며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급히 몸을 포장 도로에 내던졌다. 도로가 덜덜 떨리며 실제로 그들의 턱을 치는 데까지 올라왔다. 근처에서 폭탄이 터지는 굉음이 들렸다. 공습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옆드려 있다가 그들은 일어나 가서 친구들과 합류했다. 바로 그때 그들은 평소라면 그들이 갔을 길을 따라 뒷마당에 직경이 약 20 피트, 깊이가 약 7 피트인 분화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²⁸ 무엇 때문에 앞길로 가서 편지를 부치겠다는 결정, 곧 보기에 사소하고 불필요한 듯한 결정을 했던가? 먼지가 가라앉은 후 그것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거의 말이 되지 않는다.

36. 이것은 실제로 로마서 8 장 28-29 절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과 동일한 요점이 아닌가? 로마서 8장에서 28 절의 “선”이 29 절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라.²⁹ 이것이 우리가 산산 조각난 꿈, 명백한 실패, 가슴 아픈 실망을 바라보아야 할 방식이 아닌가? 모든 것이 씻겨지고 먼지가 가라앉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지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37. 셋째로, 출애굽기 2 장은 23-25 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약속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몹시 지쳐 있을 때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나는 이 결론 부분(출 2:23-25)이 그 앞의 전체 부분(출 1:1-2:22)과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고 싶다. 출애굽기 1:1-2:22 은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삼가는 반면 출애굽기 2:24-25 은 “하나님 + 동사”가 속사포 같이 잇따라 나온다.³⁰ (하나님은 들으셨고, 하나님은

²⁸ J. B. Phillips, *The Price of Success* (Wheaton: Harold Shaw, 1984), 96-97.

²⁹ [롬 8:28-29]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³⁰ [출 2:24-25] 24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וַיִּשְׁמַע אֱלֹהִי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וַיִּזְכֹּר אֱלֹהִים] 25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וַיִּבְטֹחַ אֱלֹהִים]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וַיִּזְכֹּר אֱלֹהִים] {새번역: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카톨릭 성경: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보시고** 그 처지를 **알게 되셨다**.}

ESV: 24 And **God heard** their groaning, and **God remembered** his covenant with Abraham, with Isaac, and with Jacob. 25 **God saw** the people of Israel—and **God knew**.

Cf. Stuart, *Exodus*, 104, n. 159: The NIV “was concerned about them” is a possible meaning of the MT Hb ... As a possible alternative to the NIV reading, the **NRSV** does a good job with the translation of the MT (God looked upon the Israelites, and God **took notice of** them”).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아셨다.) 나는 (바로의 죽음과 같은 정치적 변화가 주는) 헛된 소망과 (하나님의 행위가 주는) 참된 소망 사이의 대조를 강조하고 싶다. “하나님+동사”로 이루어진 모든 절이 귀중하지만 나는 출애굽기 2 장 24 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주셨던 약속들을 기억하신다는 뜻이다. 어떤 약속들인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창 12 장), 그 땅을 즐길 수 있도록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창 15 장),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창 17 장)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들은 수백 년 전의 것이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당신의 소망은 바로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있으며, 당신 형편의 어떤 운 좋은 변화가 아니라 듣고 기억하고 보고 아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때때로 우리는 거짓된 소망이 실패할 때에만 유일한 소망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이 나의 입장이다. 모든 것이 깎여 그루터기만 남게 될 때 내가 가진 것은 구세주의 옛 약속뿐이다(예: 요 6:37, 40; 10:27-28; 14:3).³¹

38. 나는 해딩톤의 존 브라운이 자기 교구의 한 여성 신자를 방문한 이야기를 정말 좋아한다. 그 여인은 임종 직전에 있었고 브라운은 그녀의 확신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는 “재닛,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모든 일을 하셨는데도 당신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신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이러했다. “정말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하라

Cf. Childs, *Exodus*, 28, n. 25: The last clause is difficult. The MT ‘and God knew’ lacks the usual object. The LXX reads καὶ ἐγνώσθη αὐτοῖς ‘he was made known to them’, which would be equivalent to the Hebrew niphal. ... Dilmann who proposes *wayyērā* ‘and he appeared to them’ (cf. Ex. 6.3). D. Winton Thomas, *JTS* 49 (1948), pp. 142f., suggests the meaning ‘cared for, kept in mind’, and cites an Arabic cognate. M. Greenberg (op. cit., p. 54) points out a close parallel in Gen. 18.21 with the meaning ‘**consider, take thought of what to do**’. This latter seems to be the best suggestion.

³¹ [요 6:37, 40]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 10:27-28] 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 14: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십시오. 만일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은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잃으실 것입니다.”³² (나는 영혼을 잃을 것이고 그분은 명성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반(bedrock)이라고 부른다. 우리도 재닛에게 마지막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좋으실 대로 하라 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한 책을 마무리하는 훌륭한 말이다!

³² Robert Mackenzie, *John Brown of Haddington*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18), 101-102.